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카자흐스탄



**Part I. 국가 개황**

1. 일반 현황 .....	2
2. 농업 현황 .....	11
3. 경제 및 무역 .....	17

**Part II. 농식품 시장 동향**

1. 수출입 현황 .....	28
2. 소비 현황 .....	42
3. 유통 현황 .....	48

**Part III. 농식품 물류 환경**

1. 물류 현황 .....	76
2. 환경 분석 .....	83

# 카자흐스탄

## Part IV. 제도 및 수출 프로세스

1. 통관 및 검역 .....	86
2. 라벨링 .....	93
3. 식품인증제도 .....	105
4. 통관 애로 및 비관세조치 .....	111

## Part V. 농식품 진출전략

1. 수출 유망품목 .....	118
2. 수출확대 전략 .....	120

## 부 록

1. 전문가 인터뷰 .....	128
2. 소비자 설문 조사 .....	134
3. 유관기관 목록 .....	151
4. 주요 박람회 정보 .....	153
5. 참고문헌 .....	154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카자흐스탄

# PART I

## 국가 개황

1. 일반 현황
2. 농업 현황
3. 경제 및 무역

## 카자흐스탄

## 1. 일반 현황

## 가. 국가 개요

국명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
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색 : 민족과 문화의 조화</li> <li>전통 문양 : 태양, 황금 독수리 상징</li> </ul> 
위치	아시아 대륙 중부
면적	272만km <sup>2</sup> (한반도의 12배)
기후	대륙성 기후, 평균 강수량: 250mm 북부 1월 -18℃, 7월 20℃, 남부 1월 8℃, 7월 29℃
수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19 기준 114만 명)
주요도시	알마티(192만 명), 카라간다(50만 명), 심켄트(103만 명), 크즐오르다(80만 명), 아티라우(65만 명), 파블로다르(36만 명)
인구	1,863만 명(*19, 재외동포 총수 11만명)
민족	카자흐인(67.5%), 러시아인(19.8%), 우즈베크인(3.2%), 우크라이나인(1.5%), 위구르인(1.5%), 타 민족(4.4%) 등 다민족 국가 * 한민족(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0.6%(*18)
언어	카자흐어(러시아어는 공용어)
종교	이슬람교(73%), 러시아정교(20%), 개신교(2%), 기타(5%)
독립일	1991년 12월 16일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GDP	1,672억달러, 1인당 GDP 9,139달러(*19)
화폐단위	텡게(Tenge, '19년 환율 기준 3.04원/텡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카자흐스탄 통계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나. 국토

- 국토 면적은 272만km<sup>2</sup>로,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이며 러시아와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7,599km),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국토의 약 64%가 사막과 반사막이며 26%가 스텝과 숲, 10%가 산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에 적절한 지역은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이동 방목에 적합하다.
- 행정수도는 누르술탄이며, 3개의 특별시(전 수도이며 경제 도시인 알마티, 중소기업 중심도시인 심켄트, 수도인 누르술탄)와 14개의 주로 구성되어있다.

### 1) 누르술탄(Nur-Sultan; 구 아스타나)

#### Ⅱ 누르술탄 특별시 주요 특징 Ⅱ

인구	114만 명('19)
면적	722km <sup>2</sup> (북부지역에 위치)
주요 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농기계, 수송용기계, 건설자재산업
특징	현재의 수도로 행정 및 교역 도시로 발전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1997년까지 남동부에 위치한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가 수도였으나 북부지방에 주로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움직임 차단을 위해 1997년 12월 수도를 아스타나로 이전하였으며 2019년 3월 누르술탄으로 수도명을 변경하였다.
-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은 1950년대 이후 북카자흐스탄의 농업 개척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농축산물 가공업과 농기계 등의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수도가 된 이후에는 건설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 2) 알마티(Almaty)

## ■ 알마티 특별시 주요 특징 ■

인구	192만 명('19)
면적	682km <sup>2</sup> (동남부에 위치)
주요 산업	공업, 광산 야금용의 발전 장비, 농업용 기계공업, 포도 통조림 등 식품공업, 면공업
특징	1997년 12월 이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자 경제 및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음

출처 : 주 알마티 총영사관

- 알마티는 1997년 12월 이전까지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였으며, 도시계획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등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와 정부기관들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청정하다. 2011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였다.

## 3) 심켄트(Shymkent)

## ■ 심켄트 특별시 주요 특징 ■

인구	103만 명('19)
면적	1,162km <sup>2</sup> (남부지역에 위치)
주요 산업	금속, 자동차, 화학, 에너지, 식료품 등의 제조 산업
특징	2018년 6월까지 투르키스탄주(구 남카자흐스탄 주)의 주도이자 주요 경제 도시 우즈베키스탄과 가까워 우즈베크 민족 비율이 높음

출처 : 주 알마티 총영사관

- 행정구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알마티, 누르술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18년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특별시로 지정되었다.
- 등록된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고,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의 중심지이다. 우리나라 L사 제2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제조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 도시 중 하나이다.



## 4) 14개의 주

- 1996년 이전까지 러시아인은 북부지역에, 카자흐인은 중부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 주별로 특정 민족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다민족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지역 단위의 민족 융합을 위하여 북부와 중부에 위치하는 중심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 | 14개의 주 및 주도 |

주	주도	특징
알마티	탈디코르간	알마티 특별시가 위치한 주이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카자흐족임
아크몰라	콕셰타우	2개 도시(콕셰타우, 스테프노고르스크), 8개의 중소도시와 17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악퇴베	악퇴베	카자흐족과 러시아인이 주로 거주하며 7개 도시, 4개 중소도시, 12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아티라우	아티라우	카스피 해의 북동쪽에 있으며 1개 도시와 15개의 중소도시,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바티스카작스탄 (= 서 카자흐스탄)	오랄	러시아에 접해 있으며 카자흐족과 러시아인이 비슷한 비율로 거주하고 있음
투르키스탄주 (= 남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2018년 심켄트를 특별시로 독립시킴
망기스타우	악타우	카스피 해에 접해 있으며 국토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족과 러시아인이 주로 거주함
파블로다르	파블로다르	러시아와 접해 있으며 여러 민족이 거주함
카라간다	카라간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주이며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
코스타나이	코스타나이	러시아와 접해있으며 카자흐족과 러시아인이 대부분임
크즐오르다	크즐오르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카자흐족임
동 카자흐스탄 (= 시기스카자흐스탄)	외스케멘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으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임
북 카자흐스탄 (= 솔투스틱카자흐스탄)	페트로파블	러시아와 접해있으며 러시아족, 카자흐족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잡빌	타라스	키르기스스탄과 접해있으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카자흐족과 러시아인임

출처 : 주 알마티 총영사관

## 다. 인구

### 1) 연령 및 성별 인구

- 1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20대 연령층이 약 28.8%로 30세 미만의 인구가 50%를 달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가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경제 발전의 전망이 밝으며 젊은 인구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60대 이상의 인구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 부담은 적은 편이다.
- 55세 미만은 남녀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나 55세 이상은 남자의 비중이 여성의 66%에 불과하여 남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연령별 인구분포(2016~2020) ■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10세 미만	3,562	3,665	3,741	3,784	3,829	20.6
10대	2,366	2,408	2,484	2,599	2,724	14.6
20대	3,068	2,983	2,875	2,759	2,642	14.2
30대	2,634	2,705	2,788	2,864	2,932	15.7
40대	2,175	2,198	2,220	2,244	2,269	12.2
50대	1,962	1,986	1,997	2,003	2,003	10.8
60대	1,147	1,208	1,261	1,322	1,379	7.4
70대 이상	757	766	792	820	854	4.6
<b>전체 인구</b>	<b>17,670</b>	<b>17,918</b>	<b>18,157</b>	<b>18,396</b>	<b>18,632</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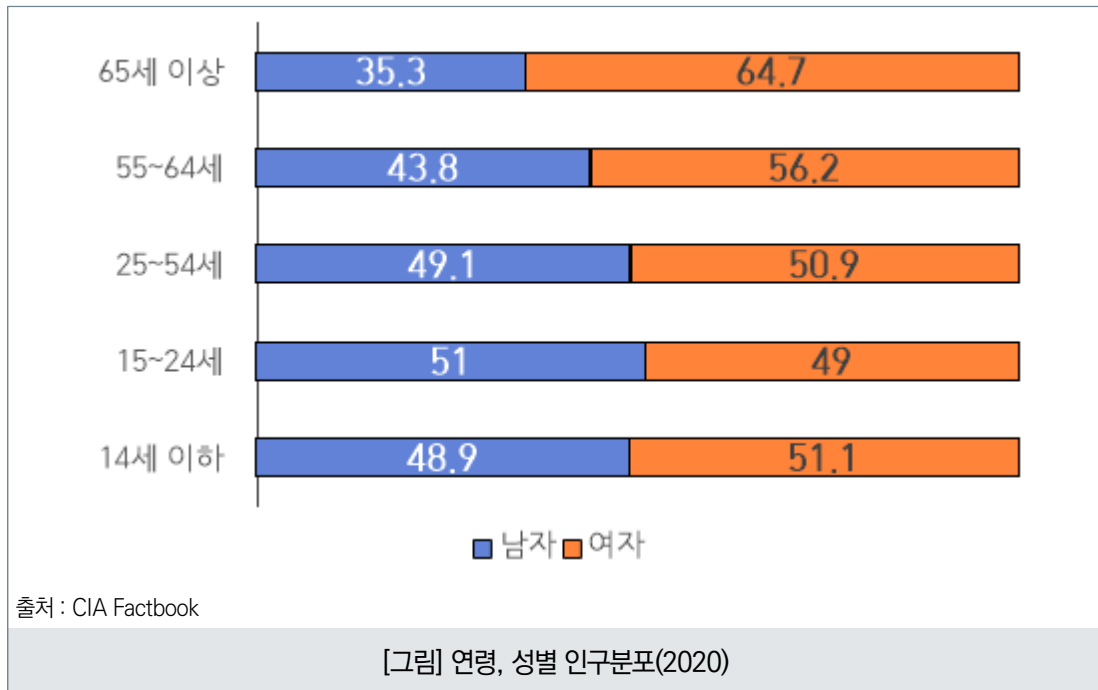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연령, 성별 인구분포(2020)

(단위 : 천 명)

구분	남	여
0~14세	2,438	2,551
15~24세	1,263	1,213
25~54세	3,960	4,103
55~64세	856	1,100
65세 이상	567	1,041
<b>전체</b>	<b>9,084</b>	<b>10,008</b>

출처 : 미국중앙정보국



## 카자흐스탄

## 2) 주요 도시별 인구

- 3개의 특별시 중에서 알마티 인구가 2020년 기준 1,917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누르술탄이 1,136천 명, 심켄트가 1,038천 명이다.
- 주별 인구는 알마티 주가 2,056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알마티시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21.3%를 차지하고 있고 투르케스탄이 약 10.8%, 카라간다가 약 7.4%로 높게 나타났다.

## | 도시·주별 인구(2018~2020) |

(단위 : 천 명)

도시·주명		2018	2019	2020
특별시	알마티 시	1,802	1,855	1,917
	누르술탄 시	1,031	1,078	1,136
	심켄트 시	952	1,009	1,038
주	알마티 주	2,017	2,039	2,056
	투르케스탄	1,977	1,984	2,016
	카라간다	1,381	1,379	1,377
	시기스 카자흐스탄	1,384	1,379	1,370
	잠빌	1,117	1,125	1,130
	악토베	858	870	882
	코스타나이	876	873	869
	코즐오르다	783	794	804
	파블로다르	755	754	752
	아크몰라	739	739	737
	망기스타우	660	678	699
	바티스 카자흐스탄	647	652	657
	아티라우	621	634	645
	솔투스틱 카자흐스탄	559	555	549
	<b>전체</b>	<b>18,157</b>	<b>18,396</b>	<b>18,632</b>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3) 소득수준별 인구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 최상위권 10%가 전체 소득의 약 24.4%를 차지하여 소득 최하위권보다 약 6배로 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높은 편이다.

## | 소득 분위별 소득분배(2015~2019) |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4.2	4.2	4.1	4.1	4.1
2분위	5.3	5.4	5.2	5.3	5.3
3분위	6.2	6.2	6.1	6.1	6.1
4분위	7.0	7.1	6.9	6.9	6.9
5분위	8.0	8.0	7.8	7.7	7.7
6분위	9.0	9.0	8.9	8.8	8.8
7분위	10.3	10.3	10.2	10.1	10.1
8분위	12	12	12	11.9	11.9
9분위	14.7	14.7	14.8	14.8	14.8
10분위	23.3	23.3	24.0	24.3	24.4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득이 제일 높은 Upper middle-income인 중고소득 국가로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크고 도시와 지방마다 특색(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매우 다르다.

세계은행에서는 국가를 1인당 소득수준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2021 회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함

1인당 GNI*	소득수준별 그룹	
\$1,035 이하	Lower income	저소득국가
\$1,036~4,045	Lower middle-income	중저소득국가
\$4,046~12,535	Upper middle-income	중고소득국가
\$12,536 이상	High-income	고소득국가

\*1인당 GNI: 국민총소득; 한국에 있는 한국인, 외국에 있는 한국인 포함(한국 거주 외국인 제외)

\*1인당 GDP: 국내총생산; 한국에 있는 한국인, 외국인 포함(외국 거주 한국인 제외)

출처 : Worldbank

## 카자흐스탄

## 4) 민족 인구 특성

## 가) 다민족

- 130개에 가까운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 카자흐인(67.5%)이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인(19.8%), 그리고 인근 국가인 우즈베크인(3.2%), 우크라이나인(1.5%), 위구르인(1.5%), 타타르인(1.1%), 독일인(1%), 기타 민족(4.4%)이 살고 있으며 한민족인 고려인(0.6%)은 8번째로 큰 소수 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다.
- 카자흐어가 ‘국가어’지만 러시아어가 ‘공용어’이자 ‘민족간 소통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두 언어 모두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정부의 모든 문서는 카자흐어로만 작성이 된다.

## 나) 재외동포

- 2019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총수는 109,923명이며, 그 중 2,106명이 시민권자로 나타났다. 고려인은 10만 명, 한국인은 약 1만 명이 거주한다.
- 카자흐스탄의 이전 수도였던 ‘알마티’와 알마티주에 가장 많은 절반에 가까운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인 누르술탄에는 총 6,837명, 심켄트특별시에 6,722명, 탄전의 중심도시인 카라간다 주에 13,075명이 살고 있다.

## |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2019) |

(단위 : 명)

지역명	재외동포 총수
알마티시	35,320
알마티주	15,035
카라간다	13,075
잠블주	8,648
크즐오르다주	7,431
누르술탄	6,837
심켄트시	6,722
코스타나이	3,923
아티라우	3,171
투르케스탄주	2,138
악토베	1,466
동 카자흐스탄	1,426
아크몰라	1,393
파블로다르	1,086
서 카자흐스탄	959
망기스타우	840
북 카자흐스탄	453
<b>카자흐스탄 전체</b>	<b>109,923</b>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 2. 농업 현황

### 가. 농업 개요

- 국토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12배로, 세계 9위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1,400만 톤의 밀을 생산하는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 총 농지 면적은 약 2억 헥타르로 세계 5위에 이르며 이중 관개지 농업은 155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다. 북부 및 남동부 지역의 농업이 발달했으며 중부지역은 목초지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 북부지역은 뚜렷한 대륙성 기후로 광대한 미개척지를 개간하여 밀, 보리, 옥수수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곡창지대이며, 남부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수자원을 활용하여 쌀, 과일, 채소 등이 재배된다.
-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한 이후 경제난을 겪었으며 국내총생산의 25%까지 차지했던 농업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석유 가스/광산 산업에 의해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4.5%대에 머무르고 있다.



## 나. 생산 동향

- 카자흐스탄의 농업 총생산 규모는 2019년 기준 5,151,163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1%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산물의 비중은 약 54.7%, 축산물은 약 45%이다.

### 농업생산 현황(2015~2019)

(단위 : 백만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산물	1,825,237	2,047,581	2,249,167	2,411,487	2,817,661
축산물	1,469,923	1,621,541	1,810,914	2,050,456	2,319,471
농업 서비스	11,850	15,271	10,836	12,146	14,006
<b>농업 총생산</b>	<b>3,307,010</b>	<b>3,684,393</b>	<b>4,070,917</b>	<b>4,474,088</b>	<b>5,151,163</b>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1) 농업 재배

- 카자흐스탄의 총 농경지는 216,036천 헥타르로 전체 카자흐스탄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중 경작 적합지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토는 사막과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2018)

(단위 : 천 ha, %)

구분		면적
농경지 면적	경작 적합지	29,748
	영구 경작지	132
	초지 면적	186,156
	전체	216,036
농경지 비율		79.3
경작 적합지 비율		10.9

출처 : FAO, Worldbank



- 2019년 총 경작지 중 곡물 및 콩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9.6%이며 해바라기 등 채유 종자와 사료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 ▮ 주요 농작물의 재배 면적(2015~2019) ▮

(단위: 천 ha)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곡물 및 콩류	14,982	15,404	15,405	15,150	15,397
채유종자	2,010	2,036	2,479	2,834	2,861
해바라기	741	835	896	857	818
감자	191	187	183	193	193
채소류	140	146	143	152	159
사탕무	9	13	17	17	15
사료작물	3,497	3,485	3,382	3,323	3,277
<b>농작물 총 경작 면적</b>	<b>21,023</b>	<b>21,474</b>	<b>21,840</b>	<b>21,899</b>	<b>22,136</b>

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 2)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 곡물류로는 주로 밀, 보리, 옥수수, 쌀을 2019년 17,429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와 감자, 해바라기 씨 등 채유 종자의 생산이 많은 편이며 사탕무와 면화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 밀 등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2016년도부터 밀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5~2019) ▮

(단위: 천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19)
곡물	밀	13,747	14,985	14,803	13,944	11,452	60.0
	그 외	4,926	5,649	5,782	6,330	5,977	
채유종자	해바라기 씨	534	755	903	848	839	8.7
	그 외	1,014	1,148	1,457	1,846	1,700	
채소		3,565	3,795	3,791	4,082	4,355	15.0
감자		3,521	3,546	3,551	3,807	3,912	13.5
사탕무		174	345	463	505	486	1.7
면화		274	287	331	344	344	1.1
<b>전체</b>		<b>27,775</b>	<b>30,510</b>	<b>31,081</b>	<b>31,706</b>	<b>29,065</b>	<b>100.0</b>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Kazakhstan(Statistics Committee)

### 3) 주요 축산물 생산 현황

- 주요 축산물인 육류의 증가율이 4년간 20.4%로 높은 편이고, 우유와 달걀의 생산량도 각각 13.2%, 1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축산업 장려정책으로 축산물의 생산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육류 가공업계는 원료 및 가공기술 부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 라인 확대와 품질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필수 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현지 우유의 품질이 낮아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및 냉장·냉동 컨테이너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선 우유 수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 국내 시장 분유의 50%를 공급하는 코스타니 지역에 DEP, Kosmis, Milch 등의 유제품 업체가 있으며, 유제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 등으로 유제품 시장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교가 가장 우세하지만, 종교적 금기에 엄격하지 않으며 타 종교의 비율도 높아 돼지 사육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 주요 축산물 생산량(2015~2019) ▮

(단위: 천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5~'19)
우유	5,182	5,341	5,503	5,686	5,865	13.2
육류	931	960	1,017	1,059	1,121	20.4
양모	38	39	39	39	40	5.2
달걀(백만 개)	4,737	4,757	5,103	5,591	5,531	16.8

출처: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Kazakhstan(Statistics Committee)

## 다. 농업 정책

### 1) 농업 및 식품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자국의 농업과 식품제조업의 육성을 위한 농산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인 'KAZAGRO'를 설립하여 농업 자금 조달 및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435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 곡물 수출 인프라 개발, 가축사육센터 건설, 순종 혈통 소 보급, 식물 재배 등에 정부 보조 및 대출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 다변화와 신용 접근성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국산 식품에 'KZ' 로고(Made in Kazakhstan)를 부착하여 국민들의 자국 제품 소비를 독려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 새로운 국가 보조금 분배 계획, 새로운 유기농 기준의 도입, 밀 위주에서 쌀, 옥수수, 대두로의 경작 전환을 통해 수익성을 30~40%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수입 관세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발전을 이루고자 농업과 식품 산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 생산 작목이었던 밀, 기름종자, 보리, 감자, 채소 등에 대한 헥타르 당 보조금은 농작물 다양화에 비효과적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중단하였다.

### ▣ 농업 산업 발전 국가프로그램 주요 내용 ▣

종류	농업분야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
세제 혜택	10년간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0% 적용
관세 혜택	수입 관세 0%(관련 부품, 자재, 원료 등)
기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출처 :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 2) 작물 다변화 정책

- 카자흐스탄은 농작물 다양화를 위해 밀 경작 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작물과 채유용 종자 경작 면적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내륙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주요 생산 곡물인 밀을 해외 수출시장에 운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축 사육 증대를 통해 국내 곡물 소비를 늘리고, 밀 수출에서 고부가 육류 수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 작물 다변화 정책에 따라 전체 채유용 종자의 경작 면적은 2007년 67만 헥타르에서 2016년 204만 헥타르로 증가했다.

## 3) 한국과의 농업교류

- 농식품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결로 및 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스마트팜 특화모델인 시범 온실을 제공하여 카자흐스탄 국민 주식인 토마토, 오이와 고부가가치 작목인 딸기를 재배하여,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판매·유통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K2 Agro'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말까지 설계(안) 보완 및 자재 준비 후, 내년 2월에 시범 온실을 착공하여 '2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 4) 수입제한 조치

-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4종의 한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농업부의 수의 관리 감시 위원회는 2020년 1월 27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비니치아 주에 대해 새알, 가금육 및 모든 가금류 가공제품 등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5) 코로나19 영향

- 카자흐스탄 농업부와 재무부장관은 2020년 4월 15일부터 6개월간 소, 양, 염소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EAEU 및 제 3국간 국경검문소에서 축산 및 식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부족 상태를 막기 위해 곡물과 밀가루 등의 수출 금지/할당제를 시행하였고 식량 안보가 이슈화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우선 목표로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3. 경제 및 무역

#### 가. 경제

##### 1) 경제 성장

-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내수경제를 탄탄히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저유가와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급격한 하락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그러나 2017년 이후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하여 2019년 기준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도 9,139달러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 2019년 4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자진 퇴임하면서 시장 불안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예상되었지만 중앙은행과 총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6월 선거 이후 다시 환율은 하락하여 2019년에는 381.2 텡게를 기록하고 있다.

▮ 주요 경제 지표(2015~2019) ▮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1.0	0.9	3.9	4.1	4.5
명목 GDP(십억 \$)	179	134	163	175	175
1인당 GDP(ppp, \$)	24,638	26,051	24,171	25,426	26,696
1인당 명목 GDP(\$)	10,435	7,662	8,971	9,401	9,139
정부부채(% of GDP)	23.4	25.7	26.4	26.6	25.8
물가상승률(%)	6.7	14.6	7.4	6.0	5.2
외환 보유고(백만\$)	27,871	29,713	30,747	30,927	28,958
이자율(%)	13.2	15.3	14.2	12.5	12.3
환율(KZT)	339.5	333.3	331.3	375.2	381.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0

## 2) 산업별 GDP 지표

## 가) 산업별 GDP 현황

- 총 GDP는 2015년 대비 2018년 약 51.2%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국내 유통 서비스 산업인 도·소매업과 석유, 천연가스, 크롬, 우라늄, 구리, 연·아연, 은, 중석, 망간 등 풍부한 천연자원 생산을 위한 채굴 및 채석 산업이 각각 약 16.8%, 1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세부 산업별 GDP 비중(2015~2018) ▮

(단위 : 백만 텡게)

구분	2015	2016	2017	2018	비중('18)
도매 및 소매 모토 수리 서비스	6,994,016	7,899,619	9,141,162	10,366,506	16.8
채굴 및 채석	5,170,568	5,907,453	7,421,694	9,204,650	14.9
제조	4,201,012	5,113,694	6,134,021	7,065,122	11.4
운송 및 보관	3,520,546	3,813,324	4,453,675	5,065,481	8.2
부동산	3,685,580	3,900,329	4,515,364	4,793,648	7.8
건설	2,447,736	2,755,353	2,977,116	3,285,915	5.3
과학 기술	1,864,409	2,290,360	2,457,399	2,742,648	4.4
농업, 임업, 어업	1,925,867	2,135,073	2,456,285	2,171,499	3.5
금융, 보험 산업	1,430,704	1,666,838	2,020,522	2,048,003	3.3
기타 서비스	1,312,678	1,281,317	1,621,967	1,749,065	2.8
교육	1,197,317	1,314,775	1,528,965	1,657,450	2.7
행정 지원 서비스	846,480	982,304	1,240,767	1,371,433	2.2
정보통신	1,071,815	968,474	1,089,262	1,182,682	1.9
건강 및 사회	729,987	886,035	1,075,844	1,172,754	1.9
전기, 가스	693,589	772,540	903,523	995,421	1.6
공공행정 및 국방	809,409	856,126	914,530	934,018	1.5
숙박 및 음식점	420,185	530,529	645,467	703,858	1.1
예술, 오락, 레저	329,279	345,573	415,736	450,095	0.7
수자원	101,807	108,180	141,735	156,089	0.3
민간 가정 사업	30,918	31,922	40,829	43,941	0.1
<b>전체</b>	<b>40,884,134</b>	<b>46,193,381</b>	<b>54,378.858</b>	<b>61,819,536</b>	<b>100.0</b>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나) 농업 GDP 비중

- 농업 GDP는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4.4%로 2015년 대비 약 0.3% 하락한 수치로서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 ■ 산업별 GDP 비중(2015~2019) ■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비스	59.3	57.9	57.3	55.5	55.5
산업	30.9	32	32.3	33.5	33.1
농업	4.7	4.6	4.5	4.4	4.4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3) 고용 현황

- 실업률은 미세하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5.1% 이후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4.8%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도 2015년 대비 약 1만 3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 ■ 실업률 및 실업자 수(2015~2019) ■

(단위 : %, 천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률	5.1	5.0	4.9	4.9	4.8
실업자 수	454	446	442	444	441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4) FTA 체결 현황과 전망

## 가) FTA 체결 경과

- 무역 장벽을 낮추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적극적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여 2015년 7월 27일에 19년간의 협상 끝에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 1996년 1월에 가입 의정서를 제출했지만 러시아, 벨로루스와 2011년에 관세동맹을 체결함에 따라 관세동맹과 WTO의 관세체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WTO 회원국들의 거부로 WTO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 카자흐스탄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2007년 10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의 관세동맹 설립조약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 이후 위 3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공동경제구역(CES; Common Economic Space)을 출범하였고, 이전의 경제연합을 기반으로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아르메니아가 참여하는 EAEU가 설립되었다.
  - 2015년 5월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현재 총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이 회원국이 되었다.
- EAEU 회원국 간 무역 시, 수출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역외국가에는 공동으로 대외 관세를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가입 시 승인받은 상품리스트에 대해서는 공동 역외관세와 다른 수입관세를 부과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측면의 경우 역내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EAEU는 대외 협상 권한을 보유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단, EAEU 출범 전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 나) FTA 체결 추진현황

- FTA의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주로 관세, 쿼터, 원산지 규정, 공공조달, 보호무역, 반덤핑 조치, 기술 장벽, 보건 및 위생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I EAEU의 FTA 체결 현황 I

단계	체결 국가 및 연합
발효	베트남 FTA
서명	세르비아, 싱가포르
타결	이란 FTA
협상 중	EFTA,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검토 중	이집트, EU, 칠레, 터키, <b>한국</b> , ASEAN, 시리아, 페루, 이라크, 몽골

출처 : FTA 포털

- 베트남은 EAEU와 2016년 10월 FTA를 체결하면서 EAEU의 첫 체결국이 되었고, 2013년 3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5월 29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체결되었다.
  - 거래품목 중 88%의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며, 합의 품목 중 59%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인하고 그 밖의 29%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2019년 10월 25일 EAEU는 모스크바에서 세르비아와 FTA에 서명하였다. 세르비아는 이번 FTA 서명을 통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를 통합하고, EAEU 5개국 회원국과 FTA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FTA상에서의 무관세 품목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일부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교역 쿼터를 확대하였다.
  - 가금류, 백설탕, 스파클링 와인, 연간 쿼터량을 초과하는 담배, 면직물, 에어컨 컴프레션, 승용차 및 트랙터, 중고 자동차 및 타이어 등의 품목에서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 EAEU와 싱가포르는 2019년 10월 예레반에서 열린 유라시아 연례 정상회담에서 FTA를 체결했다.
  - EAEU 회원국들은 FTA에 따라 싱가포르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90%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스와 양자 FTA를 대체하고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FTA를 체결하였다.
- EAEU는 이란과 FTA 체결에 앞서 3년 동안 유효한 협정을 2018년 5월에 체결하였고, 2019년 10월에 발효했다. 양국은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를 22.4%에서 15.4%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며, EAEU는 8%의 기타관세를 4.7%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 농산물의 경우 이란은 32.2%에서 13.2%로 러시아는 9.6%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 협정에서는 FTA 협정 체결 시 수입 관세 인하 혹은 면제될 상품 목록을 합의하였으며, EAEU 목록에는 육류, 식용유, 과자류 등이 포함되었고, 이란 목록에는 채소, 과일, 건조과일 등의 식료품이 포함되었다.
- EAEU와 중국은 FTA 협정은 아니지만,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2018년 5월 17일에 체결하였다. 2019년 10월 말에 발효된 이 협정은 간편화된 무역 절차, 전자상거래 규제, 공공조달 협력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 중국과 FTA 협정 체결 논의는 2006년 이후부터 계속되었으나,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요 수혜국이 될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다) 한국과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2018년 8월에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 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과세권 분쟁,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 확대에 대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세정 전산화 지원을 요청하였고, 한국은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카자흐스탄

- 2019년 4월 누르술탄에서 개최한 한-카자흐스탄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무역,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Fresh Wind 2019-2022'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현재 체결 혹은 추진 중인 분야는 에너지, ICT, 보건의료, 농업, 교통이다.
- EAEU와 한국은 2016년 10월 5일 비공식 협의와 2016년 11월 9일 2차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제3차 정부 간 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정부는 한-EAEU 간 FTA 협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 나. 교역 현황

## 1) 대외무역 현황

- 2019년 카자흐스탄의 대외무역 수출액은 52,373백만 달러, 수입액은 34,988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385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8.8% 감소하였다.

## | 수출입 동향(2015~2019)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45,954	36,774	48,341	60,954	52,373
수입	30,557	25,165	29,295	32,524	34,988
무역수지	15,397	11,610	19,045	28,430	17,385

출처 : 한국무역협회

## 2) 주요 수출입 국가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8,030백만 달러), 중국(7,057백만 달러), 러시아(5,105백만 달러)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상위 4개국의 수출 점유율이 전체 수출 규모의 약 46.4%를 차지한다.
-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7대 수출국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4.2%로 미미한 수준이다.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은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전체 수입액(34,988백만 달러)의 약 36%, 중국이 전체 수입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개국의 총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넘고 있는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3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19) ▮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1	이탈리아	8,030,538	1	러시아	12,582,660
2	중국	7,056,954	2	중국	5,734,880
3	러시아	5,105,209	<b>3</b>	<b>한국</b>	<b>2,501,865</b>
4	네덜란드	4,085,262	4	이탈리아	1,577,003
5	프랑스	3,289,139	5	독일	1,545,452
6	스위스	2,316,435	6	미국	1,341,936
<b>7</b>	<b>한국</b>	<b>2,240,114</b>	7	터키	749,615
8	스페인	2,007,660	8	우즈베키스탄	732,175
9	터키	1,945,087	9	일본	677,766
10	우즈베키스탄	1,762,071	10	프랑스	664,489

출처 : 한국무역협회

### 3) 주요 수출입 품목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29,334백만 달러)와 천연가스(3,051백만 달러), 정제된 구리(2,419백만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생산 곡물인 밀과 메슬린은 928백만 달러로 2019년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880백만 달러), 전화기(780백만 달러), 기계·설비·실험실장치(768백만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주요 수출입품목과 금액(2019) ■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입품목	수입액
1	석유와 역청유	29,334,772	의약품(소매용)	879,939
2	석유가스와 탄화수소	3,051,051	전화기	779,505
3	정제된 구리와 구리합금	2,419,16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768,311
4	합금철	1,826,944	승용 자동차	732,636
5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화합물	1,757,571	액체 펌프와 액체 엘리베이터	608,139
6	기타 석유와 역청유	1,243,719	철강으로 만든 관 (횡단면 원형, 바깥지름 406.4mm 초과)	604,127
7	밀과 메슬린	927,909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568,493
8	구리광과 그 정광	906,890	석유와 역청유	541,266
9	아연의 괴	607,943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탭·코크·밸브	525,022
10	철강과 그 정광	5,71,045	철강으로 만든 관, 중공 프로파일 (무계목)	513,152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다. 한국과 교역 현황

### 1) 교역 실적

- 對카자흐스탄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수출액은 2,65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증류기, 실린더 등의 화학기계 수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對카자흐스탄 수입은 2017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9년 전년 대비 우라늄과 강반제품, 금속광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입액이 2018년도보다 약 1.14배 증가한 1,561백만 달러에 달한다.

#### ▮ 對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2017~2019) ▮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18~'19)
수입액	998,342	1,362,109	1,561,484	14.6
수출액	532,726	797,818	2,657,131	233.0
무역수지	465,616	564,291	△1,095,647	△294.2

출처: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2) 주요 수출입 품목

- 2019년 對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설비·실험장치(2,128백만 달러), 승용차(104백만 달러), 철강 구조물(45백만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카자흐스탄은 한국으로 석유(1,180백만 달러)를 가장 많이 수출하며, 전체 수출액의 75.6%를 차지하며 이외 방사성원소, 합금철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 한·카자흐스탄 주요 수출입 품목(2019) 】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입품목	수입액
1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2,128,665	석유와 역청유	1,180,416
2	승용차	104,545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화합물	159,755
3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45,313	합금철	134,676
4	자주식·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 레벨러·스크래퍼·메커니컬셔블 등	19,358	티타늄과 그 제품	31,465
5	미용·메이크업 제품류	19,200	기타 합금강	17,781
6	공기조절기	18,520	용연항·해리항·담즙· 의약품제조용의 선, 기타동물성생산물	16,662
7	구리제품	15,709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14,195
8	석유와 역청유	13,485	구리의 모합금	2,357
9	자동차 부품	13,357	전화기	1,589
10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 탭·코크·밸브	11,791	내화성 도자제품	47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PART II

## 농식품 시장 동향

1. 수출입 현황
2. 소비 현황
3. 유통 현황

## 1. 수출입 현황

- 식품 가공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구조를 보인다.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의 5배 수준으로,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2015~2019)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965	1,933	2,130	2,763	2,948
수입	3,232	2,973	3,197	3,302	3,460
무역수지	△1,267	△1,040	△1,067	△539	△512

출처 : GTA

### 가. 농식품 수출 현황

#### 1) 주요 수출품목 현황

-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은 크게 곡물류, 채유용 종자류, 곡분류 등·식물성 지방, 기름류, 식용 채소·뿌리류 등으로 2017년 이후 밀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여 2019년에는 1,351백만 달러의 수출 규모를 기록하였다.
  - 곡물류 주요 수출국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아마 씨(1204)와 해바라기 씨(1206) 등 채유용 종자류의 수출은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426백만 달러의 수출 규모를 보였다.
  - 아마 씨의 수출비중이 높아 해바라기 씨(1206)와 수출 규모 차이가 컸으나 해바라기 씨의 비중이 점차 늘어 아마 씨(1204) 품목과의 차이를 점차 좁히고 있다.
  - 채유용 종자류의 상위 수출국으로는 중국,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러시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곡분류의 수출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수출 규모가 감소하여, 2019년에는 389백만 달러로 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 곡분류 중 밀가루·메슬린 가루(110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가공 곡물(1104)과 맥아분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 곡분류의 상위 수출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아프가니스탄의 수출이 5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동·식물성 지방, 기름류의 수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73백만 달러를 수출 하였으며 해바라기씨 유(1512)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으며 유채유(1514)와 기타 식물성 기름의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수출 상위 국가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식용 채소·뿌리류의 수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47백만 달러의 수출 규모를 가졌으며 건조 채두류(0713)와 감자(0701)가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토마토, 양파, 양배추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수출 상위 국가로는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출 현황(2015~2019) ▮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2015	2016	2017	2018	2019
<b>곡물(10)</b>		<b>832,543</b>	<b>816,968</b>	<b>829,417</b>	<b>1,296,184</b>	<b>1,351,058</b>
1	밀과 메슬린(1001)	688,739	685,069	660,760	965,447	1,003,207
2	보리(1003)	104,368	109,052	137,806	291,933	299,458
3	쌀(1006)	31,016	15,920	21,832	25,960	24,506
4	옥수수(1005)	6,209	3,353	6,397	9,446	16,882
5	귀리(1004)	165	1,079	1,333	1,452	3,959
<b>채유용 종자(12)</b>		<b>230,644</b>	<b>203,041</b>	<b>279,430</b>	<b>335,407</b>	<b>425,808</b>
1	아마 씨(1204)	118,680	91,712	108,544	140,593	179,497
2	해바라기 씨(1206)	53,171	55,074	89,241	93,702	156,904
3	유채 씨(1205)	31,781	30,408	53,603	64,445	49,896
4	기타 종자·과실(1207)	10,569	10,909	16,126	17,215	18,650
5	대두(1201)	7,055	8,158	7,209	15,059	15,421
<b>곡분(11)</b>		<b>499,819</b>	<b>518,278</b>	<b>487,447</b>	<b>466,236</b>	<b>388,662</b>
1	밀가루·메슬린 가루 (1101)	493,724	504,592	469,373	445,998	362,716
2	기타 가공 곡물 (1104)	1,405	2,085	4,181	5,838	8,241
3	맥아(1107)	1,277	7,045	4,975	5,712	8,130
4	알곡·펠릿(1103)	2,417	3,275	7,319	6,519	5,770
5	전분·이눌린(1108)	902	752	1,489	1,837	2,280
<b>동·식물성 지방, 기름(15)</b>		<b>54,058</b>	<b>64,194</b>	<b>116,364</b>	<b>140,004</b>	<b>173,385</b>
1	해바라기 씨유(1512)	28,885	30,249	54,678	66,147	81,098
2	유채유(1514)	6,073	5,066	6,756	21,259	45,650
3	기타 식물성 지방·기름 (1515)	1,963	8,347	14,125	16,911	23,211
4	마가린(1517)	8,451	12,224	18,887	18,219	15,125
5	대두유(1507)	5,751	5,013	14,350	11,461	6,809
<b>식용 채소·뿌리(07)</b>		<b>19,825</b>	<b>57,439</b>	<b>118,540</b>	<b>126,769</b>	<b>147,265</b>
1	건조 채두류(0713)	9,686	39,961	58,894	74,583	68,833
2	감자(0701)	262	5,990	35,745	17,733	22,663
3	토마토(0702)	835	2,271	6,698	15,674	16,678
4	양파·쪽파·마늘·리크 (0703)	5,972	4,311	6,837	7,812	15,986
5	양배추·식용 배추 (0704)	291	705	955	3,018	12,263

출처: ITC

▣ 주요 농식품 품목별·국가별 수출 현황(2015~2019) ▣

(단위: 천 달러)

주요수출품목 (HS Code)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주요수출국가					
<b>곡물(10)</b>		<b>832,543</b>	<b>816,968</b>	<b>829,417</b>	<b>1,296,184</b>	<b>1,351,058</b>
1	우즈베키스탄	232,121	208,599	208,937	309,914	403,634
2	이란	138,034	130,695	130,250	281,846	267,312
3	타지키스탄	190,040	173,879	172,400	167,034	207,349
4	중국	30,183	52,446	57,549	98,970	98,210
5	아프가니스탄	26,207	40,370	49,922	68,667	58,744
<b>채유용 종자(12)</b>		<b>230,644</b>	<b>203,041</b>	<b>279,430</b>	<b>335,407</b>	<b>425,808</b>
1	중국	35,470	31,007	47,483	47,846	95,583
2	벨기에	48,514	37,182	46,771	61,950	91,270
3	우즈베키스탄	31,740	35,310	46,637	62,231	82,039
4	폴란드	12,536	9,932	18,731	26,299	29,321
5	러시아	21,680	24,805	22,843	20,598	22,085
<b>곡분(11)</b>		<b>499,819</b>	<b>518,278</b>	<b>487,447</b>	<b>466,236</b>	<b>388,662</b>
1	아프가니스탄	230,653	329,780	324,887	285,883	221,360
2	우즈베키스탄	195,312	130,740	114,209	116,830	85,344
3	타지키스탄	43,527	20,576	12,585	10,909	20,979
4	러시아	1,658	5,556	5,221	7,301	19,723
5	투르크메니스탄	13,292	11,572	10,778	17,860	11,784
<b>동·식물성 지방, 기름(15)</b>		<b>54,058</b>	<b>64,194</b>	<b>116,364</b>	<b>140,004</b>	<b>173,385</b>
1	중국	12,477	22,812	45,715	59,606	99,684
2	우즈베키스탄	13,701	21,406	26,936	38,794	34,223
3	키르기스스탄	16,676	9,534	17,440	14,559	16,106
4	타지키스탄	7,067	5,373	14,894	19,777	13,351
5	러시아	1,981	1,440	4,479	3,919	3,544
<b>식용 채소·뿌리(07)</b>		<b>19,825</b>	<b>57,439</b>	<b>118,540</b>	<b>126,769</b>	<b>147,265</b>
1	러시아	5,258	8,101	19,510	30,723	47,818
2	터키	4,091	24,352	39,020	45,559	37,673
3	우즈베키스탄	3,430	7,251	38,698	20,101	24,731
4	아프가니스탄	2,267	5,234	10,831	8,868	9,671
5	이란	13	3,376	6,189	2,389	4,390

출처: ITC

## 카자흐스탄

## 2) 농식품 주요 수출국 현황

-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으로는 밀 등 곡물류와 해바라기 씨, 아마 씨 등 채유용 종자가 대부분이며 주요 수출국은 우즈베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순으로 한국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동물성생산물, 식품, 향신료, 포도주, 천연 꿀, 식품 첨가제 등이 있다.
- 2019년 주요 수출국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위로 수출금액 76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위인 중국의 수출액 360백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3위는 러시아, 4위는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국은 568천 달러로 39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 상위 5개국 및 한국 실적(2019) |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출국	금액	주요 품목
1	우즈베키스탄	761,188	밀, 해바라기씨, 소(살아있는 것), 양(살아있는 것), 감자
2	중국	359,686	밀, 해바라기씨, 유채, 아마인유, 기울
3	러시아	343,366	밀, 기타 설탕과자류, 토마토, 크림류, 밀가루
4	아프가니스탄	320,054	밀, 아마, 완두콩, 시가렛, 듀럼밀
5	이란	297,531	보리, 유채 씨, 소의 사체, 렌틸콩, 양의 사체
39	한국	568	기타동물성생산물, 식물, 향신료, 포도주, 천연꿀, 식품첨가제

\*GTA 공식 통계자료에서 러시아 수출입액 누락으로 인해 재가공한 자료임

출처 : GTA

## 3) CIS 국가 간 농식품 수출 현황

- 카자흐스탄의 CIS 국가(독립국가연합) 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농식품 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으로 761,188천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며 수출액 기준 1위를 기록하였고, 러시아로는 343,336천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였다.

| 카자흐스탄과 CIS 국가 간 농림축산식품 수출 동향(2015~2019)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러시아	225,995	273,718	251,104	314,920	343,336
우즈베키스탄	504,023	430,139	474,242	635,628	761,188

출처 : GTA

## 나. 농식품 수입 현황

### 1) 주요 수입 농식품 현황

- 농식품 주요 수입품목은 크게 과실 및 견과류, 기타 조제 식료품, 곡물 가공품, 음료·주류·식초, 낙농품·조란·천연 꿀류 등이다.
- 과실 및 견과류의 수입은 2018년 504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 417백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 과실 수입은 살구·체리·복숭아·자두·슬로(0809)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포도(0806), 사과 배(0808), 감귤류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입 상위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중국, 폴란드, 러시아, 이란 순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수입이 전체의 약 42.1%로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기타 조제 식료품의 수입액은 2016년 이래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318백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가졌다.

  - 기타 조제 식료품류의 세부 품목 중 기타 조제 식료품(2106), 소스·혼합조미료·조제 겨자(2103)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다.
  - 기타 조제 식료품류의 수입 상위 국가는 러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이탈리아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이 중 러시아는 전체 수입액의 59.3%의 비중을 가졌다.
- 곡물 가공품의 수입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며 2019년 수입액은 283백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 세부 품목 중 베이커리 제품(1905),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1901)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59.4%가 베이커리 제품(1905)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상위 국가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한국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74.2%의 비중을 러시아가 차지한다. 한국의 수입액은 2018년 대비 약 18.2% 증가하여 326만 4천 달러를 기록했다.
- 음료·주류·식초의 수입액은 2017년부터 점차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274백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가진다.

  - 세부 품목 중 설탕·감미료 첨가한 물과 음료(2202) 에틸알코올·증류주·리큐르(2208)의 비중이 높다.
  - 주요 수입국으로는 러시아, 조지아, 영국,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이 중 러시아는 전체 음료·주류·식초 수입액의 약 50.2%를 차지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 낙농품·조란·천연 꿀류의 수입은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9년 기준 273백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가진다.
  - 낙농품·조란·천연 꿀류의 세부 품목 중 치즈와 커드(0406)와 밀크와 크림(0402) 품목의 수입이 많고 수입 상위국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프랑스 순으로, 러시아가 전체의 약 40.6%를 차지했다.

### Ⅲ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 현황(2015~2019) Ⅲ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2015	2016	2017	2018	2019
<b>과실 및 견과류(08)</b>		<b>455,212</b>	<b>417,185</b>	<b>437,134</b>	<b>504,358</b>	<b>416,856</b>
1	살구·체리·복숭아·자두·슬로(0809)	74,493	96,964	98,144	177,821	95,318
2	포도(0806)	96,139	95,461	95,318	84,209	74,915
3	사과·배·마르멜로(0808)	86,186	49,354	60,202	54,179	71,858
4	감귤류 과실(0805)	56,705	43,505	30,725	46,000	45,408
5	견과류(0802)	23,719	22,796	35,051	35,810	33,439
<b>기타 조제 식료품(21)</b>		<b>241,902</b>	<b>215,142</b>	<b>257,808</b>	<b>272,242</b>	<b>318,291</b>
1	기타 조제 식료품(2106)	121,778	98,528	117,368	124,845	158,114
2	소스·혼합조미료·조제 겨자(2103)	55,704	52,663	59,494	61,328	69,749
3	커피·차·마테 조제품(2101)	31,706	32,433	44,355	51,050	48,163
4	빙과류(2105)	18,211	16,490	20,313	21,536	23,085
5	수프·브로드(2104)	9,116	8,880	9,655	7,078	12,325
<b>곡물 가공품(19)</b>		<b>292,439</b>	<b>237,310</b>	<b>271,991</b>	<b>280,664</b>	<b>282,590</b>
1	베이커리 제품(1905)	144,689	120,602	135,754	149,946	168,141
2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1901)	100,224	70,468	89,724	89,297	66,055
3	파스타(1902)	39,487	38,707	38,453	31,014	36,936
4	날알·플레이크 모양의 곡물(1904)	8,027	7,530	8,056	10,400	11,451
5	타피오카 대용물(1903)	12	4	4	7	8
<b>음료·주류·식초(22)</b>		<b>182,169</b>	<b>167,896</b>	<b>219,000</b>	<b>261,829</b>	<b>274,140</b>
1	설탕·감미료 첨가한 물과 음료(2202)	44,973	42,636	56,776	72,055	89,800
2	에틸알코올·증류주·리큐르(2208)	53,145	57,728	62,009	87,890	82,003
3	맥주(2203)	22,694	24,011	31,828	37,043	37,902
4	포도주(2204)	40,288	30,239	50,299	41,700	36,190
5	물(2201)	16,378	10,980	13,200	16,319	21,452
<b>낙농품·조란·천연꿀(04)</b>		<b>241,714</b>	<b>230,791</b>	<b>265,565</b>	<b>256,470</b>	<b>272,577</b>
1	치즈와 커드(0406)	63,513	60,558	72,845	75,959	86,316
2	밀크와 크림(0402)	75,092	75,264	90,083	79,611	73,538
3	발효 및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0403)	35,208	30,429	35,455	37,362	42,881
4	버터·데어리 스프레드(0405)	22,413	26,786	23,860	27,358	20,469
5	새의 알(0407)	5,419	4,678	7,781	10,017	19,290

출처: ITC

### 주요 농식품 품목별·국가별 수입현황(2015~2019)

(단위: 천 달러)

주요수입품목 (HS Code)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주요수입국가					
<b>과실 및 견과류(08)</b>		<b>455,212</b>	<b>417,185</b>	<b>437,134</b>	<b>504,358</b>	<b>416,856</b>
1	우즈베키스탄	172,598	227,410	239,111	292,976	175,654
2	중국	78,914	46,477	51,445	65,314	83,910
3	폴란드	33,736	30,160	38,744	29,693	36,982
4	러시아	10,845	6,491	15,909	15,413	27,986
5	이란	17,421	20,315	25,104	32,091	24,566
<b>기타 조제 식품(21)</b>		<b>241,902</b>	<b>215,142</b>	<b>257,808</b>	<b>272,242</b>	<b>318,291</b>
1	러시아	135,473	125,713	154,050	154,390	188,680
2	미국	8,191	8,496	12,757	11,948	15,161
3	말레이시아	3,091	8,372	10,396	14,162	11,525
4	중국	11,500	11,083	12,131	13,534	11,308
5	이탈리아	8,208	6,704	8,081	10,083	11,288
<b>곡물 가공품(19)</b>		<b>292,439</b>	<b>237,310</b>	<b>271,991</b>	<b>280,664</b>	<b>282,590</b>
1	러시아	158,992	150,617	167,940	175,956	209,689
2	우크라이나	89,009	44,561	57,434	55,073	27,864
3	키르기스스탄	1,436	5,604	6,244	9,435	12,227
4	스위스	15,668	15,101	17,361	18,164	8,956
5	한국	1,287	1,237	2,000	2,761	3,264
<b>음료·주류·식초(22)</b>		<b>182,169</b>	<b>167,896</b>	<b>219,000</b>	<b>261,829</b>	<b>274,140</b>
1	러시아	57,540	70,259	102,631	111,993	137,508
2	조지아	30,327	16,591	18,785	24,061	26,318
3	영국	11,733	11,285	11,639	14,439	12,052
4	이탈리아	8,745	7,017	9,188	11,469	11,369
5	키르기스스탄	629	3,701	5,493	10,388	8,991
<b>낙농품·조란·천연꿀(04)</b>		<b>241,714</b>	<b>230,791</b>	<b>265,565</b>	<b>256,470</b>	<b>272,577</b>
1	러시아	112,301	100,449	109,548	99,304	110,653
2	벨라루스	35,383	30,966	39,825	60,074	63,803
3	우크라이나	25,870	37,778	44,124	28,209	24,030
4	리투아니아	10,082	7,593	15,901	11,792	18,735
5	프랑스	11,819	13,587	21,885	20,390	17,264

출처: ITC



2) 농식품 주요 수입국 현황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품목은 과일 및 견과류와 육류이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순으로 수입액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키스탄 수입액은 2018년 413백만 달러였으나 2019년 123백만 달러 감소하여 291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미국, 중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실적 순위도 상승했다.
-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 수입액 기준 21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계단 상승했다. 주 수입품목은 식품첨가제, 파스타(인스턴트 면 포함), 쿠키(스위트 비스킷), 소스 및 조제품 등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 수입 상위 5개국 및 한국 실적(2019)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입국	금액	주요 품목
1	러시아	1,750	코코아, 담배, 사탕수수, 빵, 식품첨가제
2	우즈베키스탄	291	포도, 살구, 복숭아, 사과, 감, 양배추, 케일, 콜라비
3	미국	178	닭고기, 식품첨가제, 소(살아있는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
4	중국	169	복숭아, 토마토, 고추, 후추, 포도, 아몬드
5	우크라이나	165	사육동물(말, 소 등), 소의 사체, 냉동 육류, 닭고기
<b>21</b>	<b>한국</b>	<b>21</b>	<b>식품첨가제, 파스타(인스턴트 면 포함), 쿠키(스위트 비스킷), 소스 및 조제품</b>

\*GTA 공식 통계자료에서 러시아 수출입액 누락으로 인해 재가공한 자료임  
출처 : GTA

3) CIS 국가 간 농식품 수입 현황

- 카자흐스탄의 CIS 국가(독립국가연합) 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각각 카자흐스탄의 농식품 수입액 기준 1, 2위 국가이나, 러시아로부터 1,750,101천 달러의 농식품을 수입하며 우즈베키스탄 수입액 290,624천 달러의 약 6배를 기록하였다.

### Ⅱ 카자흐스탄과 CIS 국가 간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2015~2019) Ⅱ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러시아	1,228,072	1,300,697	1,424,102	1,485,654	1,750,101
우즈베키스탄	299,814	319,235	341,718	413,405	290,624

출처 : GTA

#### 다. 한국 농식품 수출입

- 對카자흐스탄 수출은 2015년 이후 농산물 및 임산물의 수출 감소로 2019년은 26,984천 달러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2019년은 17,213천 달러로 21.5%가 감소하였다.
- 농산물의 경우 연도별로 對카자흐스탄 수출액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수입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9년 농산물의 수출액은 23,541천 달러로 수입액은 407천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 30.6%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로 감초나 보드카 등을 수입하고 있다.
- 축산물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축산업 장려정책으로 정부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2015년 이후로 축산물 수출량이 급감하는 반면 수입량은 우황, 녹용 등의 한약재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16,806천 달러가 수입되었다.
- 임산물의 경우 수출은 목재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은 화강암 등의 석제품류 수입만 소량 이루어지고 있다.

### ■ 對카자흐스탄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현황(2015~2019) ■

(단위 : 천 달러)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계
2015	수출액	31,188	206	17,636	49,030
	수입액	71	6,485	0.2	6,556
2016	수출액	25,038	9	9,092	34,139
	수입액	323	5,963	0.2	6,286
2017	수출액	28,737	60	4,051	32,848
	수입액	510	10,239	0.2	10,749
2018	수출액	23,895	5	11,092	34,992
	수입액	587	21,326	6	21,919
2019	수출액	23,541	32	3,411	26,984
	수입액	407	16,806	0.1	17,213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크리머, 라면, 양파 종자, 조제품 기타, 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등 과자류, 인스턴트면류, 소스,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라면의 수출이 지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베이커리, 과자류, 두부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커피크리머, 양파 종자, 인스턴트 면류, 밀크대용 함유 조제품은 보합세이며 기타 조제품 과 소스류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축산물 수입이 가장 많으며 농식품으로는 감초, 보드카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 對카자흐스탄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7~2019) ■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Code	명칭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가율 ( '18~'19)
1	2106909010	커피크리머	5,568	6,750	5,210	△22.8
2	1902301010	라면	2,630	2,587	3,839	48.4
3	1206909099	양파종자	2,100	2,430	2,450	0.8
4	2106909099	조제품 기타	3,196	2,587	2,445	△5.5
5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 (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 과자 외 기타)	813	1,300	1,372	5.5
6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612	932	1,156	24.0
7	1902301090	인스턴트 면류 (라면 이외 기타)	976	985	866	△12.1
8	2106101000	두부	334	372	760	104.3
9	2922413000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915	762	653	△14.3
10	2101129010	밀크대용물 함유조제품	585	687	593	△13.7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對카자흐스탄 수입 상위 10개 품목(2017~2019) ■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Code	명칭	2017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가율 (‘18~’19)
1	1211901600	감초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389	506	335	△33.8
2	2208600000	보드카	-	45	39	△13.3
3	2208201000	꼬냇	-	-	30	-
4	0602909090	기타산식물	0	3.2	1	△68.8
5	1704902090	캔디류 (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0.4	1.1	0.3	△72.7
6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0.3	0.3	0.2	△33.3
7	1905909090	성찬용 웨이퍼, 실링우에퍼 등 (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	-	0.2	-
8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1	-	0.2	-
9	2007911000	감귤류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	-	0.1	-
10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기타)	0.1	0.2	0.1	△50.0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2. 소비 현황

### 가. 시장 현황

#### 1) 시장 특성

- 무슬림 인구가 70% 이상으로 육류시장에서 할랄 식품은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이나 식음료시장은 14%, 전체식품에서의 평균은 13%를 차지하고 있어 할랄 인증 여부보다는 가격이 이 식품 구매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영향과 고려인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식품이 현지 유통 채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초기 진입 상품인 라면과 커피가 꾸준히 인기가 있으며 김과 음료 등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 전문점이나 고급 슈퍼마켓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 2) 산업 이슈

- 우유의 지방 함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실명 공개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되었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우유 제품에 대한 라벨규제를 강화하여 우유의 식물성 지방 함량 여부 및 우유 지방 대체제의 첨가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RTD(Ready-To-Drink) 형태의 차 음료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 후 즉시 마실 수 있도록 캔 혹은 병에 담아 판매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아 소비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의 소비 전망도 밝은 편이다.
  - Fuse-tea(코카콜라), Lipton(유니레버), Maxi-Chai, Turan 등 주로 단맛이 강한 홍차 음료 제품들이 인기가 있으며, 가격은 주로 150~170 텡게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돗물에 석회수가 많아 대부분 사람이 끓인 수돗물을 섭취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돗물 음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병에 든 생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병 생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 3) 외식업 현황

- 카자흐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 130개에 가까운 다민족이 살고 있는 국가로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 되어 있어 외식분야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으며 주로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광활한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낮아 외식 브랜드 매장 수는 적은 편이나 대도시인 알마티 혹은 아스타나 등에 대표적으로 Abr restaurant, Parmigiano, Assorti 등의 레스토랑 체인이 인기가 있으며, 중상류층과 젊은 연령층의 소비가 많은 편이다.

## 나. 소비 동향

### 1) 주요 소비 트렌드

-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아티라우, 망기스타우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으며 수도인 아스타나와 경제특별시인 알마티의 소득도 높은 편이다.
-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삶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를 위한 소비를 지향하는 편으로,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가 크고 일부 젊은 층의 경우 월 소득 전부를 당월에 소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 ▮ 지역별 연평균 소득(2015~2019) ▮

(단위 : 텡게)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아크몰라	89,176	104,816	110,776	121,361	140,272
악퇴베	106,778	117,446	126,640	137,039	156,595
알마티	90,445	104,903	110,387	115,101	136,212
아티라우	225,121	268,441	264,597	293,572	351,103
서 카자흐스탄	116,798	136,675	144,175	153,782	183,914
잠빌	85,298	96,044	100,536	109,720	127,043
카라간다	113,905	125,705	134,494	149,916	172,239
코스타나이	93,560	107,997	116,640	125,995	145,890
코즐오르다	106,332	118,963	124,107	130,391	152,085
망기스타우	234,007	250,787	259,672	275,679	294,099
남카자흐스탄	85,324	99,182	103,225	-	-
파블로다르	108,630	122,633	131,706	141,915	160,670
북 카자흐스탄	84,324	97,344	104,139	110,686	130,233
투르케스탄	-	-	-	104,136	123,853
동 카자흐스탄	103,028	118,736	125,911	140,126	162,182
아스타나 시	189,970	212,848	227,003	240,320	266,796
알마티 시	161,845	178,678	190,875	200,919	224,158
심켄트 시	-	-	-	115,574	136,955
<b>전체 평균</b>	<b>126,021</b>	<b>142,898</b>	<b>150,827</b>	<b>162,673</b>	<b>186,815</b>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유가 하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지화 평가절하와 함께 수입물가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생필품 위주의 저가 제품이나 소량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품질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 2) 식료품비 지출 현황

-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지출의 절반 정도가 식품 소비에 사용되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지만 수산물 혹은 수산가공품에 대한 소비는 적은 편이다.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저렴한 빵과 곡물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유가 회복에 따라 육류, 육가공품, 계란, 과일 등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정부의 자국산 농산품 확대 정책에 따라 가금류와 계란 생산 또한 증가하면서 공급이 안정화되어 낮은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Ⅰ 1인당 월평균 기본 식료품 소비량(2015~2019) Ⅰ

(단위 : kg)

기본 식품	2015	2016	2017	2018	2019
우유 및 유제품	19.5	19.6	19.8	21.8	21.1
계란	13.7	13.7	14.0	16.1	16.2
빵과 곡물제품	10.8	10.9	11.1	11.5	11.4
채소	7.5	7.4	7.4	7.8	7.2
육류 및 육가공품	6.1	6.1	6.1	6.5	6.6
과일	5.4	5.1	5.4	6.2	6.4
감자	4.0	4.0	3.9	4.0	4.0
설탕, 잼, 꿀, 초콜릿, 제과 등	3.5	3.4	3.4	3.9	3.6
유지 및 지방	1.6	1.6	1.6	1.6	1.4
어류 및 수산가공품	0.9	0.9	0.9	1.1	1.2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정부는 알코올음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지만 RTD 형태의 따뜻한 비알코올 음료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유목 생활 문화가 있어 소금에 절인 고기와 채소 혹은 과일 등을 이용한 오이지, 잼 등의 저장식품 소비가 많은 편이며, 냉장·냉동 보관 식품의 경우 관리가 어려워 유통기간이 길고 실온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이나 멸균 우유 등의 소비 비중이 높다.
- 식문화 상 고기와 기름진 음식 섭취가 많아서 원활한 소화 작용을 위해 식후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으며,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차 소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온음료 소비 중 차류 품목에 대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홍차의 인기가 높다.
  - 최근 우유 혹은 레몬 등을 첨가하여 마시는 밀크티 문화가 유행이며 대도시에 커피 전문점들이 증가하면서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인스턴트커피 소비가 늘고 있다.
  - 차류 체인점으로는 Tea House, Orimi Trade, Mondelez Kazakhstan 등이 있으며 가격대는 대부분 낮은 편이고, 차의 맛이 강하고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 여성의 사회활동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출산 이후 업무 복귀도 빨라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바쁜 업무 속에 편하고 간단하게 식사가 가능한 패스트푸드 혹은 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RTC(Ready-To-Cook)와 HMR(가정간편식) 제품 등 전자레인지 등으로 빠른 조리과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라면의 인기가 높으며, 봉지라면보다는 조리가 간편한 컵라면에 대한 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높은 염분섭취량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여 합병증인 백내장 및 심근경색, 당뇨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최근 무설탕식품,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지 않은 초콜릿, 젤리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1인당 육류 소비는 연간 65kg로 러시아(53kg)보다 높은 수치이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3.5kg로 저조하며 대부분 신선, 냉동, 염장 상태로 소비된다.
  -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생선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저가 생선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국내 생산 규모를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다.

## 다. 정책 동향

### 1) 국내 농업 및 식품제조업 육성정책

- 자국 농식품 생산 및 섭취의 확대와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농업 및 식품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류 및 우유, 곡물, 가공류 등 주요 식재료 분야에 대한 자급률 80% 달성과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센터 건설과 순종 혈통 소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 구소련 시절 농산물 원료 공급 국가였으나, 농식품 가공 시설이 미흡하여 가공식품 생산 부족으로 인해 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국내 식품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국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국영기업인 KAZAGRO를 통해 총 435개 프로젝트에 약 72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국산 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라면, 마유, 과자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 카자흐스탄 국산 제품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자국산 식품에 'KZ' 로고를 부착하여 국내 제조 식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 2) 건강한 식습관 형성 독려 프로그램

□ 전통적인 유목 생활방식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소금에 절인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하루 소금 섭취량이 약 17g으로 WHO의 권고량의 약 4배에 달하고 있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위해 최근 WHO와 논의하여 'Densaulyk'와 'Salamatty Kazakhstan' 등 건강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문화, 공중보건 시스템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소아 비만율(14세 미만 어린이 중 20%가 과체중이며, 10%가 비만)을 보인다. 따라서 소아 비만율 감소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어린이 음식 TV 광고에 대한 엄격한 광고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 3) 한식문화 교류 협약 체결

- 한국-카자흐스탄의 한식문화 교류를 위하여 2019년 7월 국내 한 대학교와 한식문화 교류협회, 카자흐스탄 농무부와 고려인협회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내 한식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식의 전문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한식문화교류협회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기타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식문화를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한식 조리사 양성 및 정보 교환과 업무 제휴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 ABAI UNIVERSITY에 한식 전문 조리학과가 개설되었으며 현지 학생들에게 한식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3. 유통 현황

#### 가. 농식품 시장 규모

- 신선식품은 2015년 이후 연평균 3%가 신장했지만 정부의 가공 산업 육성정책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공 농식품은 연평균 11%가 신장하였다.

▮ 농식품 시장 규모(2015~2019)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선식품(천 톤)	3,000	3,099	3,223	3,299	3,375
가공 농식품(백만 달러)	5,519	6,077	6,701	7,256	7,959
가공식품(백만 달러)	4,092	4,536	4,970	5,379	5,908
청량음료(백만 달러)	1,191	1,276	1,418	1,544	1,700
온음료(백만 달러)	236	265	313	333	353

출처 : Euromonitor

#### 1) 신선식품 시장

- 신선식품 시장에는 육류, 과일류, 채소류 등이 주요 품목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3.1%가 증가하여 2019년 시장 규모는 3,375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3%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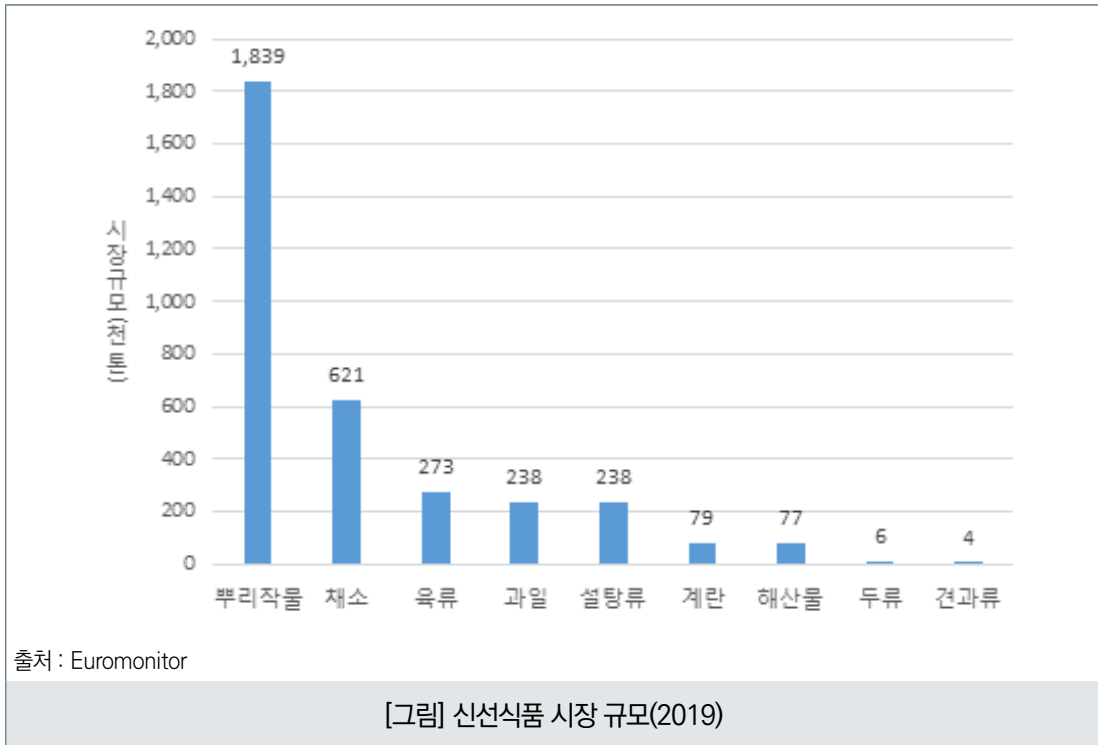
▮ 신선식품 시장 규모(2015~2019) ▮

(단위 : 천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선농산물	3,000	3,099	3,223	3,299	3,375

출처 : Euromonitor

- 신선식품 중 뿌리 작물의 시장 규모가 1,839천 톤으로 전체의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 육류, 과일, 설탕류 순으로 나타났다.



## 2) 가공식품 시장

- 가공식품 시장은 주로 조리식품, 유제품, 주식류, 스낵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시장 규모는 5,90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가량 가하였으며, 향후 시장 규모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가공식품 시장 규모(2015~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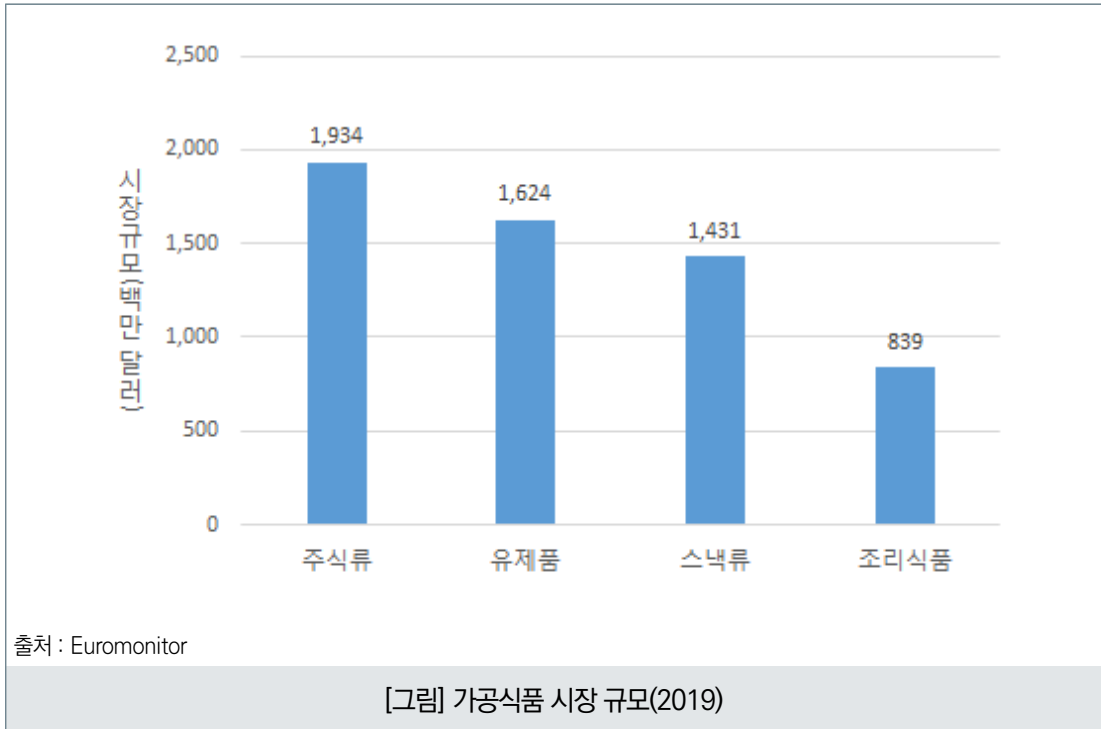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점유율 ('19)	
조리 식품	식용오일	219	239	258	274	302	332	5.1	
	인스턴트 조리식품	58	70	84	92	102	103	1.7	
	소스류	224	256	280	305	330	355	5.6	
	수프	17	21	31	34	37	39	0.6	
	잼류	46	51	56	61	68	72	1.2	
		<b>563</b>	<b>637</b>	<b>709</b>	<b>766</b>	<b>839</b>	<b>901</b>	<b>14.2</b>	
유제 품	유아식	176	168	173	182	199	214	3.4	
	유제 품	버터	197	221	244	266	297	328	5.0
		치즈	234	260	284	313	356	394	6.0
		우유	211	231	248	269	301	334	5.1
		요거트	165	185	203	224	255	288	4.3
		기타 유제품	149	166	180	195	216	239	3.7
		955	1,063	1,161	1,268	1,426	1,582	24.1	
		<b>1,130</b>	<b>1,231</b>	<b>1,334</b>	<b>1,450</b>	<b>1,624</b>	<b>1,796</b>	<b>27.5</b>	
주식 류	제빵류	483	544	582	599	630	660	10.7	
	씨리얼	17	19	21	23	26	28	0.4	
	가공 채소 및 과일	68	75	81	88	96	97	1.6	
	가공 고기 및 해산물	644	694	757	811	900	951	15.2	
	쌀, 면류	194	221	247	263	283	317	4.8	
		<b>1,406</b>	<b>1,553</b>	<b>1,688</b>	<b>1,783</b>	<b>1,934</b>	<b>2,054</b>	<b>32.7</b>	
스낵 류	단과 자류	초콜릿	352	380	403	441	486	572	8.2
		검류	24	24	26	27	28	32	0.5
		사탕류	237	263	291	318	348	409	5.9
			613	668	720	787	863	1,012	14.6
	아이스크림	113	138	165	187	210	239	3.5	
	짠 과자류	147	176	204	237	281	341	4.8	
	스위트비스킷, 스낵바, 과일 스낵	45	52	58	66	78	95	1.3	
		<b>918</b>	<b>1,033</b>	<b>1,147</b>	<b>1,277</b>	<b>1,431</b>	<b>1,687</b>	<b>24.2</b>	
<b>가공식품 전체</b>		<b>4,092</b>	<b>4,536</b>	<b>4,970</b>	<b>5,379</b>	<b>5,906</b>	<b>6,397</b>	<b>100.0</b>	

\* 2020년은 전망치임

출처 :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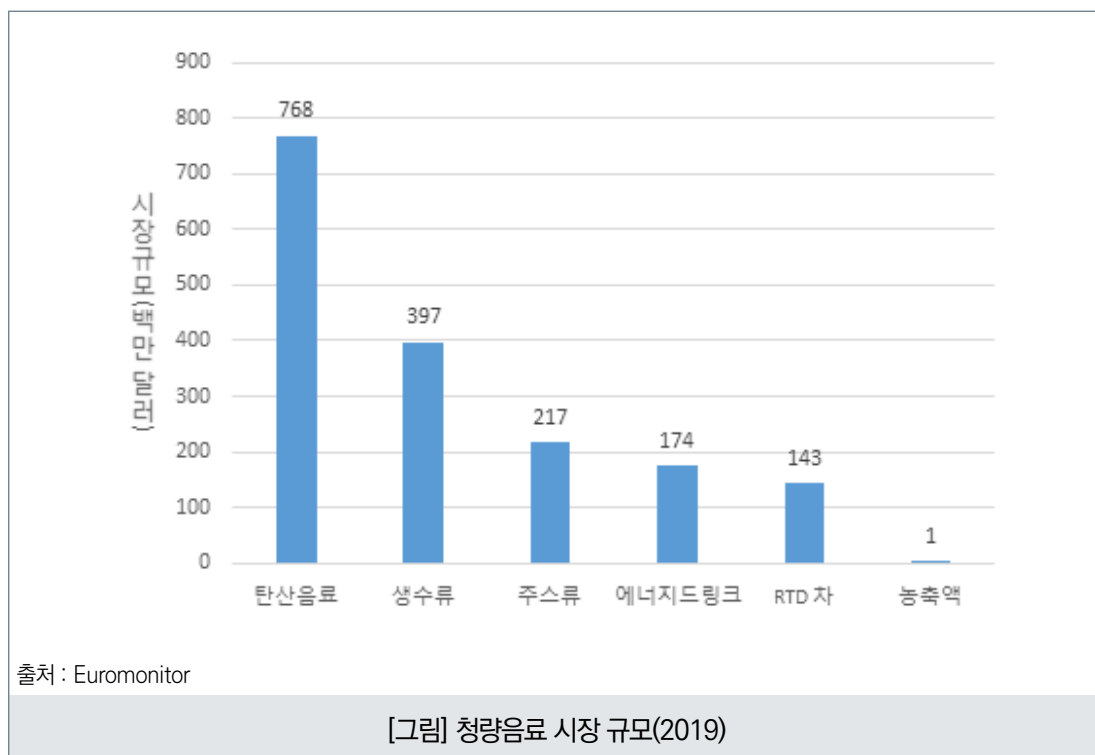
- 2019년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주식류, 유제품, 스낵류, 조리식품 순으로 나타나며, 주식류의 시장 규모가 1,934백만 달러로 전체의 32.7%로 가장 높다.



## 카자흐스탄

## 3) 청량음료(물, 탄산음료, 주스 등) 시장

- 카자흐스탄 내 물, 탄산음료, 주스 등에 해당하는 청량음료 시장 규모의 경우 2019년 1,700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5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꾸준한 상승세로 보아 향후의 시장 규모 확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물, 탄산음료, 주스 등이 해당하는 음료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품목은 탄산음료로, 2019년 규모는 768백만 달러이며 전체 음료 시장 규모의 약 45.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생수류가 전체 음료 시장 규모의 약 23.4%, 주스가 약 12.8%를 차지하고 있다.





### ■ 청량음료 시장 규모(2015~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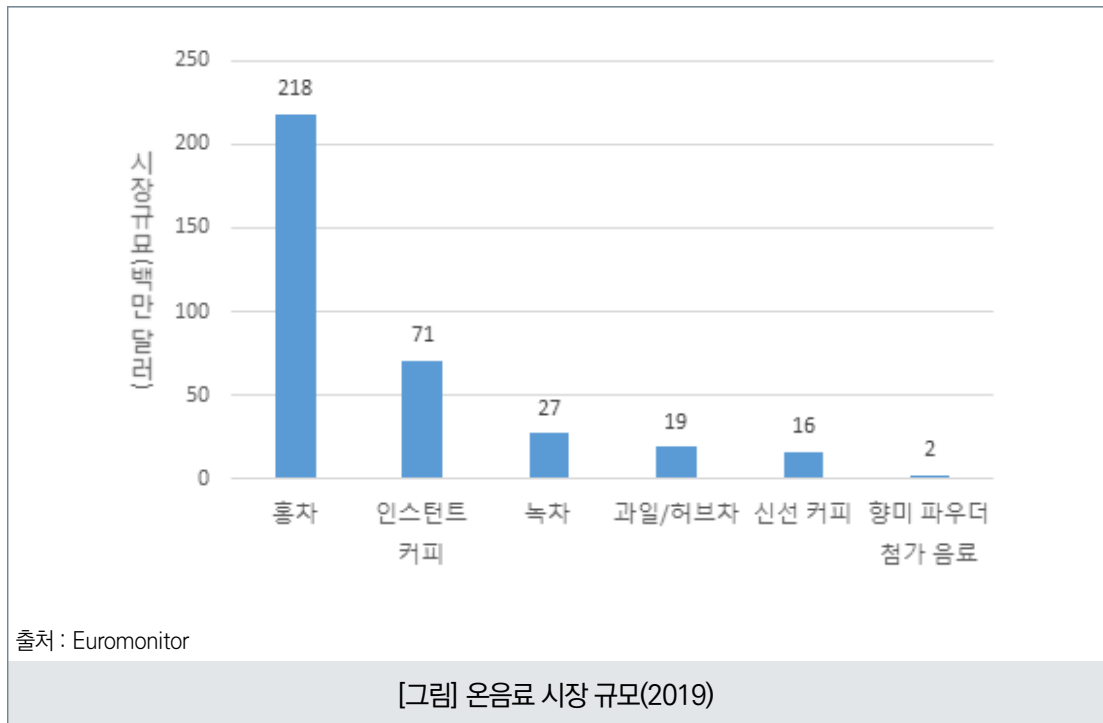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점유율 ( '19)	
생수류	탄산수	자연 미네랄 탄산수	139	147	158	164	180	169	10.6
		샘물 탄산수	45	48	51	53	61	60	3.6
		정제 탄산수	23	24	25	26	30	30	1.8
			207	218	234	243	271	260	16.0
		가향 생수	11	12	13	13	15	14	0.9
	생수	자연 미네랄 생수	41	44	50	54	63	64	3.7
		샘물	20	22	24	27	32	32	1.9
		정제수	10	11	12	13	15	15	0.9
			71	77	86	93	111	112	6.5
			<b>288</b>	<b>307</b>	<b>333</b>	<b>350</b>	<b>397</b>	<b>386</b>	<b>23.4</b>
탄산음료	콜라	제로 칼로리	5	6	7	8	9	8	0.5
		일반 콜라	255	283	340	393	437	412	25.7
			260	288	347	401	446	420	26.2
	비콜라제품	레모네이드/라임	88	103	122	143	162	153	9.5
		진저에일	2	3	3	3	3	3	0.2
		토닉워터	15	16	18	20	21	17	1.3
		환타	33	38	44	52	57	46	3.3
		기타	54	61	68	74	79	78	4.6
			192	221	254	291	322	297	18.9
			<b>452</b>	<b>509</b>	<b>601</b>	<b>692</b>	<b>768</b>	<b>716</b>	<b>45.2</b>
농축액	액체	0.3	0.3	0.4	0.3	0.3	0.3	0.02	
	파우더	0.8	0.9	1	1	1	1	0.06	
		<b>1</b>	<b>1</b>	<b>1</b>	<b>1</b>	<b>1</b>	<b>1</b>	<b>0.08</b>	
주스류	100% 주스	비농축 100% 주스	2	3	3	3	3	2	0.2
		농축 100% 주스	28	27	28	28	29	29	1.7
			30	29	30	31	32	31	1.9
	주스 드링크 (24% 주스)	141	133	129	122	120	110	7.1	
	넥타르	70	66	63	64	65	62	3.8	
		<b>241</b>	<b>228</b>	<b>223</b>	<b>217</b>	<b>217</b>	<b>204</b>	<b>12.8</b>	
RTD 차	RTD 차	122	123	133	139	143	131	8.4	
		<b>122</b>	<b>123</b>	<b>133</b>	<b>139</b>	<b>143</b>	<b>131</b>	<b>8.4</b>	
	에너지드링크	<b>88</b>	<b>106</b>	<b>127</b>	<b>146</b>	<b>174</b>	<b>184</b>	<b>10.2</b>	
	<b>청량음료 전체</b>	<b>1,191</b>	<b>1,276</b>	<b>1,418</b>	<b>1,544</b>	<b>1,700</b>	<b>1,622</b>	<b>100.0</b>	

출처 : Euromonitor

## 4) 온음료(커피, 차, 기타 등) 시장

- 커피, 차 등의 음료가 해당하는 온음료 시장의 경우 타 농식품 시장 규모들에 비해 약 30% 정도로 작지만, 2015년 이후 꾸준한 시장 규모 확대를 이어왔으며, 2019년 353백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 2019년 온음료 시장 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품목은 홍차이며, 그 규모는 218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 시장 규모의(353백만 달러) 약 6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홍차에 이어서 인스턴트 커피, 녹차, 과일/허브차 품목이 그 뒤를 잇는다.



- 카자흐스탄의 2020년 1분기 차, 커피 판매량과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5.6%, 9.6%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의한 경제활동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온음료 시장 규모(2015~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점유율('19)		
커피	신선커피	표준 신선 그라운드커피	5	7	11	13	15	18	4.4	
		신선 그라운드커피	5	7	11	13	15	18	4.4	
		신선커피콩	0.3	0.5	0.7	0.8	1	1	0.3	
		5	8	11	14	16	19	4.6		
	인스턴트커피	일반 인스턴트 커피	26	30	36	41	43	45	12.1	
		디카페인	3	3	4	5	5	5	1.4	
		표준 인스턴트커피	29	33	40	46	48	50	13.5	
		일반 인스턴트 커피믹스	13	15	18	21	23	24	6.4	
		인스턴트 커피 믹스	13	15	18	21	23	24	6.4	
		42	48	59	66	71	74	20.0		
		<b>47</b>	<b>56</b>	<b>70</b>	<b>80</b>	<b>87</b>	<b>93</b>	<b>24.6</b>		
	차	홍차	홍차잎	119	130	153	159	166	169	47.1
			홍차티백	36	40	47	49	52	53	14.7
			155	170	200	208	218	223	61.8	
		과일/허브차	14	15	17	18	19	20	5.3	
녹차		19	23	24	25	27	28	7.6		
	<b>187</b>	<b>208</b>	<b>241</b>	<b>251</b>	<b>264</b>	<b>270</b>	<b>74.7</b>			
기타 온음료	초콜렛 향미 첨가 음료	2	2	2	2	2	2	0.7		
	향미 파우더 첨가 음료	2	2	2	2	2	2	0.7		
		2	2	2	2	2	2	0.7		
<b>온음료 전체</b>		<b>236</b>	<b>265</b>	<b>313</b>	<b>333</b>	<b>353</b>	<b>366</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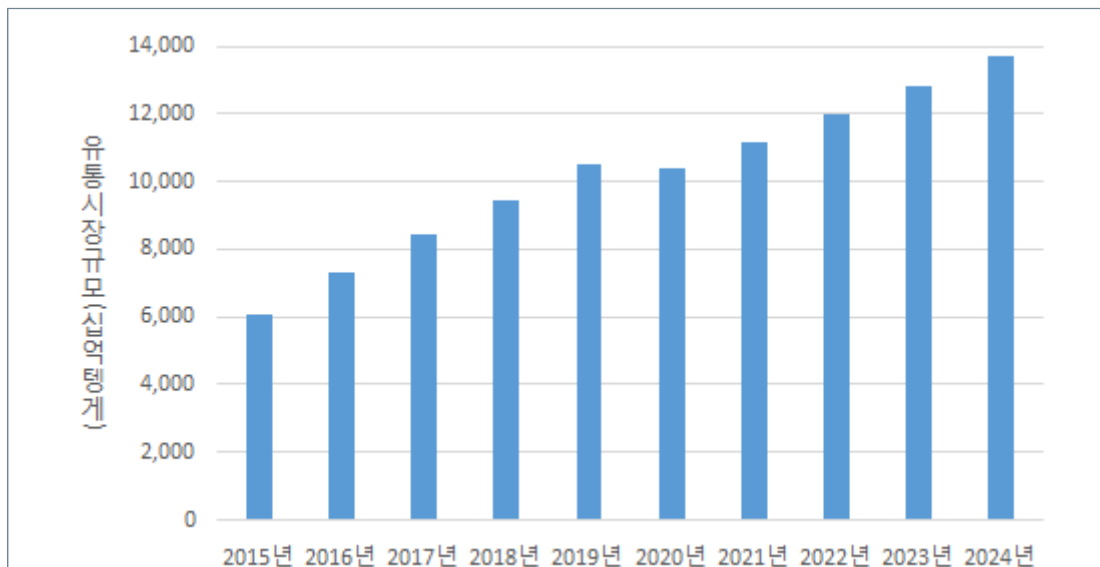
출처 : Euromonitor

## 나. 주요 유통채널 현황

### 1) 전체 유통 현황

#### 가) 유통 시장 개요

- 카자흐스탄의 유통 시장 규모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소비 증대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약 9조 432억 텡게에서 2019년에는 10조 510억 텡게로 약 11.4% 증가했다.
- 2019년에는 누르술탄과 알마티와 같은 대도시의 판매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소규모 점포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키지로라다, 샤임켄트, 카라간다와 같은 중소도시로 판매 공간이 확장되었다.
- 카자흐스탄의 현대 유통 채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인 소매 채널이 축소되고, 현대적인 소매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매 채널의 경우 위생 기준에 대한 불신과 불법 고용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현대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가처분소득이 낮고 중위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독립적인 소규모 채널과 전통적인 소매 채널이 많은 반면, 도심 지역에는 대형 슈퍼마켓과 현대식 하이퍼마켓이 더 많다. 2017년부터 편의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거지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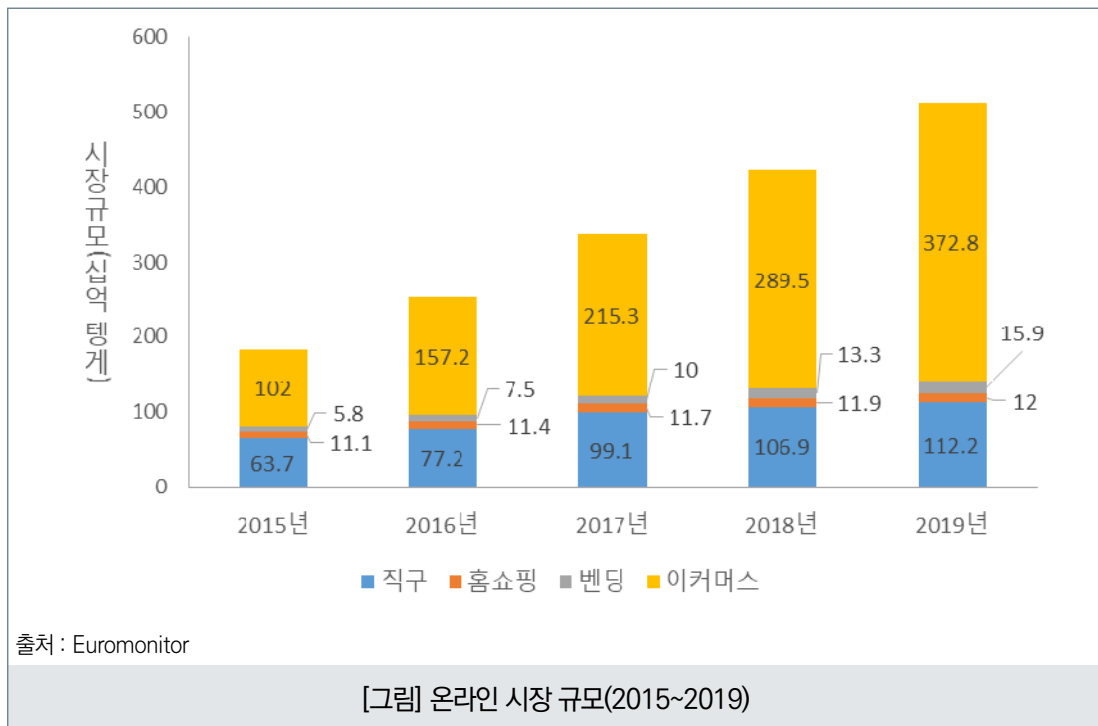


\* 2020년 이후로는 전망치임

출처 :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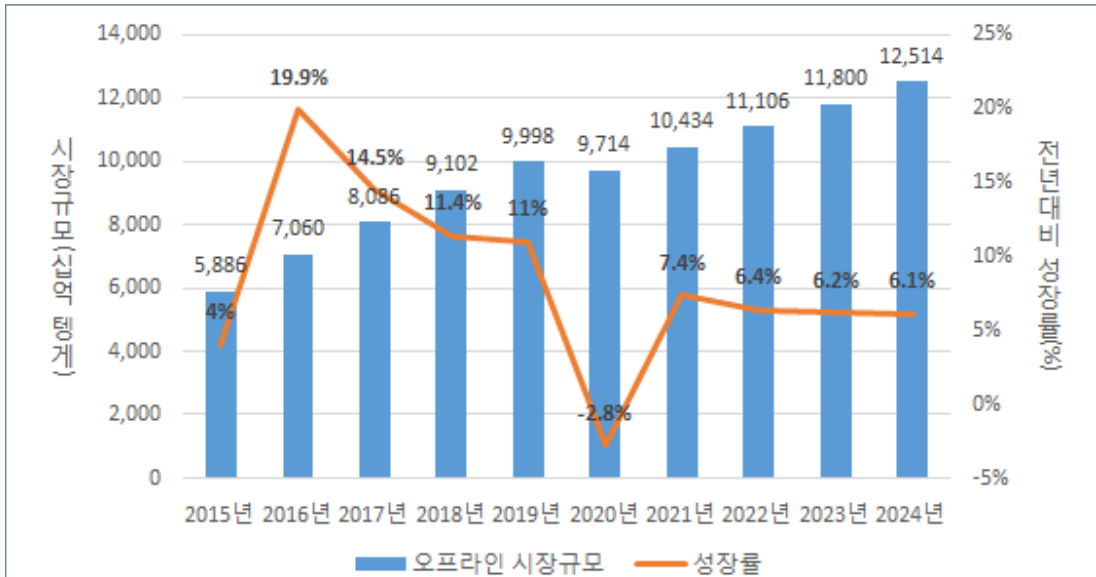
[그림] 유통 시장 현황 및 전망(2015~2024)

- 소비자들의 주된 결제 방식은 여전히 현금이지만,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형 쇼핑몰과 현대식 소매점에서만 받아들여지며, 일부 POS 단말기는 특정 은행의 카드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시 일부 불편함이 있다.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모바일 결제 등의 발전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주요 식료품 유통 채널은 결제 대기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셀프서비스 체크아웃과 모바일 결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온라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9년 기준 5,128억 톱게에 이르렀다.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는 E-commerce이며, 2019년 3,728억 톱게로 전체 온라인 시장의 약 73%로 나타났다.
-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시장 판매액은 2014년 대비 2019년에 209.7%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오프라인 시장 판매액은 2014년 대비 2019년에 76.6% 증가했다.



##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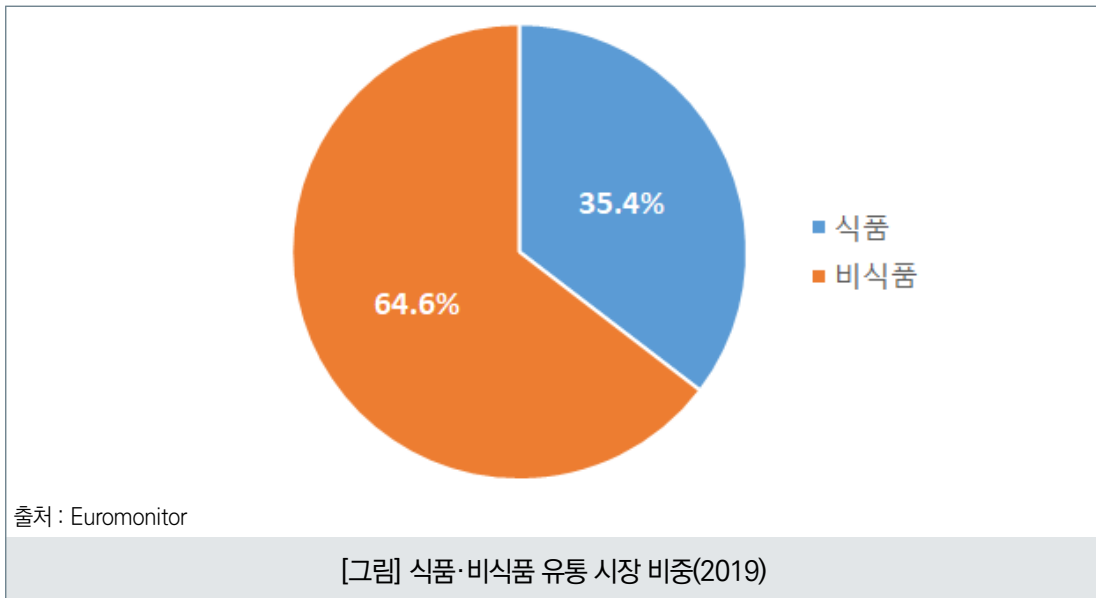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의 오프라인 시장 판매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오프라인 시장 판매액 성장률 전망은 -2.8%이며, 판매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 2020년 이후로는 전망치임

출처 : Euromonitor

[그림] 카자흐스탄 오프라인 시장 현황 및 전망(2015~2024)



출처 : Euromonitor

[그림] 식품·비식품 유통 시장 비중(2019)

## 나) 유통 구조

- 농식품 유통 과정은 전문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통관 후 각 유통업체 등의 판매 채널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이며, 주 판매 채널이었던 재래시장은 2004년부터 조금씩 증가한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
-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본사의 구매부서가 납품업체, 계약, 대금결제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후, 지점에서 따로 납품업체에 연락하여 물품을 공급받는다.
  - 현지 유통업체는 카자흐스탄산 제품과 중국산 공산품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직접구매 형태로 공급받는 반면 외국계 유통업체는 유럽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지만 인증 및 서류 절차가 복잡하여 간접구매 형태로 공급받는다.
- 유통체인에 납품 경험이 있고 한국제품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현지 수입 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 2) 오프라인 유통 채널 분석

### 가) 오프라인 유통 시장 규모

- 현대적 유통채널은 편의점, 할인점, 주유소 상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으로 나뉘며 슈퍼마켓(677백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이퍼마켓(661백만 달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확장하는 추세이다.
- 여전히 전통 유통점이 2019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편의점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전통 유통점 선호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통 유통점의 감소 속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공식품 오프라인 시장 규모(2015~2019)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대 유통점	편의점	-	-	-	-	-
	할인점	-	-	-	-	-
	주유소 상점	5	10	19	26	37
	하이퍼마켓	354	422	489	562	661
	슈퍼마켓	385	448	514	581	677
		744	879	1,021	1,169	1,374
전통 유통점	식료품/담배 상점	70	79	86	95	103
	독립 소규모 상점	1,827	1,995	2,154	2,294	2,470
	기타 상점	1,395	1,529	1,650	1,758	1,885
		3,293	3,603	3,890	4,146	4,457
<b>전체</b>		<b>4,092</b>	<b>4,536</b>	<b>4,970</b>	<b>5,379</b>	<b>5,906</b>

출처 : Euromonitor

## 식료품 유통점 유형별 매장 수 추이(2015~2019)

(단위 :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대 유통점	편의점	-	-	23	71	99
	할인점	-	-	-	-	-
	주유소 상점	1,849	1,948	1,963	1,973	2,009
	하이퍼마켓	51	46	44	46	53
	슈퍼마켓	366	362	388	408	455
		2,266	2,356	2,418	2,498	2,606
전통 유통점		45,819	49,631	46,216	42,976	39,628
<b>전체</b>		<b>48,085</b>	<b>51,987</b>	<b>48,634</b>	<b>45,474</b>	<b>42,234</b>

출처 : Euromonitor

## 나) 오프라인 유통 시장 현황

-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들이 소매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유통채널이 다변화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MEGA, Dostyk, palza, Esentai mall 등 복합 유통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현지 대형마트는 서민층을 타겟으로 가격경쟁력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으며, 외국계 대형매장은 부유층을 타겟으로 고품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 2013년 일본 이온그룹(AEON Group)의 미니스톱이 개업하였으며, 2015년 말 할인점 (One Price Shop)이 오픈하였다. 향후 2~3년 내에 50여 곳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 대형유통업체들의 선진국형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Galmart는 카트에 전자식 제품 설명 및 광고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상품배치도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아이템의 위치와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Ramstore은 회원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증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 PB 시장의 성장은 한국, 유럽, 미국 등의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저조한 편이나, 이는 대형마트의 고객층이 대부분 중상류 및 부유층이기 때문에 PB 상품의 저가 마케팅이 효과가 작으며, PB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 PB 시장에는 'Metro Cash&Carry'가 런칭한 Aro, Fine Life와 Fair Price의 Fiero가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경기침체와 식품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PB 시장이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 점유율 기준으로 나타난 주요 유통기업은 Magnum Cash&Carry TOO, Skif Suda TOO, Metro Group 등이 있으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Magnum Cash&Carry TOO는 현대 유통점으로 전체 유통 시장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 점유율 2위를 차지한 S-Mall 또한 현대 유통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 식료품 유통 상위 10개 기업 점유율 현황 ▮

(단위 : %)



순위	브랜드명	기업명	점유율('19)
1	Magnum	Magnum Cash&Carry TOO	11.7
2	S-Mall	Skif Suda TOO	10.0
3	Metro	Metro Group	6.8
4	Anvar	Anvar TOO	5.6
5	a2	Trending Retail Group TOO	4.0
6	Leader	Ideal Market TOO	3.1
7	Firkan	Firkan TOO	2.9
8	Ideal	Ideal Market TOO	2.9
9	Ayan	Ayan Group	2.8
10	Astykzhan	Astykzhan CT TOO	2.7

출처 : Euromonitor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리스트

Magnum		
	유형	창고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최대 유통업체</li> <li>- 직구매로 가격을 낮추며, 직구매와 간접구매의 비율은 3:7임</li> <li>- 2주마다 최대 50% 할인</li> <li>- 24시간 영업</li> <li>- 15,000개 이상 상품 보유</li> </ul>
Gastro Market Colibri		
	유형	식료품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리브리 백화점 내 입점</li> <li>- 고품질의 식품들을 판매하며 가격대 높음</li> <li>- 매장 홍보 시 어플리케이션 활용</li> </ul>
S-mall		
	유형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대형 유통업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오래된 소매체인점</li> <li>- 협력·안정성·비즈니스 관계 측면에서 공급업체로부터 1위 기업으로 인정받음</li> <li>- 직수입 판매 및 자체 생산</li> <li>- 35,000개 이상 상품 보유</li> <li>- 주문 생산 가능(육류, 베이커리)</li> </ul>
Anvar		
	유형	유통 네트워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품목</li> <li>- 약퇴베 최대 유통업체</li> <li>- 유제품, 베이커리, 과자류 자체 생산</li> </ul>
Green Mart		
	유형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브랜드 생산(육류, 베이커리)</li> <li>- 고객 충성도 마케팅</li> <li>- 저가격 고품질 이미지 구축 노력, 다양한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li> </ul>

Ideal		
	유형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브랜드 보유(Fiero, Fair Price)</li> <li>- 자사 브랜드 생산(육류, 베이커리, 과자류)</li> <li>- 낮은 가격 제공</li> </ul>
A-store		
	유형	하이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생산(베이커리, 쿠키)</li> <li>- 40,000개 이상 상품 보유</li> <li>- 24시간 영업</li> <li>- 온라인 구매 가능</li> </ul>
Astykzhan		
	유형	하이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구매 가능</li> <li>- 배달 가능</li> <li>- 13,000개 이상 상품 보유</li> <li>- 낮은 가격 제공</li> <li>- 다양한 프로모션</li> </ul>
Ramstore		
	유형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슈퍼마켓으로 터키 기업인 Migros 소유</li> <li>- 대형 쇼핑몰에 입점</li> <li>- 각종 할인, 서비스 제공 및 회원제 운영</li> </ul>
Ayan		
	유형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라간다 최대 유통업체</li> <li>- 자체 생산(베이커리, 쿠키, 유제품)</li> <li>- 낮은 가격 제공</li> </ul>

Galmart		
	유형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마티에 위치</li> <li>- 독특하고 다양한 상품 보유</li> <li>- 현대식 매장 배치</li> <li>- 중산층 이상 타겟 마케팅</li> <li>- 고급 서비스</li> <li>- 자사 브랜드 보유</li> </ul>
Metro		
	유형	창고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계 다국적 유통업체</li> <li>- 온라인 구매 가능</li> <li>- B2B, B2C 가능</li> <li>- 자사 브랜드 보유</li> </ul>
Carrefour		
	유형	대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계 다국적 유통업체</li> <li>- 30,000개 이상 상품 보유</li> </ul>

- 전통 유통채널에는 재래시장인 바자르(Bazaar)가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 가장 큰 소매채널이다. 대형 유통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바자르가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알마티, 아스타나 등의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

  - 대표적인 바자르로 질노니, 그린 등이 있으며, 아스타나의 예브라지야는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키고 있다.
  - 알마티에서 가장 큰 바자르였던 바라홀끼는 도매유통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2015년에 철거되었으며 바자르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알마티의 모든 바자르는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 2017년 2월 알마티에 프랑스 Ranzhis 시장을 벤치마킹한 유럽형 푸드마켓 Mizam이 오픈했다. 약 2,000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단계를 줄여 판매하기 때문에 시중보다 약 35%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출처 : 카자흐스탄 HOMMES(<http://hommes.kz/>)

[그림] Mizam

### ■ 전통 유통기업 점유율 및 점포 수(2019) ■

(단위 : %, 개)

순위	브랜드명	기업명	점유율	점포 수
1	Volna	Volna TOO	0.4	55
2	Rakhat	Rakhat AO	0.3	13
3	Vkus Market	Vkus Market OOO	0.0	40
4	Bekker	Nemeckly Dvor TOO	0.0	18
5	기타	-	99.3	39,502

출처 : Euromonitor

### 3) 온라인 유통 채널 분석

-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식품 및 음료 시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8.8% 성장한 3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 온라인 전체 식품 및 음료 시장 규모(2015~2019)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식품 및 음료 이커머스	14	15	19	25	32

출처 : Euromonitor

- 가공식품의 온라인 시장은 2019년 기준 매출액이 2백만 달러 규모를 가졌고,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2019년 사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I 가공식품 온라인 시장 규모(2015~2019) I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온라인 시장	2.0	0.5	1.0	1.0	2.0

출처 : Euromonitor

- 카자흐스탄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온라인 입지 확보를 위해 옴니채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는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에서의 편리성, 속도, 다양한 상품과 결제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 옴니채널: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한국경제용어사전).

-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현지 규정에 맞는 인증과 허가를 갖추어야 하며 아직은 오프라인 매장 선호도가 높으므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내 온라인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에는 인터넷 판매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5년간 폐지하기로 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다.
- 2019년에는 '2019~2025 전자상거래 개발 로드맵'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요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개발 로드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온라인 유통 비율을 2025년까지 전체 소매거래의 1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 온라인 식품 소비와 배달 서비스가 확산하는 추세로, 온라인 쇼핑의 22.8%가 식품에 해당하며, 이 중 대부분이 온라인 음식 주문 건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서비스들 또한 주로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알마티지역의 경우 348개의 식당 중 피자과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 배달 식당이 233개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SNS 이용이 활발한 만큼, 카자흐스탄 소비자들 또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SNS상에서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 영양 정보, 품질, 후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구매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다이어트와 건강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식료품 업체와 식당들은 온라인 사이트나 SNS 페이지를 제작하여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비현금 결제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절차 단순화, 디지털화, 회계 개선 등을 위해 비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비현금 결제 거래량을 2.4배 증가시켰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온라인 금전등록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구매를 촉진할 예정이며, 거래량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액에 비현금 결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 국토가 넓고, 도시 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택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므로 철저한 검토를 통한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
  - 카자흐스탄 우편물의 85%는 이틀 내 배송되고 있으며 향후 고품질 인터넷의 공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에서 배송되는 택배는 세관 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지 물류창고를 갖춰야 한다.
  
- 연령대별 인터넷 접근 비율을 보면 전체 연령대의 인터넷 접근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거래량 또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 현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가전제품, 의류, 신발, 생활용품, 미용용품 등이 대부분이며 아직 식료품 구매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 ▮ 연도별·연령대별 인터넷 접근 비율(2015~2019) ▮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세 미만	71.9	73.9	74.3	76.6	77.2
20~29세	82.1	84.2	84.7	87.4	88.2
30~39세	85.4	87.6	88.1	91.0	91.8
40~49세	84.2	86.4	86.9	89.7	90.6
50~59세	81.9	84.0	84.5	87.2	88.0
60세 이상	79.1	81.1	81.6	84.2	85.0
전체 평균	82.2	84.4	84.9	87.6	88.4

출처 : Euromonitor

## |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리스트 |

SATU		
	도메인	www.satu.kz
	특징	- 약 620만 개 제품과 13만 5천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WILDBERRIES		
	도메인	www.wildberries.kz
	특징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국가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MIMIORIKI		
	도메인	new.mimioriki.kz
	특징	- 카자흐스탄 최대 의류 제조업체의 아동복 판매 사이트
technodom		
	도메인	https://www.technodom.kz/
	특징	- 카자흐스탄 대표 전자제품 판매 체인점
OLX		
	도메인	www.OLX.kz
	특징	- 카자흐스탄 내 2위 온라인 쇼핑몰 - PC·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조회수가 20억 뷰를 초과하는 기록 보유

- 솔타노프 무역경제통합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2020년 상반기 온라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179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2년에는 45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다. 한국식품 유통 현황

- 한국식품점은 명가 등 9개가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인 바자르에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의 현지 마켓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라면 등 한국식품의 일부를 현지 식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 ▣ 카자흐스탄 내 한국 식료품점 ▣

식료품점명	주요 정보	
명가	주소	Сырғабекова, 7, Almaty, Kazakhstan
	TEL	+8(727) 269-6851
7마트	잔도사바-사이나 TEL	263-9969 / 701 223 7655
	알파라비-자꼬로바 TEL	247-6234
우리식품	주소	Сатпаева 78
	TEL	+8-702-329-1133 / +8-702-408-1807 / +8-708-673-1187
서울마트	주소	Фурманова и Жибек Жолы 69
	TEL	+7(727)273-6167 / +7(778)100-1919 / +7(701)944-6035
두레	주소	Жамакаева 24, Almaty, Kazakhstan
	TEL	+7(727) 263-2291 / +7(701) 232-6988
Korean Mart	주소	Достық даңғылы 46, Алматы 050000
	TEL	+7(727)291-428 / +7(701)907-4639 / +7(701)204-3488
K-mart	주소	Әуезов көшесі 64/2, Алматы 050000 / Төле би көшесі 260, Алматы
	갈다야코바 TEL	+7(727)293-0039 / +7(707)700-8766(Ko) / +7(707)915-0009(Ru)
	톨레비 가이다라 TEL	+7(702)321-6319 / +7(727)324-7733 / +7(701)958-8914

출처 : 카자흐스탄 한인일보사, CIS TODAY

- 2017년 11월 23일 K-FOOD 파일럿샵인 '코리아푸드 스토리'가 알마티 최대 비즈니스 센터인 Nurly Tau 1층에 오픈하였다. 매장에 전시·판매되는 품목은 과일류·버섯류·인삼류 등 50여 가지 품목이며, 포도·배·버섯·흑삼 등은 처음으로 시험 수출되었다.
- 농식품의 경우 안전성, 영양성, 기능성 등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나 중국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비하여 한국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에게 퍼지고 있다.

- 현지 한국식당은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활발하게 영업하는 중이며 한국 음식 및 한국산 식품시장은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지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은 가격대비 좋은 품질로 인지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내 대형마트에서 김, 김밥, 과자류, 김치 등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
- 신선농산물 중에서 배와 딸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배는 중앙아시아에서 흔히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외형과 크기에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 시식을 한 이들은 서양배와 다른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에 좋은 평을 보였다.
  - 딸기는 네덜란드 딸기와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당도가 높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로 현지 바이어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이며 수입을 위한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 김치와 젓갈류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맵고 알싸한 맛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인삼, 홍삼을 비롯한 건강식품과 알로에, 유자차 등의 음료 제품도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 주변국인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으로부터 모든 식품이 반입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없는 것이나 차별화가 확실한 제품의 시장성이 크다. 딸기는 중국산과 당도가 차별화되며 한라봉, 천혜향은 맛과 향이 좋고 유사한 제품이 없어 수요가 높다.
  - 현지에서 사과, 배 등의 신선 과일 품목도 인기가 있으나, 포도의 인기가 압도적이며 와인 소비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샤인머스켓이나 캠벨포도 등 현지산과 차별되는 포도 수출 시, 시식회와 판촉 홍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냉장·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많아 냉장·냉동 컨테이너 활용 추진을 시도한 바가 거의 없다. 겨울철에 일부 어묵 등을 일반화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수입한 사례가 있다.
  - 툴멘이라는 현지의 만두가 있으나 만두속도 적고 피가 두꺼운 편이다. 한국산 만두의 경우 얇은 피와 짭 찬 속을 가져 툴멘과 차별화되어 수요가 높다. 그러나 C사의 러시아 현지 공장의 제품이 트럭킹으로 반입되고 있어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
  - N사의 과자류나 팔○라면 등 가공식품은 단가도 저렴하고 일반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므로 대부분 한국의 직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마트 등 고급매장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
- 현지의 대형마트에는 중저가 제품 위주의 판매로 인해 단가가 높은 한국상품의 판매가 어려운 편으로 한국상품이 팔릴 수 있는 고급 대형마트로 진출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은 차 문화가 발달하여 있으며 특히 가을철 이후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가 인기가 있다. 또한, 견과류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므로 울무차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











- 팔○도시○라면과 C사의 야채만두, L사의 빼○로, O사의 초○파이 등은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어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신○면도 현지 생산에 따라 가격의 이점과 물류 상 유리한 점을 기반으로 CIS 국가에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 초○파이는 현지 생산 공장 2개를 설립하여 연간 10억 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제품 고소미 등 비스킷 라인업을 확보해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Ⅱ 한국식품 판매 현황 Ⅱ

(단위 : 텡게, '19 기준 1텡게 당 3.04원)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명 : 알○에농장 회사명 : G사 가격 : 449 Tenge 용량/EA : 500ml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하○보리 회사명 : W사 가격 : 455 Tenge 용량/EA : 500ml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새○강 회사명 : N사 가격 : 475 Tenge 용량/EA : 75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양○링 회사명 : N사 가격 : 475 Tenge 용량/EA : 5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튀○우동 회사명 : N사 가격 : 590 Tenge 용량/EA : 111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신○면 회사명 : N사 가격 : 475 Tenge 용량/EA : 68g 판매처 : GALMART

카자흐스탄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명 : 너○리 회사명 : N사 가격 : 475 Tenge 용량/EA : 12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순○면 회사명 : N사 가격 : 475 Tenge 용량/EA : 67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현○식초 회사명 : S사 가격 : 1,085 Tenge 용량/EA : 500ml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태○초 회사명 : H사 가격 : 1,439 Tenge 용량/EA : 50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재○식된장 회사명 : H사 가격 : 809 Tenge 용량/EA : 50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닭○음탕양념 회사명 : B사 가격 : 1,039 Tenge 용량/EA : 29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궁○갈비찜 회사명 : S사 가격 : 4,120 Tenge 용량/EA : 19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열○칼국수 회사명 : S사 가격 : 995 Tenge 용량/EA : 101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고○맛 살리는 쌈장 회사명 : S사 가격 : 2,060 Tenge 용량/EA : 50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햇○ 회사명 : C사 가격 : 589 Tenge 용량/EA : 210g 판매처 : GALMART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 사진	판매정보
	제품명 : 햇○삭김 회사명 : C사 가격 : 190 Tenge 용량/EA : 5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레○버랜드 크런치 오리지널맛김 회사명 : M사 가격 : 2,930 Tenge 용량/EA : 40.5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멀○다시다소스 회사명 : S사 가격 : 2,295 Tenge 용량/EA : 345ml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유○차, 레○차 회사명 : M사 가격 : 2,760 Tenge 용량/EA : 58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말○레몬에이드 회사명 : T사 가격 : 3,345 Tenge 용량/EA : 5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유○농보리차 회사명 : S사 가격 : 2,745 Tenge 용량/EA : 30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밀○과자 회사명 : J사 가격 : 805 Tenge 용량/EA : 90g 판매처 : GALMART		제품명 : 유○/ 블○베리 캔디 회사명 : C사 가격 : 940 Tenge 용량/EA : 100g 판매처 : Gastro Market Colibri
	제품명 : 밀○맛 사탕 / 중○캔디 회사명 : M사 가격 : 940 Tenge 용량/EA : 100g 판매처 : Gastro Market Colibri		제품명 : 비○C 회사명 : C사 가격 : 940 Tenge 용량/EA : 100g 판매처 : Gastro Market Colibri
	제품명 : 꽃○금 회사명 : S사 가격 : 830 Tenge 용량/EA : 500g 판매처 : Gastro Market Colibri		제품명 : 튀○가루 회사명 : S사 가격 : 1,350 Tenge 용량/EA : 500g 판매처 : Gastro Market Colibri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카자흐스탄

# PART III

## 농식품 물류 환경

1. 물류 현황
2. 환경 분석

## 1. 물류 현황

### 가. 물류 개요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CIS 국가로서 항구가 없어 주로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소련을 통한 철로운송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트럭 등 도로운송체계의 발달로 러시아와 CIS 국가 간의 물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러시아 경유 시 통관상의 문제가 거의 없으나 지리적 위치 특성상 90% 이상의 물류가 TCR(Trans China Railroad, 이하 TCR)을 통해 들어가며 TSR(Trans-Siberian Railway, 이하 TSR)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 전체 물류 중 90%가 알마티로 들어가며, 아스타나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경제활동이 적어 물류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횡단철도와 남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는 분기점으로서 물류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 TSR과 TCR을 통해 냉장·냉동 제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냉장·냉동 식품의 대부분은 주변국인 유럽산과 러시아산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관세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가능해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 시베리아철도 운송요금은 철도국과 따로 계약할 수 있어, 정기적인 운송이나 대량 운송 여부에 따라 업체별 가격 차이가 발생된다.
  - 한국에서 냉장·냉동식품을 보내는 경우, 철도가 아닌 항공 운송이나 해상운송을 거친 후 트럭킹을 활용해야 하므로 물류비용 부담이 커서 가격경쟁력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 알마티는 철로를 비롯한 육상운송의 물류 중심지로서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는 알마티를 거쳐 운송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운송 구조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물류비는 카자흐스탄의 물류비를 기준으로 운송비용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 알마티는 중세시대부터 실크로드의 교역 요충지였으며, 중국 두루크시프 철도의 개통으로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최종 목적지가 동부러시아, 중부러시아, 서부러시아일 경우, TCR로 카자흐스탄을 통한 및 경유지로 활용한다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12%, 러시아는 20%로 약 5~8%의 세율 차이가 나므로 EAEU로서의 부가가치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20년 초 P사에서 TSR로 폴란드까지 기본 35~40일 걸리는 해상운송을 21~23일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물류 서비스 테스트에 성공하여 TSR철도 운송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베트남 호치민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발주 시점부터 14일 내에 운송하는 서비스 사례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부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신선과일, 냉동 새우, 기타 수산물 등 냉장·냉동 품목들의 운송이 가능하나 운송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 나. 물류 구조

### 1) 철도



- TS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주로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에서 로코트(Lokot)를 거쳐 알마티로 들어간다.
- TCR의 경우에는 부산항 혹은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연운항, 청도항에 페리를 통해 대륙으로 들어간 뒤, TCR 철도를 통해 우루무치(Urumqi)와 호르고스(Khorgos)에서 표준궤인 TCR에서 광궤인 TSR로 환적이 이루어진 후 알마티에 도착하게 된다.
  - 기존에는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드루즈바(Druzhba) 하나였으나 적체가 심해 이를 완화하고자 호르고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 드루즈바는 폐쇄 중이나 향후 양분화하여 부산 운송할 경우 많은 양의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TCR이 TSR 보다는 운송 거리가 짧아 운송 기간이 단축되고 운송비용 부담이 낮으며, 서류 검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 운임은 TSR의 20ft 컨테이너 기준 약 3,500~4,000달러이며, 40ft는 약 5,000달러 내외이다. TCR은 조금 더 저렴한 편으로, 20ft 컨테이너 기준 약 2,000~3,000달러, 40ft 기준 약 3,500달러로 TSR보다 약 1,500달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TSR과 TCR에는 냉장·냉동 컨테이너의 전원 공급 장치가 없어 냉장·냉동 물품의 철로운송이 어려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항구와 노보로시스크 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알마티까지 트럭킹을 통한 물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 TSR 중 일부 차량은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가 따로 배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사용하는 전용장치이므로 일반화물용으로서의 배정이나 이용이 어려운 편이다.
  -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구,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기에 식품 냉장·냉동 컨테이너 1개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어 화물운송에 어려움이 많다.

## 2) 항공 운송

-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아스타나가 있으며 주 3~4회 운행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주 1회로 감축 운행 중이며 운행 축소에 따라 항공 운송료가 인상되었다.
  - 현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은 다소 저렴한 편이지만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한국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 항공운송의 경우 냉장·냉동식품의 운송이 가능하나 냉장·냉동 운송 물량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항공 운송료가 비싸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 냉장·냉동식품의 경우 아이스 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통해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 입고 전, 출고 후 콜드체인시스템 유지를 통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현재 aT에서는 농식품 해외수출 시 대한항공사와 항공운임의 약 30%를 할인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항공 지역별, 항공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운임 할인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3) 트럭킹을 통한 운송

- 트럭킹은 크게 2가지 루트로 나눌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카자흐스탄의 악퇴베를 거쳐 알마티로 들어가는 방법과 흑해 쪽의 노보로시스크를 거쳐 알마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항, 노보로시스크(Novorossiisk)항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운송되는 트럭킹은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한 편이나 알마티까지는 운송 거리도 멀고 운임비도 높아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 4) 환적, 통관 등 물류 운영 현황

- 중국 환적 시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 방지 등을 위하여 컨테이너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수검사의 경우,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비용이 추가되고, 통관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 통상적으로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계측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컨테이너를 오픈하여 전수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계측 저울의 오차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 중량 차이가 큰 경우에만 오픈 검사를 한다. 전수검사는 전체 환적 건의 약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경우 콜드 체인 유통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냉장·냉동 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냉장·냉동식품의 보관비용 등 부담이 높아 수입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냉장·냉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 대형 냉장·냉동 창고를 시설하는 것보다는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분할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내 대형 냉장·냉동 창고는 자사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해외 식품기업 N사의 대형 창고가 있으며 대부분 소형 냉장창고이며 창고 수도 적은 편이다.
- 일반적인 화물로 브랜드권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수입 및 통관에 제약이 되는 화물(화장품, 식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회색 통관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 회색 통관은 100%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그렇다고 불법적인 통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 5) 코로나19 이후 물류에 미치는 영향

- 카자흐-중국 국경의 철도(TCR) 검문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철도 운임은 유가에 영향받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어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18% 증가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르고스를 2020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폐쇄하였으며, 임시 활동 재개 후 3월 15일부터 다시 임시 폐쇄하였다.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 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2020년 양국 간 철도 운송료의 50% 할인 계약에 서명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지역과의 철도 운송요금 인하문제를 추진 중에 있다.
  
- 코로나19 이후 현지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물류 물량은 감소되었으며 항공의 경우 여객기 운행편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석 부족현상으로 오히려 운임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 코로나19 이전의 항공운임은 한국 통화인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환율의 변화가 심하여 일시적으로 '달러'로 계산하고 있다.
  
- 중국 측이 국경 검문소의 검역수칙을 강화하여 중-카자흐 간 국경 검문소 중의 한 곳인 '누르 졸리' 검문소에 급격한 혼잡이 발생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차가 하루 최대 1,800대가 대기하고 있던 사례가 발생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경에서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과 다양한 조치를 논의하였고, 중국 운송 업체들은 카자흐스탄 입국 및 국경 물류센터에서의 화물 환적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또한, 중국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24시간 동안 무비자로 국경 물류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중국을 향한 물류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수속 창구를 만들기도 했다.
  -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이 폐쇄시켰던 '칼자트', '바흐트', '마이카르차가이' 검문소가 7월 1일 부터 재개방되어 화물차량을 처리함으로써 병목현상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서 중국 측은 일일 화물처리 물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물차들이 긴 줄을 서는 풍경이 다시 연출되었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화물차량의 오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3주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줄을 서고 변동 상황을 수시로 통보받아 국경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운송비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송비는 물류업체와 진행 시점에서 재확인하여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Ⅰ 물류 경로별 운송기간 및 운임 Ⅰ

종류	출발지	경로 및 항공명	운임	기간
TSR	부산항	블라디보스토크→노보시비르스크→알마티	20ft \$3,900 40ft \$4,800	28~30일
TCR	부산항	연운/청도항→우루무치→호르고스→알마티	20ft \$3,000	30일
	인천항		40ft \$3,500	
항공	인천	아시아나, 에어아스타나 항공 (알마티, 누르술탄)	[일반] MIN: 120,000원 0~45kg: 19,500원/kg 45~100kg: 7,500/kg	1일
			[냉장, 냉동] MIN: 235,000원 0~45kg: 38,000원/kg 45~100kg: 15,500원/kg	
트럭킹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악퇴베→알마티		\$10,000이상*	50일
	노보로시스크→알마티		\$10,000이상*	50일

\* 트럭킹은 현재 이용사례가 없어 적정 운송료 책정이 어려워 예상치 기재

다. 물류업체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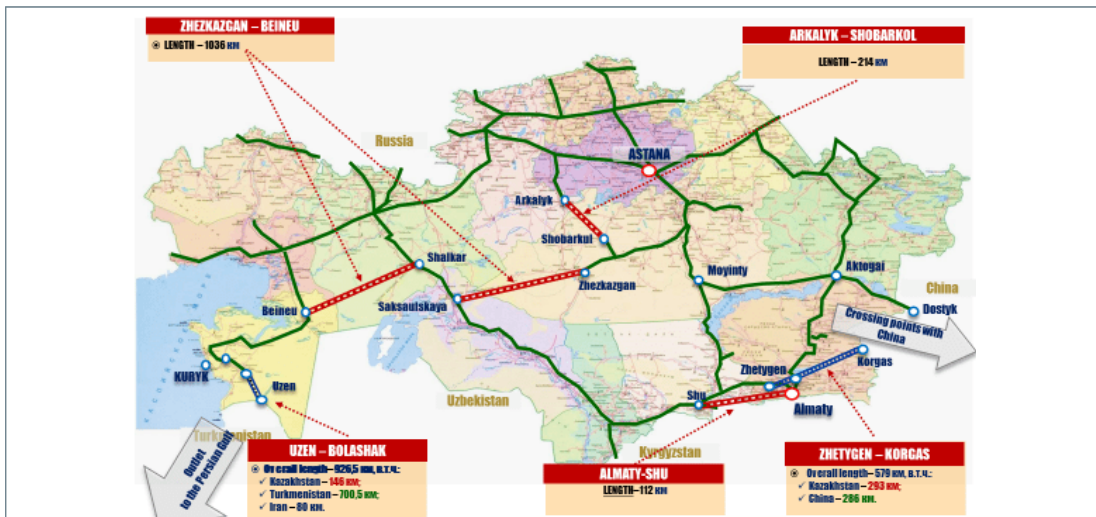
ES 로지스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0길 28(광희동)
	TEL	02-2274-5510 / +7 905 535-0344
	FAX	02-2274-5466
	사이트	http://www.eslogics.com
	카자흐스탄 법인주소	Kyrgyzstan, Bishkek, Matrosova 50a, office
	카자흐스탄 TEL	+996-312-54-66-73
KYL 로지스틱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2 KGIT 센터1507호
	TEL	02-711-7170
	E-mail	kyl-alex@kyl.co.kr
	사이트	http://www.kyl.co.kr/

선일아이엔티		
 (주)선일아이엔티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10 서일빌딩 5층
	TEL	032-463-6770
	E-mail	seonil@seonil.com
	사이트	www.seonil.com
NOVA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4길 33(광희동 1가, 삼지빌딩)
	TEL	+82-2-2274-0456 / +82-2-600-45-400
	FAX	+82-2-22740457
	E-mail	NOVALOGISTICSPARTS@GMAIL.COM
	사이트	http://novacargo.ru/ko/
서중물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1701호)
	TEL	+82-2-779-2000
	TSR TEAM	+82-2-2096-4750
	FAX	+82-2-779-3045
	사이트	http://sjl.co.kr/
	알마티 법인주소	A. Office 1, 2th floor,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Altynkol station, Panfilov district, Almaty region
	알마티 TEL	+7-777-131-8844
	아스타나 법인주소	A. #18, Batyira 48., Street Bogenbay, Astana, Kazakhstan
	아스타나 TEL	+7-717-295-2027
씨엔코리아 로지스틱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10 서일빌딩 5층
	TEL	+82-32-463-6770
	알마티 TEL	+8-(702) 322-23-42
	E-mail	0324636770@hanmail.net

## 2. 환경 분석

### 가. 물류 개선 추진 현황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국가 기반 구축 프로그램인 ‘누를리 졸’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운송·물류 인프라, 산업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 환경 개선, 주택공급, 사회 인프라,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발전이다.
  - 카자흐스탄이 내륙국이라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야 외부 항구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른바 “통과세” 문제로 인해 서방국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한 편으로 대외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즈니스 오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은 자체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내륙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간 물류 루트 개발 계획이다. 이는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주변 국경부터 카스피해까지 잇는 카자흐스탄 횡단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4년 8월 총 연장 약 1,000km에 이르는 제즈카즈간-베이뉴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아그갈라-수바르콜 구간을 완공하였다. 카자흐스탄 횡단철도가 완공될 경우 유럽행 화물은 TSR이 아닌 중부 관통-베이뉴 루트를 통해 카스피해 연안 횡단이 가능하다.
  - 총 5개 지역인 알마티, 잠블, 남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악토베 주를 관통하며, 구간 개통 시 카자흐 구간 물동량은 연간 최대 3천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유럽 간 운송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카자흐스탄 철도 현황

## 나. 물류 애로 및 개선방안

- 물류 안정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국가별로 들어가는 적정 물량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로 수입되는 물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 냉장·냉동으로 운송해야하는 농식품의 경우에는 TCR 철도를 통한 냉장·냉동 컨테이너 운송이 어려워 트럭킹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나 운송거리가 길어 운송비용 부담이 크다.
  - TSR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냉장·냉동 컨테이너 전원장치가 있는 화물철도를 확보해야 하나 적정 화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이 어렵다.
  - TSR 철도의 냉장·냉동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확보한 경우에도 중간에 전원장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알마티까지의 화물차 배정하기에는 적정물량의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 철도를 통한 운송 루트를 통해 물건을 수출할 경우, 중국 세관을 지나게 되는데 농식품에 대한 중국 통관이 까다로워 신청서류, 금지 물품 등을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간에 중국 통관에 문제가 생겨 반송될 수 있다.
- 카자흐스탄은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를 활용하고 있으며, AEO 획득한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 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은 2017년 4월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협상을 위한 액션 플랜에 서명하였으며, 2019년 4월 누르술탄에서 AEO MRA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에서 관세법 63조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요 확인 사항
    - ①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②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③ 관세 및 세금, 조세 채무, 벌금 부재
    - ④ 행정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⑤ 물품검사 시스템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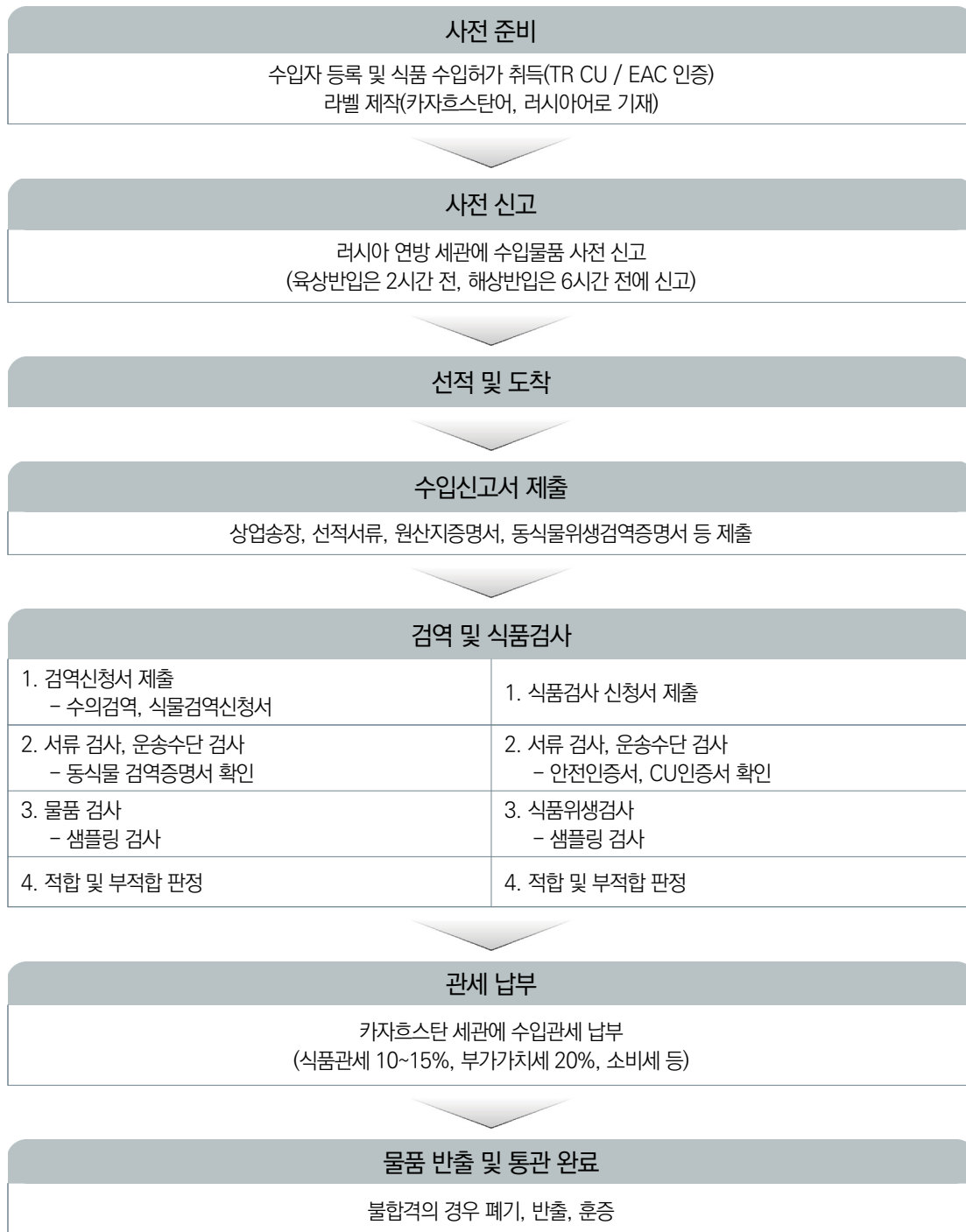
# PART IV

## 제도 및 수출 프로세스

1. 통관 및 검역
2. 라벨링
3. 식품인증제도
4. 통관 애로 및 비관세조치

## 1. 통관 및 검역

### 가. 수출 프로세스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나. 통관 및 검역제도

### 1) 관리체계

#### ■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기구 ■

규제기구명	주요업무
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카자흐스탄 내 수의 현황 감독 - 동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집행 - 카자흐스탄 국경과 내륙의 수의 권한 - 동물 질병으로부터 카자흐스탄 보호
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카자흐스탄 내 식물 위생 현황 감독 - 식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집행
The Committee for Public Health Prote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 식품 위생 담당 -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 판매 금지
The 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투자 발전국 소속 부서 - 제품 평가, 공정, 서비스 등을 관리 - 카자흐스탄의 국가 기준, 인증 표준 적합성 판단
The Committee of State Revenue	- 재무부 소속 부서 - 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관세 시스템을 기반으로 규제·세관 업무 담당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 대외 정책 관련 비관세 규정 담당 - 수입 라이선스, 수입 할당량 등을 결정

출처 : 미국 농무부,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2020. 1. 28.)

- 카자흐스탄은 16개의 지방세관과 103개의 관할 세관이 있으며, 국경 세관으로는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접한 13개 국제세관의 38개의 관할세관, 카스피 해의 2개의 항구세관, 11개의 공항세관이 있다.

### 2) 법률체계

- 카자흐스탄의 식품 수입 관련 법률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문서,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정부 법령, 카자흐스탄 행정기관의 규제 총 4가지가 있다.
-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이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OIE(국제수역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Codex(국제식품규격)와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 2017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협정'에 모두 서명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 신관세법」)이 발효되었으며, 5개의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상호 동일한 특혜 대우를 받는다.

  - EAEU 신관세법은 총 9장 6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관세징수절차, 특별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대상 리스트, 효력을 상실하는 국제조약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AEU 신관세법은 기존 회원국 간 통용되던 세관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며,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 EAEU 신관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신고를 우선하며, 서류신고방식은 예외로 허용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을 요구한다.
  - AEO 공인에 관한 별도 조항이 신설되어 수준별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1종 AEO 공인은 선 보증금 1백만 유로 납입이 필수이며, 6년 동안 규정 준수 시 예치금 15만 유로까지 감소한다. 2종 AEO 공인은 재무제표 안정성 조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보증금 조건은 개발 중에 있다.
  - 수입신고서 제출 후 물품인도까지의 통관기간이 4시간까지 단축될 예정이며, 세관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최대 10일까지 물품 인도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경우 물품 처리 기간을 기존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다.
  - 고위험 품목 및 고위험 수입자 선별관리를 도입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관세 납입 시 선금 납입 후 수입관세 및 통관비용을 사전예치금으로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납입 시 전자서류를 간소화한다. 초과 납입하는 경우 선금 납입 계좌로 자동 환급되며, 납입 금액을 관리 할 수 있다.
  - 수입관세 납입기한 연기 혹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자체 소비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통관 진행 시 1개월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최대 6개월 간 연장이 가능하다.
  - 세관신고 대상 물품 정보에 관한 증명 없이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 통과 단일 창구를 통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경우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 화물 사전신고를 강제신고와 자진신고로 구분하여 이에 알맞은 통관 절차 설계가 가능하다.
  - 보세구역, 무료창고, 특별통관절차 규정이 EAEU 관세법에 통합된다.

## 3) 식물 검역

## 가) 관리체계 및 법률체계

□ 농업부 산하 농업 검역 위원회(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총괄하며,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 감독, 식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출국은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수입된 식품은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차량 국경교차점에서 검역이 진행된다.

## | 식물검역 관련 법률 |

구분	제정	관련법률
EAEU	CU Commission Decision No.318 of June 18, 2010 (as amended through March 17, 2017)	On Assurance of Plant Quarantine in the Customs Union
EEC	No.157 November 30, 2016 (as amended through March 30, 2018)	On approval of the Unified Quarantine Phytosanitary Requirements to Controlled Goods and Controlled Objects at the Customs Border and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No.158 November 30, 2016 (as amended through March 30, 2018)	On Approval of the Unified List of Quarantine Object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No.159 November 30, 2016	On Approval of the Unified Rules and Norms of Ensuring Plant Quarantine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카자흐스탄	No 344 February 11, 1999 (as amended through April 9, 2016)	Law on Plant Quarantine
	No 331 July 3, 2002 (as amended through June 15, 2017)	Law on Plant Protection
	No 15-08/ 590 June 29, 2015	Rules on keeping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rom quarantine objects and foreign species
	No 4-4/66 January 30, 2015	Phytosanitary requirements to imported products of quarantine concern
	No 4-4/282 March 30, 2015 (as amended through June 6, 2017)	List of quarantine objects and foreign species, subject to quarantine measures and list of very dangerous organisms
	February 11, 1999 No 344 (as amended through April 9, 2016)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lant quarantine"
	May 29, 2008 No 515	Requirements on pesticides safety

출처 : 미국 농무부,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20. 1. 28.)

-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식물검역 관련 주요 규범문서 3개를 채택하였고,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 EAEU 회원국들의 식물위생 및 수의(동물) 관리 분야 관련 법률 개발이 시기에 따라 상이하고, 접근방식이 달라 이를 통합하였다.
  - EAEU 통합 검역 대상 목록에 포함된 규제제품은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이동이 금지된다.
  -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농업부 명령 4-4/282호(2015.03.30.)에 따라 자체 검역 해충 목록과 고위험 해충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농업부 명령 4-4/66호(2015.1.30.)는 수입식품 검역에 대해 EAEU와 국제요건을 맞추어 카자흐스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체 검역 해충 목록과 고위험 해충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 이동하는 규제물품에서 통합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에는 가공,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용기 포함) 처리된다.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은 수출국 및 재수출국 식물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식물위생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은 식물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이동이 가능하다.
  -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란에는 규제제품이 본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검역 유해 생물체 무발생 지역, 생산 장소 및 생산 포장에서 생산됐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식물위생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허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자동차 운전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 국제 우편으로 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꽃다발 3개 이하의 화훼류, 1개 이하의 멜론, 수박, 호박, 총중량 5kg 이하의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이 있다.
- 식물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우편을 포함하여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자동차 운전자의 핸드 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이동하는 종자 재료 및 재식 재료(씨감자 및 식용감자, 종자 개량용 및 학술연구 목적용 재료 포함)가 있다.
- 학술연구 목적으로 살아있는 검역대상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대상의 반입이 계획되어 있는 연합의 회원국의 식물 검역 기관의 허가에 따라 과학학술기관에서 수행한다.

나) 신선농산물 수출 검역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식 확인된 수출 가능 품목은 사과, 배, 감자, 양배추 종자가 있다. 이 외에는 수출 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2019년 8월 8일에 개정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식물 위생검역 요건에 따르면 수출 검역증명서의 ‘부가사항’란에 각 품목별 검역 유해 생물체의 무검역 혹은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변경사항(일부) ▣

규제 제품	위생증명서에 부기해야 될 사항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파파야	<i>Bactrocera dorsalis</i> , <i>Ceratitis capitata</i> 가 없어야 함
포도	<i>Ceratitis capitata</i> , <i>Cuscuta spp.</i> 가 없어야 함
딸기의 열매	<i>Drosophila suzukii</i> , <i>Colletotrichum actatum</i> 무발생 지역, 생산 장소 및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바나나	<i>Thrips hawaiiensis</i> , <i>Spodoptera littoralis</i> 가 없어야 함

\* 2019년 8월 8일 개정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검역제도 및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2020년)

다) 식물검역절차

- 수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후 검역확인서 및 위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관 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식물 검역 절차와 세부 내용 ▣

순서	내용
1	식물 검역에 관한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운송 : 검역을 위한 수입식품은 콜드 차량, 등온차량, 봉인된 컨테이너, 밀봉 포장된 상태 등으로 수송해야 함
2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카자흐스탄 차량 국경교차점을 통해서만 수입되어야 함 : 식물위생검역소에서 첫 번째 검역, 목적지 도착 시 두 번째 검역을 함 : 서류검토 → 운송수단 검사 → 검역대상품목 검사 및 식물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실행
3	농업부에서 No4-4/66(2015.01.30.)에 따라 관련 절차를 통과 시 검역확인서(Act of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 발행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4) 식품검사

## 가) 농산물

- 관세 동맹 위원회 결정 318호(2017.3.17. 수정)에서 관세동맹 국경 세관에서의 식물검역 규제 절차에 대한 규정과 식물검역 규제 대상 품목(물질, 상품)을 규정했다.

## | 위험군 별 제품 목록 |

구분	규제 대상
고위험군	대부분의 구근, 살아있는 식물, 신선 화훼, 채소, 과일, 종자 등
저위험군	건조 및 반가공된 농산물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나) 축산물

-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의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에 따라 검역 규제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규제 대상인 모든 품목은 일반적으로 수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 이는 동물을 원료로 하는 비가공 식품이 생산·저장·운반·판매·처리 과정이 현 기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와 수의학적으로 동물의 생산시설이 안전한지를 확인한다.

## | 수의 규제 품목 |

수의 규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있는 동물(농업용, 가정용, 야생, 동물원, 바다, 상업용 모피, 서커스, 실험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li> <li>- 살아있는 새(가정용, 야생, 장식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새)</li> <li>- 종자와 배아</li> <li>-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육류제품</li> <li>- 계란 및 계란 가공식품</li> <li>- 동물을 원료로 하는 물질</li> <li>- 애완동물 식품을 포함한 사료 및 사료 첨가물</li> <li>- 동물사료를 포함한 수의 목적의 콩과 채소</li> <li>- 어류, 해산물 및 가공제품</li> </ul>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수입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인증서를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하며, 카자흐스탄 경제부(The Kazakhstan Ministry of National Economy)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15 영업일 이내에 수입 인증서를 발급한다.
  - 카자흐스탄의 수입쿼터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생고기,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류 수입에 관세 할당제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 2. 라벨링

### 가. 라벨링 규정

- 카자흐스탄의 라벨링 제도는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식품 라벨링에 대한 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2/2011)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에 통합 적용되고 있다.
- 표기 시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 식품은 제조 일자, 유통기한, 보관 및 취급방법에 관한 설명, 영양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 ▮ 포장식품 라벨 표기사항 상세 ▮

구분	내용
1)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원료와 관계가 있고, 식품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 다른 식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함</li> <li>- 특수가공(훈제, 절임, 분쇄, 동결건조 등)한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li> <li>- 식품에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맛(with the flavor of)’, ‘~향(with the aroma of)’와 같이 표기하여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었음을 표시</li> </ul>
2) 식품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성분 기재 시 질량의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양부터 순서대로 기재</li> <li>-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산도조절, 유화제 등)과 명칭을 기재해야 함</li> <li>- 복합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복합되어 있는 모든 성분은 괄호 안에 추가로 기재해야 함. 단, 복합 성분이 2% 이하일 경우,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약초, GMO 원료에서 나온 의약품 식물 성분, 생물 활성 물질 및 식품 첨가물의 성분을 제외하고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li> <li>-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정보를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페닐알라닌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해야 함</li> <li>- 염료를 함유한 식품의 경우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li> <li>- 다음과 관련하여 식품 성분 목록을 표기할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딸기를 포함한 신선과일과 감자를 포함한 채소(껍질을 벗기지 않고, 유사한 방법으로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것)</li> <li>② 다른 재료 첨가 없이 한 종류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서 얻은 식초</li> <li>③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li> </ul> </li> </ul>
3) 식품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용량은 용량(밀리리터, 센티리터, 리터), 중량(그램, 킬로그램) 또는 개수 단위로 표기하며, 약어로 표기 가능</li> <li>- 계란, 과일, 채소 등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은 용량을 표기할 필요 없음</li> <li>- 액체인 경우 질량을 명시</li> <li>- 점성, 끈적임이 있는 반죽은 부피 또는 질량을 명시</li> <li>- 고체 및 고체와 액체 혼합물일 경우 질량을 명시</li> <li>- 두 가지 값을 동시 사용 가능</li> <li>-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수 또는 수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불가함</li> </ul>

## 카자흐스탄

구분	내용
4) 제조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 일자 표기</li> <li>-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은 함께 표기되어야 함</li> <li>- 제조 일자는 생산 일자(Production date)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 가능</li> </ul>
5)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 일, 월</li> <li>-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 월, 연도</li> <li>-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일, 월, 연도 또는 월, 연도</li> <li>- 유통기한은 "best before", "Pass", "best before end"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 가능</li> </ul>
6)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특수한 보관조건 또는 사용 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li> </ul>
7) 제조자/전권대표/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의 공식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제3국에서 제공되는 식품일 경우 수입업체의 상호와 주소 역시 기재해야 함</li> </ul>
8) 권고사항/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으면 섭취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식품의 성분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을 표기해야 함</li> <li>- 150mg/L를 초과하는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나 약용 식품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한 양에 해당하는 성분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으며 임신 및 수유 중인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표기</li> </ul>
9) 영양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양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li> <li>- 관세동맹의 품목별 규정에서 별도 규제가 없을 시에는 향미증진제, 감, 커피, 천연 미네랄워터, 병포장 생수, 식품첨가물, 신선 농수산물, 맛소금, 향료, 양념, 식초, 차 등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li> <li>- 식품 영양값은 100g, 100ml 또는 1인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li> </ul>
10) GMO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 함유량이 0.9% 이상인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유전자변형물질에서 나온 식품(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음(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li> </ul>
11) EAC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 3개의 철자 'E', 'A', 'C'를 합하여 'EAC'로 표기</li> <li>- 유라시아 적합성을 의미</li> <li>- 제품이 관세 동맹국 기술 규정의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li> </ul>

출처 : 미국 농무부,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20. 1. 28.)

라벨링 샘플

라벨링 사진	내용
	① 영양 정보
	② 식품 성분
	③ 보관방법
	④ 식품 용량
	⑤ 권고사항/제한사항
	⑦ 제조업체 정보

출처 : RUVENS

□ 식품 유형의 이름으로 대체 가능한 성분들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유형의 이름으로 대체 가능한 성분 ▮

성분 유형	식품 유형의 이름
Refined oils of fats	oil or fat with indication of origin : vegetable or animal
Compressed, extracted of refined cacao butter	Cacao butter
Fruit mixture whose mass fraction constitutes not more than 10% of food products	Fruits
Berries mixture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Berries
Candied fruits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uccade
Vegetables mixture constituting nor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s
Natural honey of any kind	Honey
Flour mixture of two or more grain types	Flour with the indication of grain types of which it is produced, depending on the mass fraction there of, highest to lowest
Starch and starch modified by physical aid or ferments	Starch
Fish of any type	Fish
Edible cooking salt(sodium chloride)	Salt
Cheese or cheese mixture	Cheese
Milk protein, caseins, caseinates, whey protein and their mixtures	Milk protein
Vegetable herbs constituting nor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 herbs
Spices constituting not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pices of mixtures of spices
Source substanc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chewing gum	Rubber basis
Sucrose of any type	Sugar
Anhydrous glucose of glucose monohydrate	Glucose
Treacle of any type	Treacle or glucose syrup
Grape wines	Wine
Cereal of any type	Cereal
Soya protein(isolate concentrates)	Soya protein
Egg products of any type	Egg products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http://www.eurasiancommission.org))

■ 분류별 라벨링 규정 ■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가공이 일체되지 않고 포장 없이 판매되는 신선 농식품의 경우 라벨링 규제 범위에서 제외됨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 (TS CU 022/2011)에 따라 축산물 라벨링 적용	사전포장 된 가공식품은 식품 라벨링에 대한 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2/2011)에 따라 표시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나. 식품첨가물 규정

- 식품첨가물 규정은 ‘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9/2012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 안전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가 TR CU 029/2012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에 마크 부착이 불가하며,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
  - 관세동맹의 단일 관세 영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서류와 출처, 추적 가능한 정보, 보관조건,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 식품 생산과정에서 식용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 ■

1. 미가공 식품	13. 코코아 제품, 초콜릿과 자성분 및 기타제품
2. 우유, 멸균 또는 살균 밀크 초콜릿 착향	14. 파스타
3. 미착향된 유제품, 버터밀크	15. 로스팅된 커피, 치커리, 차 및 이의 추출물, 우리거나 혼합을 위한 차, 채소, 과일, 2차 가공재료 제품
4. 미착향된 보존 또는 농축 우유, 크림	16. 맥아 및 맥아음료
5. 신선, 건조 또는 캔포장 채소(올리브 제외), 과일, 버섯, 생선(튀레와 페이스트 포함)	17. 고추 및 고추 혼합물
6. 달걀 및 달걀제품 (부활절계란 착색의 경우 특정한 식용색소로만 껍질 착색 가능)	18. 소금, 소금 대체제
7. 다른 원료를 첨가하지 않은 원상태의 육류, 가금류, 생선, 갑각류 또는 그 일부	19. 생수
8. 밀가루, 곡물, 전분	20. 와인, 과일주, 식초
9. 신선, 건조 또는 통조림 채소, 과일, 버섯, 생선(튀레와 페이스트 포함), 즙 제품(주스 드링크 제외), 파스타, 으깬 감자	21. 오일과 동물지방, 식물성 기름 및 냉동 압착 식품
10. 토마토 페이스트와 소스, 통조림 감자	22. 숙성 및 미숙성 치즈 향
11. 설탕, 포도당, 과당, 락토스	23. 빵
12. 꿀	24. 3세 미만의 건강하거나 병약한 유아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문화된 식품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Ⅱ 식품 생산 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일부) Ⅱ

색인	첨가물 명칭	주요 기능	사용 식품	허용 한도
E1503	Castor oil	피막제, 고결방지제, 증량제	카카오 및 초콜릿 제품	350mg/kg
			설탕 과자	500mg/kg
			츄잉껌	2.1g/kg
			생리활성 식이보충제	1g/kg
E530	Magnesium Oxide	고결방지제	Technical Document 기준	TD 기준
E900	Polydimethylsiloxane	기포제, 유화제	특별용도지방, 튀김용 식물성 유지	10mg/kg
			과일 및 채소가공품: 보존처리 및 저온살균	10mg/kg
			잼류: 마멀레이드, 젤리, 버터링을 위한 마멀레이드 및 유사 과일 기반 제품 (저칼로리 포함)	10mg/kg
			설탕과자(초콜릿 제외)	10mg/kg
			츄잉껌	100mg/kg
			압출된 곡물제품	10mg/kg
			수프와 브로스, 통조림	10mg/kg
			청량음료: 진한 맛 향 첨가	10mg/kg
			와인, 사이다	10mg/kg
			빵, 가금류, 해산물을 포함한 반죽	10mg/kg
	향료	10mg/kg		
E314	Guaiac resin	산화방지제	츄잉껌	1.5g/kg
E392	Extracts of Rosemary	산화방지제	식물성 기름(올리브오일 제외), 특수지방, 유지방 대체품 등	30mg/kg (지방제품)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마요네즈, 식물성기름	100mg/kg (지방제품)
			제과류: 버터 베이커리제품	200mg/kg
			수프와 브로스(농축)	50mg/kg
			식용가공품: 건조 육류	150mg/kg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향미물질로 사용이 불가능한 화합물 ▣

1. 아가리산산(agaric acid)	9. 메틸유게놀(4-allyl-1, 2-dimethoxybenzene)
2. 베타아사론(beta-asarone)	10. 풀레곤(pulegone)
3. 하이퍼리신(hypericin)	11. 샤프롤(1-allyl-3, 4-methylenedioxybenzene)
4. 캡사이신(capsaicin)	12. 청산(hydrocyanic acid)
5. 바신	13. 투우존(alpha & beta)
6. 쿠와신(quassin)	14. teukrin A
7. 쿠마린(coumarine)	15. 에스트라골(1-allyl-4-methoxybenzene)
8. 멘토피란(menthofuran)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소매가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

산 및 산도조절제	탄산수소나트륨(E500ii, 베이킹소다), 구연산(E330), 이산화탄소(E290)
이스터에그를 포함한 색소	azorubin(E122), anthocyanins(E163), yellow “sunset” FCF(E110), quinoline yellow(E104), Green S(E142), indigo car mine(E132), carmine(E120), carotene, tsderivatives(E160), Ponce4R(E124), brilliantblueFCF(E133), atentedbluceV(E131), tartrazine(E102)
감미료	aspartame(E951), acesulfame potassium(E950), aspartame, acesulfame-salt(E962), isomalt(E953), xylitol(E967), lactitol(E966), maltitol(E965), mannitol(E421), neogisperidin dihydrochalcone(E959), saccharin, its sodium, potassium, calcium(E950), sorbitol(E420), stevia, stevioside(E960), sucralose(E955), thaumatin(E957), cyclamic acid, its sodium salt, calcium(E952), erythritol(E968)
기타 식품첨가물	benzoic acid(E210), sodium benzoate(E211), potassium benzoate(E212), calcium benzoate(E213), sorbic acid(E200), sodium sorbate(E201), potassium sorbate(E202), calcium sorbate(E203), 9% aqueous solution(maximum) acetic acid(E260), flavor enhancers and flavor: glutamic acid(E620), sodium glutamate(E621), potassium glutamate(E622), calcium glutamate(E629), guanylic acid(E626), sodium guanylate(E627), potassium guanylate(E628), calcium guanylate(E629), inosinic acid(E630), sodium inosinate(E631), potassium inosinate(E632), calcium inosinate(E633), 5'-ribonucleotide calcium(E634) and 5'-ribonucleotide sodium(E635)은 관세동맹회원국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3세 이하 특별유아식품의 식품첨가물 규정(일부)

색인	식품첨가물 명칭	사용 식품	허용 한도
E401	Sodium alginate	특수용도식품: 대사장애의 4개월 이상 영유아에 튜브를 통해 공급하는 식품	1g/L
E412	Guar gum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액상 혼합물 (영아용 가수 분해단백질, 펠티드, 아미노산 함유)	10g/L
E466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salt	영아용 조제식	20g/L
E1450	Starch and octenyl acid ester	특수용도식품: 대사장애의 영아용 식품	10g/L
E415	Xanthan gum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저단백질 특수 식품	5g/L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식품첨가물 추가 요건

-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 및 이들이 함유된 식품에는 반드시 관세동맹의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 ① 본 기술규정의 부록2에 따라 식품 첨가제 명칭에 “식품 보조제”(복합식품 보조제) 단어, 식품 보조제, 또는 첨가물 등급, 식품과 첨가물 명칭, 또는 국제디지털시스템(INS)이나 유럽 디지털 시스템(EAN)에 의거한 식품첨가제 색인이 들어가야 한다.
  - ② 향료의 명칭에는 “향료”(또는 “향”이나 “착향 전처리” 또는 혼제향, 또는 Thermal Technology 착향, 또는 “예비향”)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 ③ 향료에 천연원료에서 추출된 착향제 및(또는) 천연 향료만 함유된 경우 “천연” 단어를 향료에 부가할 수 있다. 발명된 천연향료의 명칭을 식품 및 향미료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천연향료에 천연착향료만 함유되어 있고 특정 식품과는 구별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본 기술규정의 부록 21-27에 의거하여 보조수단의 기술적 명칭에는 “가공보조제”라는 단어와 보조공정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효소 전처리 라벨에는 요소 형태의 미생물 활동 유형, 원료 등에 대한 추가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 ⑥ 효소 전처리 과정이 개입된 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 종류 및 이러한 억제 생산자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 보조제의 경우 라벨에 반드시 “소매용이 아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 ⑧ 식탁용 감미료의 경우 일일 안전 소비량을 명시해야 한다.
  - ⑨ 착색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라벨에 약물의 종류(엑기스, 에센셜 오일, maslosmoly 등) 또는 “천연향료”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 ⑩ 착향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향료를 구성하는 착향물질, 또는 착향제를 생략할 수 있다.
  - ⑪ 이산화황 함유량이 10mg/kg 미만인 식품의 경우 이산화황 보존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⑫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의 라벨 전달 방법은 반드시 납품용기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관세동맹의 “식품 마킹 관련” 기술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다. 유해물질 규정

- 카자흐스탄의 유해물질 규정은 ‘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9/2012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 보조제 안전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수입식품은 관세동맹 국가로 반입되기 전에 단일위생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유통되는 식품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조업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 식물성 원료에는 경작 및 방역을 하거나 해당 원료를 유해성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에 관한 정보(혹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 동물성 원료에는 가축 및 조류의 체외 기생충, 질병 퇴치, 가축 및 조류 사육 공간, 물고기 양식 공간의 방역을 위해 사용된 살충제와 가축, 조류, 양식장 내 물고기의 질병 퇴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기재된 조류의 먹이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 살충제 혹은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 혹은 미사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는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 냉동 이외의 조리된 고기, 기계로 뼈를 제거한 가금류의 고기, 조류 고기로 만든 콜라겐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라. 알레르기 규정

- TR CU 022/2011에서는 제 14조와 15조에 알레르기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2번의 아스파르테임과 아스파르테임-아세실팜염 정보를 제외하고 식품의 라벨링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다만 성분 지정 후 식품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페닐알라닌의 원료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 아래 성분이 식품 제조에 포함되지만 그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함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성분

- |   |                                    |
|---|------------------------------------|
| 1. 땅콩 및 그 제품                                | 2. 아스파르테임과 아스파르테임-아세실팜염            |
| 3. 겨자 및 그 제품                                | 4. 이산화황, 황산염(kg 혹은 L당 10mg 이상인 경우) |
| 5. 글루텐 및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및 제품                   | 6. 깨 및 그 제품                        |
| 7. 루핀 및 그 제품                                | 8. 조개류 및 그 제품                      |
| 9.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10. 견과류 및 그 제품                     |
| 11. 감각류 및 그 제품                              |                                    |
| 12. 어류 및 가공 제품(비타민 및 카로티노이드에 함유된 어류 젤라틴 제외) |                                    |
| 13. 셀러리 및 그 제품                              |                                    |
| 14. 콩 및 그 제품                                |                                    |
| 15. 달걀 및 그 제품                               |                                    |

출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www.eurasiancommission.org)

- 곡물 성분을 포함하는 시리얼의 경우, 글루텐 혹은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마. 원산지 적용 기준

### 원산지 규정 구분

특혜원산지 규정	1) 특혜원산지 규정	FTA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
	2)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에게 적용
3) 비특혜원산지 규정	관세, 수입제한, 원산지 표시 등을 위해 원산지를 구별하는 제도	

출처 : WTO 'Trade policy review 2016'

### 1) 특혜원산지 규정

- 현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EA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이며,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EAEU-베트남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 ①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물품을 완전히 생산해야 함
- ② 직접운송원칙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 중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함
- ③ 부가가치기준은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임
- ④ 부속서 3에는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됨
- ⑤ 부속서 5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과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 ⑥ 원산지증명서인 Form EAV를 발급받아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⑦ 전자시스템(EOCVS) 이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 적용 가능

□ 불인정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미한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
- ② 운송이나 보관하는 중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공정
- ③ 얼리거나 해빙
- ④ 포장하거나 재포장
- ⑤ 먼지를 없애거나 세척, 산화, 채색, 청소
- ⑥ 다림질하거나 누르기
- ⑦ 채색, 광내기
- ⑧ 곡류의 부분 또는 전체 탈각, 연마, 도정
- ⑨ 설탕이나 각설탕의 채색이나 공정
- ⑩ 견과류, 과일, 채소의 씨 제거하거나 껍질 벗기기
- ⑪ 단순한 연마, 절단
- ⑫ 단순한 분류 및 구분
- ⑬ 병, 캔, 가방, 케이스, 박스, 표면 고정 같은 단순한 포장 공정
- ⑭ 물건 포장의 표기, 로고
- ⑮ 원래 물품에 변화를 없게 하는 단순한 물품 부품의 혼합
- ⑯ 단순한 물품의 조립과 해체
- ⑰ 동물의 도축

## 2) 일반특혜관세

-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에게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충분가공공정, 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수입자는 수입 신고 시에 일반특혜관세를 요청해야 하며,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인장 및 서명은 불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신청 세관에서 수기인장 날인 및 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비특혜원산지 규정

-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원산지 판명 시에 적용하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전 생산과정에서 당해 국가만의 재료를 사용한 것이며, 실질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 원산지증명서 종류 중 기본형은 크게 CT-1형, CT-2형, A형, EAV형, 일반형으로 나뉜다. CT-1형은 CIS 국가와 조지아, CT-2형은 세르비아, A형은 EU국가, 터키, 미국, 캐나다, 몬테네그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해당된다. EAV형은 FTA 협정국인 베트남에 해당되며, CT-1,2와 A형, EAV형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일반형에 해당된다.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 카자흐스탄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외교부 지침(July 8, 2014 No.27)에 따라 신청 후 영업일 2일 이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엔 전문검사관이 방문하여 상품을 검사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증명서는 1영업일 이내에 발급 된다.

### 5) 개인용 국제 배송제품 과세 및 휴대 반입 과세기준

-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 국가 외의 Alibaba, Aliexpress, Amazon, eBay와 같은 EAEU 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부터 국제 배송제품의 과세기준은 2019년까지는 건당 500유로 초과 시 월 1건에 대해서만 초과 금액의 30% 과세가 부과되었다.
  - 2020년부터는 200유로 초과, 무게 31kg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 또는 초과무게 1kg 2유로 부과되 두 개 항목 모두 초과 시 과세액이 높은 기준으로 부과하며 월 1건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년 과세기준이 강화됐지만, 소액구매가 많은 소비자로서 월 면세 수취 건수 제한이 사라진 현 과세기준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휴대 반입 시 식품은 소규모 무역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70kg의 휴대 반입품은 무관세이며 270kg까지는 기존 수입관세율의 1/2 수준을 적용한다. 식품류는 제한 없이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회사 운영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 및 외국인 근로자 개인 반입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 휴대 반입인 경우 1인당 음식은 10kg 이하는 가능하나 수입금지 질병이나 해충이 있는 식물을 포함한 토양은 반입이 금지된다.

### 3. 식품인증제도

- 카자흐스탄은 2013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라시아경제 연합의 공동기술규정(TR-CU,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을 따르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식 출범 이후 공동 기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기술계량위원회(The 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에서 공동 기술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토 내로 제품을 반입,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동기술 규정에 따라 모든 신선 및 가공식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처리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필요하며,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동인증마크인 EAU(Eurasian Conformity)를 표기한다.

  - EAU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모든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적합성 인증은 제품의 용도, 환경, 사양,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적용 되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과 비식품에 적용되는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과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으로 구분된다.

#### ■ 적합성선언(DoC) 절차 ■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류 준비 및 자기선언서 작성	제조업체	2-3주	제출서류는 하기 참조
2	평가원의 방문 평가 수행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3	EAC 마크 부착	제조업체		-
4	자기 선언서 온라인 등록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출처 :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

#### 가. TR CU 인증

- TR CU(Technical Regulations of Customs Union)는 기존의 관세동맹 3국(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의 인증 제도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기존의 카자흐스탄 인증제도(GOST-K)는 2015년 3월 15일부터 TR CU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 TR CU의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 마크 없이는 통관과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품목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인증 대상이다.

### TR CU 구분

One-shipment	Serial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발성 계약 시 적합</li> <li>- 관세 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 법인, 지사, 수입업자 또는 딜러와 실질적인 수출업자(제조업체) 간 계약서 바탕으로 발행</li> <li>- 반드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 첨부</li> <li>-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기간까지 유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 수출과 다수와의 계약 시 적합</li> <li>-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인증</li> <li>-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한정 수량에 대한 인증</li> <li>- 제조업체의 QMS와 사후 공장심사가 요구</li> <li>- 사후 공장심사 중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서 취소</li> </ul>

출처 : 세린스 Cerins(www.cerins.net)

- 신청자는 관세 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 딜러이며, 연속 인증의 경우 샘플 테스트 또는 공장심사가 필수이다. 전체 필요서류 제출 및 공장심사 후 2주 정도 소요되나 제품 특성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인증기관이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공인된 인증 대행 발급기관을 통해 인증을 대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이 이를 대행하고 있다.

### 나. GMO / 유기농

- 카자흐스탄은 소득수준이 낮지만 유기농 식품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유기농산물 시장 크기가 크다.
- GE(Gene Engineering) 성분이 있거나 GE 재료로 가공된 제품의 경우에는 라벨에 'GMO 제품' 또는 'GMO로부터 얻은 제품'임을 카자흐어 혹은 러시아어로 표시해야 하며, 최대 0.9%까지 허용된다. TR TS 022/2011에 따른 GE 라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GE 라벨 규정

구분	표시명
독자 생존하는 GE 성분 포함	Product contains live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독자 생존할 수 없는 GE 성분 포함	Product is obtained based on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E 성분으로 얻은 제품	Product has components that are obtained based on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출처 : 미국 농무부,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20. 1. 28.)

- TR TS 015/2011에 따르면 GE 유기체/라인이 0.9%보다 높을 경우,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곡물/유류에는 추적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선적 문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등록된 GE 라인만 포함할 수 있으며, 미등록 GE 라인이 0.9%를 넘을 시에는 GE 와 Non-GE 제품 모두 금지 된다.
  - 2017년 EEC는 GMO 마크를 부착하도록 TR TS 022/2011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8개월의 잠정 기간을 설정했다.
- 카자흐스탄 내 승인된 GMO 작물은 옥수수 14종, 감자 2종 쌀 1종, 대두 8종, 사탕무 1종이 있다.
- 2015년 11월 27일 유기농 생산법 423-V호를 승인하면서 유기농 제품의 제조, 보관, 운송, 라벨링 및 마케팅을 규제하는 체계를 설립했다. 그러나 공식 인증 유기농 생산자 명단, 유기농 제품 수입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률 등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 유기농 생산자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식이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축산 첨가물의 사용은 허용된다.

#### 다. 할랄

- 카자흐스탄의 할랄 식품시장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공식 인증기관이나 규정은 아직 없지만, 카자흐스탄 할랄산업협회(AHIK; Association Halal Industry of Kazakhstan)와 할랄 다무(Halal Damu)에서 운영 중에 있다.
  -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 할랄 인증 신뢰도 자체가 낮다.
- 2011년 현지 할랄 인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할랄 식품의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무슬림 신자와 관련 기관 측에서 공식 인증 기관 및 연구소 설립 등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무슬림 신자의 경우 불분명한 할랄 기준으로 인해 인증 마크가 있더라도 구매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 무슬림은 할랄 식품에 선입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라. 상표권

### 1)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RPC)를 통한 상표 출원

-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산하의 지식 재산권 보호위원회(IRPC;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가 담당하고 있으며, 우선 등록자 우대 원칙이 적용된다.
  - 카자흐스탄의 법률 제 11조 1항 'On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Appellations of Origin'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서와 첨부 문서는 국영기업 NIIP(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2부로 제출해야 한다.
  - 상표는 기호, 어휘, 알파벳, 기타 기호, 색상 혹은 상표로서의 조합이며,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 가능해야 한다.
  - 예비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실시하며,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유무를 확인한다. 심사신청서 접수 또는 절차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전체심사는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청구된 마크가 카자흐스탄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 상표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5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매회 10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등록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32,269.44 텡게를 지불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 ■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 목록 ■

1. 상표 심사를 위한 신청서(상표출원자의 위치 및 거주 정보 포함) (서면 제출 시 2부)
2. 상표 이미지(서면 제출 시 3부, 8\*8 사이즈)
3. 국제 분류에 상응하는 제품과 서비스 목록

출처 : 카자흐스탄 특허청(<https://kazpatent.kz/>)

## 2)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를 통한 국제 상표 출원

- 카자흐스탄은 2010년 12월 8일부터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마드리드 제도는 상표권 소유주들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드리드 연합의 회원국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한 번의 제출로 변경, 권리 범위 제한, 등록연장 등의 추가 관리가 용이하다.
  - 신청 유형은 총 3가지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양식 MM1, 프로토콜에 의해서 관리되는 양식 MM2,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해 관리되는 MM3가 있다.
  - 카자흐스탄 사무소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수수료와 3개 이상의 각 등급에 따른 수수료, 보호 연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상표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부과금을 지불하면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 ■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1. 신청서
2. WIPO 사이트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3. 수수료 지불 약속서
4. 영어와 불어로 번역된 제품과 서비스 목록

출처 : 카자흐스탄 특허청(<https://kazpatent.kz/>)

## 마. 특허권

### 1) 카자흐스탄 국내 직접 특허출원

- 카자흐스탄의 특허권은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국영기업 NIIP(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우선권, 저작권, 독점권을 인증한다.
  - 특허 출원 절차는 정밀 조사와 실질 조사로 나뉘며, 정밀 조사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의 요건 준수를 확인한다. 신청서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혹은 누락된 서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 정밀 조사가 끝나면 전문 기관을 통해 실질 조사를 실시하며, 요건을 준수했을 시 출원인은 출원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전문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카자흐스탄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 국제특허조약(PCT)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25일에 국제특허조약에 가입하였으며, PCT 시스템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카자흐스탄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 국영기업 NIIP는 러시아어나 영어로 작성된 국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출원인이 연방국가기관인 '지적재산·특허·상표를 위한 연방산업재산연구소'(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for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를 선정하면 러시아어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유럽특허청을 선정하면 영어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카자흐스탄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3)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 유라시아 특허협정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 직접 출원 시에는 영어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하며,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회원국 경유 출원 시에는 회원국의 언어 혹은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하며, 회원 국가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와 더불어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4. 통관 애로 및 비관세조치

### 가. 통관 애로사항

#### 1) 통관 시스템 문제

- 통관 거부 사례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전 대응이 어려우며, 아직까지 전자 면장을 포함한 EDI가 체계적이지 않아 통관을 위한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다. 통관 창구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통관비용이 발생한다.
- 실제 통관 제품과 서류 내역이 조금만 불일치하여도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세관원들의 월급이 약 월 500달러로 낮기 때문에 통관 시 추가적인 비용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경우, 관세동맹국이므로 무관세인데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여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는 사례도 있으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이 다름을 사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
- 통관 규정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아 수시로 세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하며, 법적 해석과 언어의 모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미국 무역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관세행정 관행이 2019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남아있으며, 수입업자 측은 높은 통관비용, 세관 당국의 투명성 결여, 통관 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문제점으로 선정했다.
- World Bank에서 발간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국제 무역 지표는 2020년 190개국 중 105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9년 102위에서 3계단 하락한 순위이다. 이 지표는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시간과 비용(정부기관으로부터의 허가, 중개인에 의한 통관, 상품의 적재, 운송 및 하역 등)을 포함한다.
  - 현재 '수출입 업무 단일창' 사업 실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전자 인허가를 가능하게 하고, 관세 서비스를 전자 형식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실제 2020년 3월 27일에는 수출입 업무를 위한 단일창 외구 포털이 가동되었으며, 3월 29일에는 농업부 식물 보호제품에 적용, 4월 19일에는 보건부 위생 및 웰빙 제품에 가동되었다.

### 통관 소요시간 및 비용(2017~2019)

(단위 : 시간,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수출 시 소요시간	서류	128	128	128
	국경 통과	133	133	105
수출 시 소요비용	서류	320	320	200
	국경 통과	574	574	470
수입 시 소요시간	서류	6	2	6
	국경 통과	2	2	2
수입 시 소요비용	서류	0	0	0
	국경 통과	0	0	0
총점(점수)		63.1	63.1	70.3
순위		119	123	102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2018, 2019

## 2) 물류 인프라 문제

-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므로 경유국에서 컨테이너 환적 및 통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과의 접경지역이 많고, 운송 도중 도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물품을 수령하여 자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물류비용이 매우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고, 냉장·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 3)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 절차와 비용

- 필수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
  - 카자흐스탄 관세청은 수입품의 HS Code와 상품가를 모두 저장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와 수입신고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면 통관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기준 상품가에 미달될 경우 강제로 관세와 부가세를 징수하여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
  - 컨테이너 도착 전에 수입업체에 증명서가 무조건 발급이 된 상태여야 통관이 진행되며, 품목당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증명서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여러 품목보다는 단일 품목을 대량 수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 매입대금의 결제조건은 매우 좋지 않아 물품 공급 후 40일 이상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식품 수입업체 A에 따르면 납품을 했음에도 대금결제를 몇 달씩 연체한 경우가 있으며, 소송을 해도 실이익이 없어 돈을 받기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나. 비관세조치 현황

□ WTO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SPS(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한 조치)는 51건이다.

■ 2015~2019년 농식품 비관세조치 현황 ■

적용 범위	비관세조치	건수
타 국가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조치 (SPS)	15
	기술장벽 (TBT)	0
상호 협력 국가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조치 (SPS)	36
	기술장벽 (TBT)	0
계		51

\*HS code 1~23 품목 대상  
출처: WTO

■ 농식품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조치(SPS) 현황(2019) ■

No.	적용 국가 및 개시일	설명	적용 품목	비고(키워드)
1	벨로루스 (19. 11. 7)	2019년 8월 19일자 벨로루시 지역의 탄저균 발병으로 8월 19일부터 임시 제한 이후로 살아있는 동물(말, 사슴, 야생동물)의 유입 및 유전 물질, 생분과 발굽을 제한함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 야생 동물, 유전물질, 원료 (불, 발굽), 원료(말, 사슴, 야생동물의)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동/식물 해충 및 질병, 지역화
2	브라질 (19. 8. 15)	2019년 7월 9일자 전염성해면상뇌병증에 취약한 소와 쇠고기, 사료 및 관련 장비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상업용 소 및 생산품, 사료 및 사료 첨가물, 중고 장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전염성 해면상뇌병증, 식품 안전, 인간 건강
3	중국 (19. 10. 16.)	2019년 9월 4일자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등록된 결절성 피부염의 발병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소와 결절성 피부염에 취약한 다른 동물들의 수입과 수송에 대한 일시적인 제약 도입	결절성 피부염에 취약한 소와 다른 동물, 유전물질, 파생된 제품, 관련된 생가죽, 수송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보호
4	이란 (19. 3. 1.)	가금류 관련 수입에 대한 일시적 제한	부화알, 깃털, 가금육류, 열처리(70℃ 이상)를 하지 않은 모든 가금류 제품, 새의 사료 및 사료 첨가물, 도축 및 절단을 위한 중고 장비	동물 질병, 동물 사육,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 카자흐스탄

No.	적용 국가 및 개시일	설명	적용 품목	비고(키워드)
5	이스라엘 (*19. 3. 1.)	농림부 가축관리감독위원회 서한. 구제역 발생이 쉬운 카자흐스탄 국토로의 수입을 일시적 제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우유	동물 질병, 동물 사육,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6	한국 (*19. 4. 5.)	농림부 가축관리감독위원회 서한. FMD (Foot and Mouth disease)에 취약한 동물군과 완제품 등의 일시적 제한	동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관련 완제, 도축 및 가공용 장비,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물	동물 질병, 동물 사육, 동물 건강, FMD, 식품 안전, 인간 건강
7	한국 (*19. 11. 7.)	2019년 10월 3일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발로 인해 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산 돼지, 돼지 고기 등을 카자흐스탄 국토로 수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고기 및 식용찌꺼기, 돼지 배아 및 멧돼지정액, 열처리 (70℃ 이상에서 20분 이 상)를 하지 않은 고양이와 개의 사료첨가물	동물 질병, 동물 사육, 동물 건강, 인간 건강,
8	몽골 (*19. 2. 15.)	멧돼지를 포함한 살아있는 돼지 및 관련 제품의 수입과 수출 일시적 제한	멧돼지를 포함한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고기와 가공품, 멧돼지 정액, 열 처리(70℃ 이상에서 20분 이상)를 하지 않은 고양이와 개의 사료첨가물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9	러시아 (*19. 2. 15.)	농림부 가축관리감독위원회 서한. FMD 발생이 쉬운 카자흐스탄 국토로의 수입을 잠정 제한	동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관련 완제, 도축 및 가공용 장비,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물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10	러시아 (*19. 4. 5.)	2019년 2월 8일자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러시아 연방 보로 네즈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HPAI)가 발생했다고 보고함. 일시적 수입제한	살아있는 조류, 가금육류, 가금류 제품 및 열처리 (70℃ 이상)를 하지 않은 가금류 및 부화란, 깃털, 모든 종류의 가금류 제품, 조류용 사료, 사료 첨가물	동물 질병, 동물 사료,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조류 독감, 인간 건강, 지역화
11	러시아 (*19. 8. 15.)	2019년 7월 9일자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의관리감독위원회 서한, 러시아 연방 사라토프주 국토에 뉴캐슬 질병 발생 보고됨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조류와 부화알 관련 수입 및 수출 일시적 제한	살아있는 조류, 부화알, 깃털, 가금육류, 가금류제품, 도축에 사용된 모든 장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뉴캐슬 질병, 지역화

No.	적용 국가 및 개시일	설명	적용 품목	비고(키워드)
12	러시아 (‘19. 10. 16.)	2019년 9월 26일자 카자흐스탄 농무부 수의관리감시위원회 서한. 수입 및 수출의 일시적 제한	결절성 피부염에 취약한 동물들, 유전물질들, 얻어진 제품들, 취약한 동물 종들, 피혁 물질, 기타 취약한 동물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보호, 지역화
13	러시아 (‘19. 10. 17.)	2019년 8월 22일자 카자흐스탄 농무부 수의관리감시위원회 서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소와 결절성 피부염에 취약한 동물들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도입	소와 결절성 피부염에 취약한 다른 동물들, 유전물질, 가죽 으로부터 얻은 제품, 피혁 물질, 동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보호, 지역화
14	러시아 (‘19. 11. 4.)	2019년 10월 9일자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의관리감시위원회 서한. 수두에 취약한 살아있는 가축의 수입 일시 제한	살아있는 양, 염소, 유전물질, 양으로부터 얻은 제품, 우유 및 유제품, 양과 염소의 가공품(70℃ 이상에서 열 처리를 하지 않은)이 함유된 첨가제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보호, 지역화
15	러시아 (‘19. 11. 7.)	2019년 10월 18일자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의관리감시위원회 서한. 러시아 Zabaykalsky Krai 지방의 뉴캐슬 질병의 발발에 따라 모든 가금류 제품 경우, 수입 일시 제한	살아있는 조류, 부화알, 깃털, 가금육류, 가금류제품, 도축에 사용된 모든 장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인간 보호, 지역화
16	미국 (‘19. 2. 15.)	2019년 1월 21일자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의관리감독위원회 서한 미국 캘리포니아 국토에서 뉴캐슬 질병의 발생을 보고함에 따라 가금류 제한	살아있는 조류, 부화알, 깃털, 가금육류, 가금류제품, 도축에 사용된 모든 장비	동물 질병, 동물 건강, 식품 안전, 인간 건강, 뉴캐슬 질병, 지역화
17	전체 (‘19. 3. 18.)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공통 위생 및 수의학 규정의 수정지침 초안과 관세동맹위원회 결정(No.607 April 2011)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국토로 수입 되는 포인트3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의학적 조치의 결정에 따른	수의 관리 대상 품목	식품 안전, 인간 건강

\* HS code 1~23 품목 대상

출처 : WTO

## 카자흐스탄

## □ 할당 관세

## | 관세할당 현황(2019) |

(단위: 천 톤, %)

품목명	할당량	실제 수입량	비율
신선·냉장·냉동 소고기	21	0.081	0.4
신선·냉장·냉동 가금류 조각	128	125.792	98.3
신선·냉장·냉동 가금류	12	6.481	54

출처 : WTO

- 2019년 4월 10일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4종의 한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식품에는 GMO 성분이 2%~100% 사용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0.9% 미만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중국에 대해 감귤류 과일 작물, 이과류, 핵과 작물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검역대상 중 Citrus blackfly Aleurocanthus woglumi Ashby에 감염된 검역 대상 제품을 카자흐스탄 국토 내로 수입한 사례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공동검역 식물위생요건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카자흐스탄 농업부의 수의 관리 감시 위원회는 2020년 1월 27일 이후, 우크라이나주의 비니치아 주에 대해 새알, 가금육 및 모든 가금류 가공제품 등의 품목에 대해 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비니치아 주에서 발생한 AI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PART V

## 농식품 진출전략

1. 수출 유망품목
2. 수출확대 전략

## 1. 수출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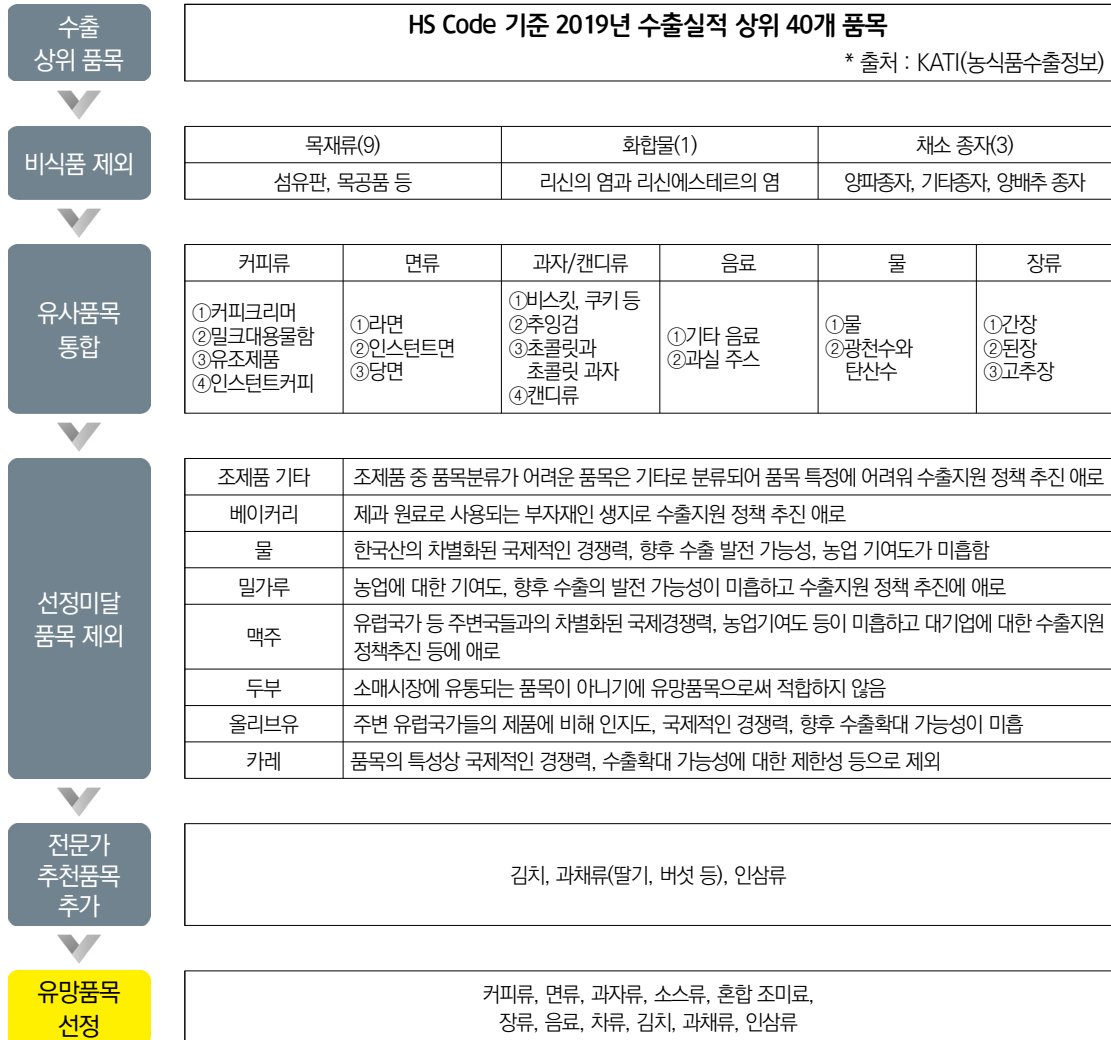
#### 1) 선정기준

☐ 수출금액, 수입시장 규모, 농가소득 기여도, 현지 전문가, 수출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농식품 산업 기여도,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 HS Code 기준 2019년 수출실적 상위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 수출실적이 적어 40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지 전문가와 국내 수출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품목을 최종 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2) 선정 방식



## 나. 유망품목 선정

## |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 |

품목부류	대상 품목	선정 사유
커피류	커피크리머, 인스턴트 커피 등	- D사의 제품을 주축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높고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한국 수입품임 -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되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음
면류	라면, 컵라면, 인스턴트 면류, 당면	- 초기 N사를 기반으로 O사, P사, S사 등 매년 다양한 라면들이 수입 - 저렴하고 맵고 자극적인 맛으로 라면의 인기가 높아 향후 수입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리며 다양한 인스턴트 면류의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과자류	쌀과자, 캔디, 껌류, 초콜릿 과자류 등	- 2~3년간 다양한 과자 및 캔디류가 수입됨 - 지속적 증가 전망임 - 초코OO, 몽O과 같은 초콜릿 과자류의 수요가 높음
소스류	불고기소스, 다시다, 마요네즈 등	- 외식업이 질적으로 상승 중으로 한국 식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유럽식에서 벗어난 아시아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국적인 소스류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혼합 조미료	다시다 등	
장류	간장, 고추장, 된장	- 중국, 러시아산들이 있지만 한국제품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임 - 현지의 선호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음료	알로에음료, 쌀음료, 헛개음료 등	- 알로에 음료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현지 내에서 수입산만이 유통되기에 브랜드, 맛 등이 소비를 좌우하고 있어 국내산 알로에 음료의 국제경쟁력이 있음 - 건강 음료로서 한국음료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므로 현지 선호도가 높은 편임
차류	녹차, 유자차	- 차류를 선호하는 국민성과 한국산 차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유자차의 향과 단맛이 아시아인에게 잘 알려져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인기가 있음
김치	김치	- 현지에서 선호하나 시중에 판매상품이 없음 - 수출실적은 미약하나 현지 한식당 및 현지 교민 위주의 수출 가능성이 큼
과채류	딸기, 버섯	- 한국산 과채류들의 현재 수출금액은 매우 낮으나 항공운송이 가능하여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 창출이 가능하므로 수출 전망이 밝음
인삼류	인삼/홍삼 가공 캔디 및 농축액	- 건강, 유기농 관련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당 품목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수출확대 전략

### 가. 3C 분석

<p>Customers : 고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현재 인구 1,863만 명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 있고 1인당 GDP 9,139달러('19)로 중앙아시아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잠재시장의 규모가 큼. 또한 고려인이 10만 명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li> <li>○ 10세 미만이 전체의 20.6%로 비중이 가장 높고 10~20대가 28.8%로 30세 미만의 인구가 50%를 달하는 인구 성향이 젊은 국가임</li> <li>○ 다민족 국가로 인해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세계의 각국의 음식을 대표하는 식당이 성업 중임</li> <li>○ 한국식품은 라면, 과자, 음료, 소스류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높아 중상류층 이상 고소득층이 한국식품의 주요 소비층이고 한인 마켓의 고객의 80%가 현지인이고, 20%가 한국 교민임</li> <li>○ 과거의 가격 위주의 구매패턴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고품질 웰빙 식품 위주의 구매패턴으로 변함. 또한,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가 퍼지면서 가공식품의 구매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li> <li>○ 현대적 소매 채널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적 소매 채널인 바자르를 선호함. 최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옴니채널로 전환하는 추세임</li> </ul>
<p>Competitors: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CIS 국가, 중국의 농식품 유통이 가장 많으며 러시아를 경유한 유럽제품도 유통되고 있으나 러시아어 표기 제품을 선호하는 편임</li> <li>○ 인접국인 CIS 국가와 러시아와는 관세동맹으로 무관세 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정식통관 없이 유통시킨 저품질 저가격 상품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li> </ul>
<p>Company :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은 주로 TSR, TCR 철도를 거쳐 유통되므로 물류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드는 구조로 최근에는 주로 중국을 거쳐 물류가 이루어짐</li> <li>○ 한국식품의 경우 라면, 커피, 과자류, 음료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며 신선식품의 경우 수출이 거의 없는 편임</li> <li>○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 할랄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임</li> </ul>

나. SWOT 분석 및 최적 전략

강점(Strength)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민소득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임</li> <li>○ 한류와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 요인 등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li> <li>○ 라면 등의 시장 선점과 한국산 품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믿음과 선호도 증가</li> <li>○ 제조업 기반이 약해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경제력 성장 속에 식품 구매력 성장세 유지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li> <li>○ 현대식 유통매장의 확대로 다양한 가공식품과 한국식품에 대한 접근성 용이</li> <li>○ 카자흐스탄 내 인터넷 보급률 증대 등으로 온라인 시장 확대</li> <li>○ 중국산의 저렴한 가격에도 한국산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 구매수요가 증대</li> </ul>
약점(Weakness)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국가로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불가피</li> <li>○ 불명확한 행정, 통관 체제 상존, 각종 인증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추가비용 부담</li> <li>○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된 국가 간의 무관세 조치로 한국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산 및 CIS국가 제품 선호</li> <li>○ 국내 식품생산 기반 강화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 OEM 생산 제품과의 경쟁</li> <li>○ 운송기간 장기소요 및 물류비용 부담 과중, 냉장·냉동 식품의 물류기반 취약</li> <li>○ 적은 인구 규모와 저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식품 수요 감소</li> </ul>

<b>SO전략</b> (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한류와 한국산에 대한 고급이미지를 바탕으로 'Made in Korea'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li> <li>○ 한국식품의 판촉전 개최 및 시식 행사 등 프로모션을 확대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및 GOST-K(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인증 획득으로 신뢰도를 높임</li> </ul>
<b>WO전략</b> (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고급화 이미지 전략으로 젊은 여성 및 고소득층을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 활동 강화</li> <li>○ 한·EAEU FTA체결 및 EEU통관조약 신규체결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li> </ul>
<b>ST전략</b> (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인들의 소비문화 및 기호에 적응한 패키징 등 포장 개선으로 제품의 고급화</li> <li>○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대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상류층 고객 대상 고급 프리미엄마켓 집중 공략</li> </ul>
<b>WT전략</b> (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개선을 위한 항공운송방안,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동물류를 위한 포딩사 선정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li> <li>○ 자국 생산이 어렵거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제품을 위주로 고품질 프로모션 전략 수립</li> </ul>

Key Word(핵심단어)

한류, 'Made in Korea', 할랄 인증, 프로모션, 홍보확대, 물류 개선, 차별화, 고품질

## 다. STP 심층 분석

<p>Segmentation (시장 세분화)</p>	<p>1) 소비자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분류, 연령별 분류, 소득층 분류 등</li> </ul> <p>2) 시장의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계 마켓, 현지 주요 마켓인 바자르 및 현대식 마켓, 할랄 시장 등</li> </ul>
<p>Targeting (목표시장 설정)</p>	<p>1) 소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류층 이상,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선정</li> <li>○ 건강에 관심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으로 유기식품 및 건강식품을 집중 공략</li> </ul> <p>2) 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으나 한국산 식품의 경우 '안전하다'라는 현지 인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안정성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전통식 유통업체보다는 현대식 유통업체 활용하여 현지마켓 이용자를 공략</li> </ul> </li> <li>○ 70%에 달하는 인구가 이슬람인 것을 감안하여 할랄 인증을 활용</li> </ul>
<p>Positioning (제품 포지셔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CIS 국가, 러시아산 《 터키산, 한국산 《 일본산, 유럽산</li> </ul> </li> <li>○ 일정한 품질 유지를 통해 중국산과의 품질을 차별화 하고 중국산보다는 높은 가격의 고급화 전략으로 포지셔닝함</li> <li>○ 일본산이나 유럽산의 고급이미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은 상품으로 포지셔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소비자의 한국산 식품 구매 경험이 낮은 편으로, 러시아, 유럽산 수준의 구매 경험률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함</li> </ul> </li> <li>○ 한국산임을 표시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 개선, 한국형 가치(Korean Value)를 부여하여 신뢰도 향상, 건강과 웰빙, 편의성 등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부여함</li> </ul>

## 라. 4C 전략

### 1) Customer Value(선택과 집중)

- 농식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객과의 점점 확대를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제품을 발굴한다.

  -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지인들의 소비문화 및 요구에 맞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패키징, 포장을 개선하는 등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을 확대한다.
  - 자국 생산이 어렵거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고품질 프로모션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 고급화 이미지 전략으로 젊은 여성 및 고소득층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신규 진입 제품군을 통해 카테고리별 제품을 그룹화하여 제품을 차별화한다.
  
-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하여 이국적인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상품 및 레시피 개발을 통해 한국 식품을 홍보한다.

  - 스낵류를 즐겨 먹는 카자흐스탄 식문화를 활용하여 건강에 좋은 쌀과자, 김스낵 등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산 식자재를 활용한 라면, 찌개 등의 메뉴에 대해 현지화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여 홍보한다.
  - 간장, 된장 등의 양념을 기본 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고품질, 프리미엄 한국 소스의 수요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 현지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매시 품질을 중요시하고, 인증 획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므로 다양한 인증 획득을 통해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가공식품 인증제도인 GOST는 CIS 12개 회원국의 국가 규격으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인증 식품의 경우 매출이 급증하는 등 시장 내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으므로 수출제품에 GOST-K(카자흐스탄) 인증을 획득한다.
  - TR-CU의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마크 없이는 통관과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신선 및 가공식품 내 모든 품목이 인증 대상이므로 인증 획득품을 유통한다.
  - 농식품 인증서 중 Non-GMO와 유기농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이 두 인증서를 취득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포장을 디자인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

## 2) Cost(부가가치 창출)

- 현지 소비자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용량축소 등을 통해 중저가의 식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구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실속형, 벌크형, 완제품형 등 제품 패키지의 다양화, 제품 다각화 등을 통해 제품 단가 인하 요인으로 활용한다.
  - 수출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수출품을 벌크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재포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 물류 개선을 위한 항공 운송 방안, 공동물류를 위한 포워딩사 선정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항공 운송은 신속하여 신선도 유지에 유리하나,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에 불리하므로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 TSR, TCR 공동물류를 위한 포워딩 사 선정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물류비 공동 대응을 위한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3) Convenience(Push 마케팅)

- 현지 식품 전시회에 수출업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한 후, 업체별 핵심고객 타겟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전시회를 선정하여 참여하는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 현지 식품전시회에서 수출업체 공동 시식회 등의 프로모션 추진을 통해 한국 식품에 대한 경험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
  - 신규 고객 확보 후, 고객 수요에 맞는 핵심 제품 및 목표 고객 타겟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전시회를 선정하여 참여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수출제품을 홍보한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 온라인 플랫폼 신규 입점 확대, 식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옴니채널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 및 러시아어 제공을 통해 전시회 참여 정보 및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여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한국 식품 소매업체들의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한국 식품의 안테나숍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전자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한국 식품을 홍보한다.



## 4) Communication(딜러, 소비자와의 소통)

- 유통채널별 특성에 맞게 유통 및 마케팅 방법을 차별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전통적인 소매 채널이 축소되고, 현대적인 유통채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내 중심가 및 고소득층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 전문 유통체인점으로서의 입점을 추진한다.
  - 대형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바자르가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알마티, 아스타나 등의 대도시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품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 현지에서 확장 중에 있는 일본 이온그룹(AEON Group)의 미니스톱이나 할인점(One Price Shop)을 통해 떡볶이, 만두 등 즉석 조리식품의 맛을 알리고 입소문 마케팅을 한다.
- 대부분의 한국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유통 역량이 큰 업체를 발굴하여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 알마티 최대 비즈니스센터에 오픈된 K-FOOD 파일럿샵인 '코리안 푸드 스토리'를 활용하여 한국 수출 식품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들이 소매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인 매그넘(Magnum), 램스토어(Ramstore), 까르푸(Carrefour) 등에 입점을 추진한다.
  - 알마티에 프랑스 Ranzhis 시장을 벤치마킹한 유럽형 푸드마켓 Mizam이 오픈하여 약 2,000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전 연령대의 인터넷 접근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 카자흐스탄

#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2. 소비자 설문 조사
3. 유관기관 목록
4. 주요 박람회 정보
5. 참고문헌

## 1. 전문가 인터뷰

### 가. 전문가 인터뷰 개요

#### □ 인터뷰 배경 및 조사 목적

- 현지의 식품 및 수출입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지와 농식품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였다. 최근 식품 트렌드, 유통 현황, 수출입 절차, 통관, 검역, 인증 등 국내 데스크 리서치로는 알아내기 힘든 정보들을 조사하고 이전 자료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 인터뷰 주요 조사 내용

- 인터뷰 대상자 소개
- 농식품 시장 현황
- 현지 식품 트렌드
- 현지의 유통 및 소비 동향
- 한국산 유통 동향 및 경쟁국 동향 파악
- 식품 수입 절차
- 통관 및 검역
- 수입 식품위생제도
- 수출입 동향 등

####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구분	조사 업체 수
한국식품 수입 업체 / 한국식품점	1
현지 유통 매장	1
통관 물류 업체	5
현지 외식 업체	1
현지 교민 신문사	1

## 나. 전문가 인터뷰 세부 내용

### 1) 한국 식품 판매 동향

- 한국제품은 포장 및 맛, 영양,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품질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타 경쟁 상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라면, 김, 소스류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 한국제품을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하고 눈에 띄게 종류도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 식품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한국식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 한국식품의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맛과 품질, 가격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포장,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식품에 대한 시식 및 판촉 홍보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번 먹어본 맛에 대한 감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식의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불○○면, 떡볶이 등 한국 특유의 매운 음식을 부각한 마케팅이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이루어져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은 맵다는 이미지가 고정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건강식, 웰빙식, 영양식품으로의 홍보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 O사의 진○○면의 GMO 함량 초과 이슈 이후 한국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나타나 다른 한국 식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엄격한 품질관리와 동시에 이에 따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유럽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이 많아 고급스럽고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제품과 유럽 제품 간의 가격이 비슷한 경우 유럽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 외식기업에서 한국 식자재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단가가 낮은 저렴한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농식품 유통 현황

- 수입식품은 도소매상이나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리테일러에게 공급하는 체계이지만 한국식품은 백화점의 고급식품점, 프리미엄 슈퍼마켓, 외식기업, 수입 전문 식품점, 온라인마켓 등 고소득층이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라시아의 경제연합으로 회원국간 관세가 없어 농식품의 경우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선호되고 있어 수입이 많은 편이다.

- 유럽의 농식품 등이 러시아를 거쳐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과의 품질 등에서 경쟁이 되고 있다.
-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산 저가 농식품의 수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 없이 반입되는 사례가 많아 가격 경쟁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 소비자들은 가성비 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생산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면류/소스류/음료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산이 한국산과 경쟁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체나 농식품 유통점들의 판매가 급속히 줄어든 반면에 온라인 유통업체의 인기가 높아지고 판매 비중도 매우 증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프로모션 행사가 프리미엄 슈퍼마켓 및 SNS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 라면, 김 소스(간장, 고추장, 된장)류 등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변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유사제품들이 한글로 포장되어 시판되고 있다.
  -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제품인 것처럼 포장에 한글을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 소비자들은 한국제품의 포장, 품질, 맛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 눈으로 직접 보고, 시식하고 구매하는 소비층을 위해 신제품 판매 시 오프라인 마켓에서의 시식 및 판촉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 3) 물류 현황

- 한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은 해상을 거쳐 철도 등 육로운송을 거쳐야 하므로 운송 기간이 길고 물류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다.
  - 수입 농식품의 물류는 대부분 중국을 거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컨테이너 적체로 인해 운송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국경 검사 시 통관 관련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철도운송과는 달리 항공이나 해상운송의 경우 운임이 크게 인상되어 물류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4개국은 상호간에 관세가 없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므로 4개국의 공동물류 창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가 많거나 보관비용이 적은 국가에 수입물량을 보관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 반출하는 방법이 있다.

#### 4) 수입 통관 시 유의 사항

- 통관 관련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세관이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성향이 강해 세관이 요구하는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만약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수입 통관 시 순중량과 총중량, 철도 BL 상의 국경 및 세관 도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식물위생 증명서, 원산지증명서, GMO 부재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부정확할 시 벌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철도 BL상의 세관 도장이 필수로 찍혀 있어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요청이 있을시 무조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 HS Code가 품목에 따라 각 나라별로 일부 상이하게 적용되는 예도 있으며 인증절차가 다양하고 상세하게 구분돼 있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점점 까다롭게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입 통관 절차는 목적지에 화물 도착시 첨부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관세 납부 및 전자신고서를 제출하고 면장 동의서를 수령하면 창고에서 상품(컨테이너)이 출고 된다.
  - 신선식품일 때 신고서 제출 전 샘플 시험 테스트 절차가 필요하며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화물과 함께 도착해야 하며 창고에 반입되기 전에 식물검사가 이루어진다.
- 통관은 모든 서류들을 절차대로 진행 시 별 문제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전산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 5) 농식품 관련 카자흐스탄 정책 및 소비 동향

- 정부의 GMO 함량 체크, 라벨링,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엄격하며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율이 낮은 편이다, 농업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알마티 의사들이 한국의 O사의 라면과 터키 쿠키가 GMO 대두 함량이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에 따른 0.9%를 초과하여 위험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판매가 한동안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 육류가 주식으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할 정도이나 근래에 들어 웰빙으로 인하여 고기의 소비량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미네랄이 풍부한 샐러드 등 채식으로의 접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6) 수출시장을 확대를 위한 방안이나 제언

- 한국식품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한국식품의 요리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와 곁들여 먹는 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면과 삼각김밥, 라면과 김치, 돼지고기 김치찌개, 고추장 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방식에 대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의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인터넷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식품의 경우 SEE, EAT 마케팅 시대이므로 안테나숍이나 다양한 판촉홍보 행사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SEE MARKETING 시대이므로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된 인터넷몰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 고추장, 김, 라면, 떡볶이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쉽게 발음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어로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품질이 좋은 유럽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나 CIS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품질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 한식의 이미지가 무 첨가물, 유기농, GMO-FREE, 무설탕 건강식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눈에 보이는 다양한 표기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 한국식품은 엄격한 품질 규정을 따른다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 신선식품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냉장·냉동 컨테이너 활용 문제 등과 같은 물류 운송 상의 취약점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한-카자흐스탄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상의 애로사항과 물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지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한국식품에 대한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기름, 버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방 함량이 낮은 건강한 스낵 및 면류의 다양화, 육류 소비 비중이 높은 현지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그리고 신선식품, 과일류 등 신규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 고기가 주식이므로 건강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샐러드 및 채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 7) 수출 유망 품목

- 인삼, 라면, 소스(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 등
- 튀기지 않은 라면 등 경쟁국에 없는 차별화된 상품
- 기름,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스낵 및 면류
- 무설탕 식품, 유기농 식품, 신선식품
-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젤리형, 음료형, 캡슐형, 가루형)

## 8) 상담 시 유의사항

-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문화는 러시아식이므로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상담하는 것이 좋으므로 러시아어 통역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영어 구사자가 적으므로 영어사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질보다는 수출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담 시 제품 카탈로그를 충분히 준비하고 러시아어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거래에 대한 신용도가 낮고 최종 결정은 사장이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거래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 및 전화를 병행해서 사용하여 증거를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 외환거래는 자유로우나 신용장 거래보다는 T/T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금 결제 관계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 외상거래는 배제하여야 하며 수출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외국인에게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여권을 빼앗는 경우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회주의 및 관료주의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서비스 의식이나 시간 개념이 다소 부족이며 현지 구매자들은 받기만 하려는 성향이 크므로 선물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자들과의 약속 시 약속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복장은 깔끔한 정장을 권장하며 건배 제의 등 분위기에 강하므로 음주문화를 조심하여야 한다.

## 2. 소비자 설문 조사

### 가. 소비자 설문 조사 세부결과

#### 1) 설문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분석

- 일 시 : 2020년 10월 12일~10월 16일(5일간 진행)
- 장 소 : 코리안푸드스토리  
(Nurly Tau Business center, 2B, 1st Floor 13 Al-Farabi ave., Almaty, Kazakhstan)
- 방 법 : 비즈니스센터 내의 한국식품점 및 FOOD 코너의 고객 대상 무작위로 설문 조사 실시
- 응답자 : 100명

□ 설문 조사 응답자는 남자 26명, 여자 74명으로 총 100명으로 기혼자는 59%, 미혼자는 40%이며,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32%, 30대가 24%로 20~30대가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연령은 15%대 내외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사무직에 종사했으며, 응답자의 86%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한 달 평균 가구 소득은 3,000달러 미만이며, 가구 규모는 2인이 25%로 3인이 21%, 5인이 20%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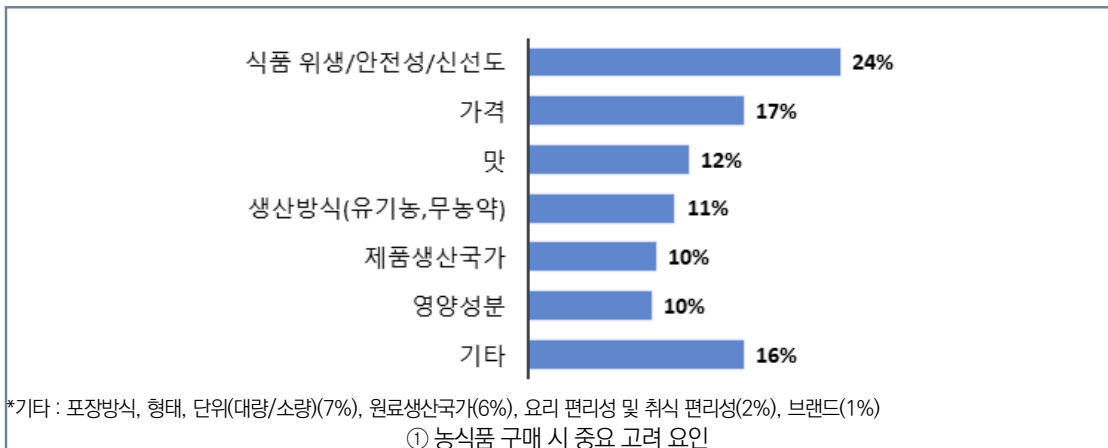
#### □ 응답자 프로필

변수	범주	비율	변수	범주	비율
성별	남자	26%	기혼 유무	기혼	59%
	여자	74%		미혼	40%
	합계	100%		기타	1%
		합계		100%	
연령	20대 이하	32%	직업군	자영업	0%
	30대	24%		사무직	54%
	40대	17%		생산직	8%
	50대	13%		판매/서비스직	12%
	60대	14%		학생	8%
	합계	100%		주부	8%
		기타		9%	
가구 규모	1인	10%	가구 소득	합계	100%
	2인	25%		\$600 미만	44%
	3인	21%		\$600 이상~\$2,000 미만	42%
	4인	17%		\$2,000 이상~\$3,000 미만	11%
	5인	20%		\$3,000 이상	3%
	6인 이상	8%		합계	100%
합계	100%				

## 2) 농식품의 전반적인 소비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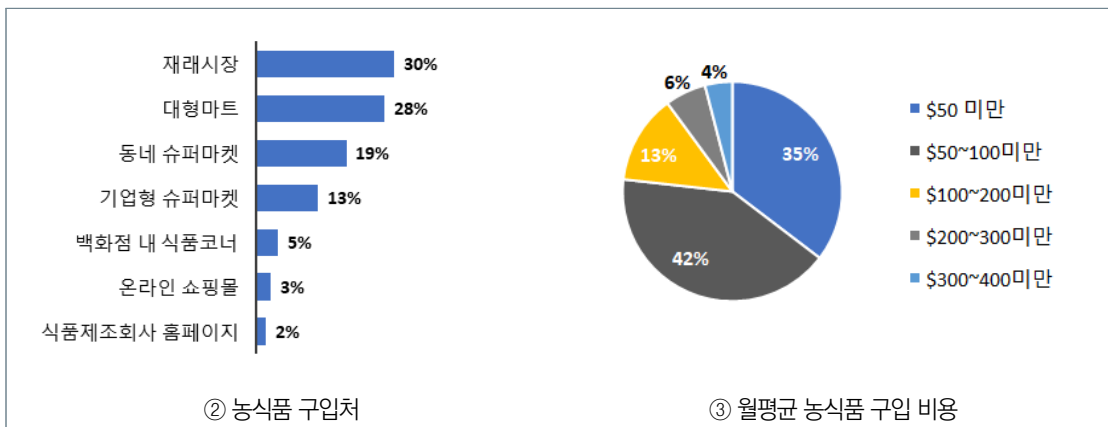
### □ 농식품 소비 행태

- 농식품 구매 시 식품 위생/안전성/신선도와 관련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격과 맛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 중요 고려 요인으로는 식품 위생/안전성/신선도(24%), 가격(17%)과 맛(12%), 생산방식(유기농, 무농약)(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성분(10%)과 생산국가(10%) 역시 근소한 차이로 뒤따름으로써 다양한 고려요인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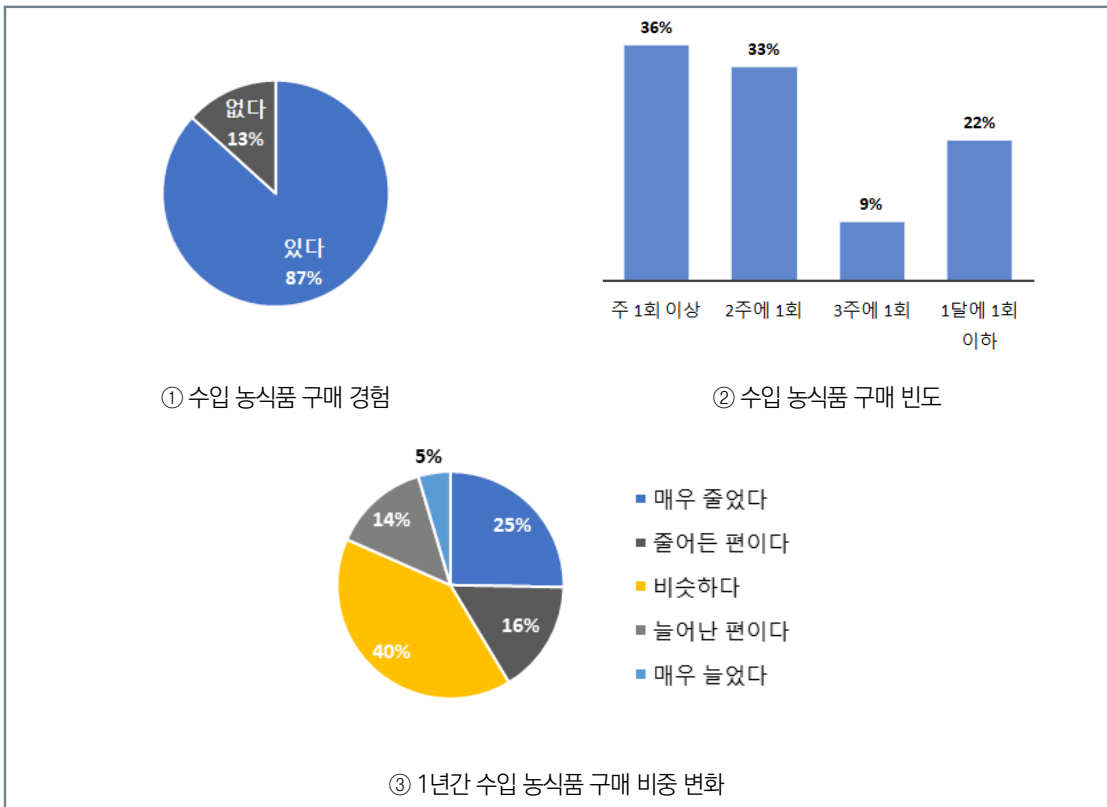
### □ 구매 장소로는 재래시장 이용률이 단독으로 높은 편이나 대형마트와 슈퍼 등 현대식 매장에서의 구입이 대부분이며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가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 재래시장이 30%로 제일 많으며, 대형마트(28%), 동네 슈퍼(19%), 기업형 슈퍼(13%), 백화점(5%)로 재래시장을 제외 시 대부분 현대식 매장에서의 이용률이 높고 온라인 구매가 3%, 제조사 홈페이지 2%로 온라인 구매는 총 5% 수준에 불과하다.
- 월평균 농식품 구매 비용은 \$50~100 미만인 4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 미만이 35%로 높았으며 \$200 이상 소비자도 10%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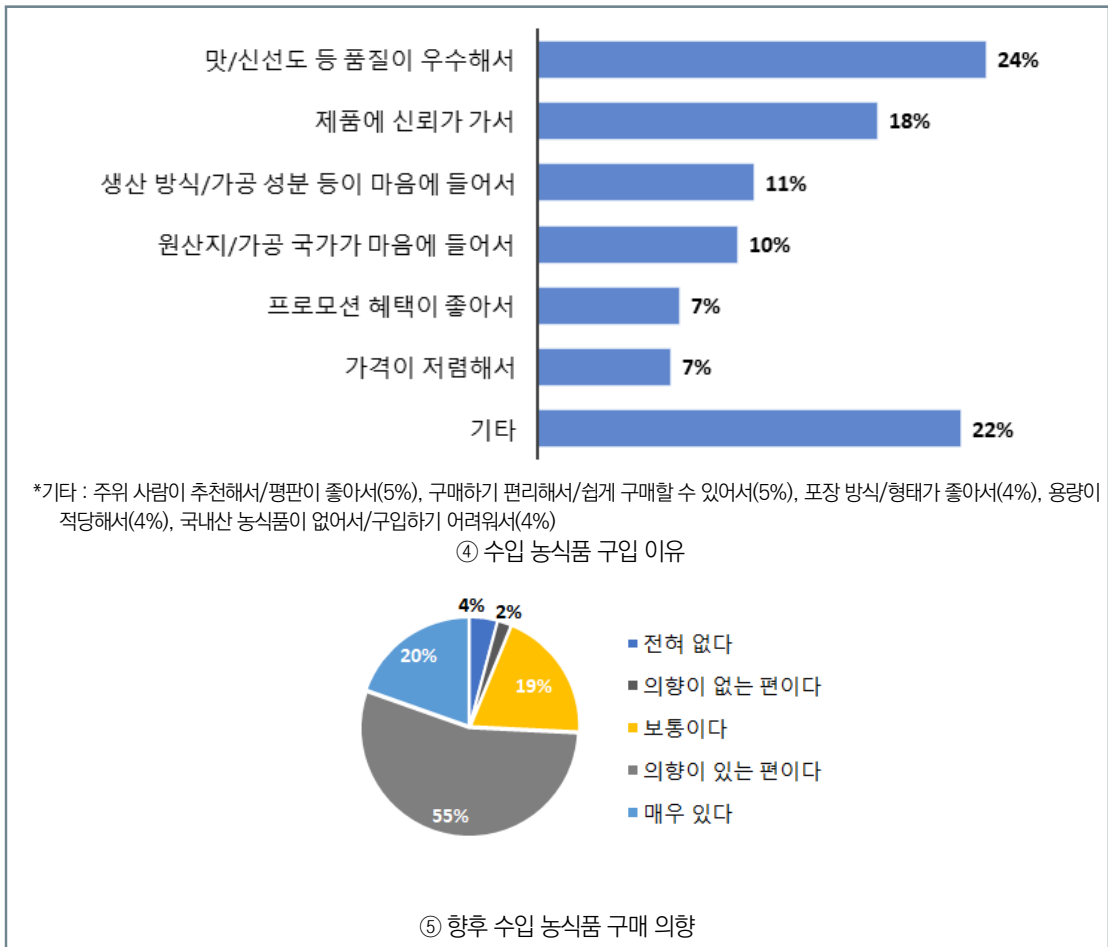


### 3) 수입 농식품 소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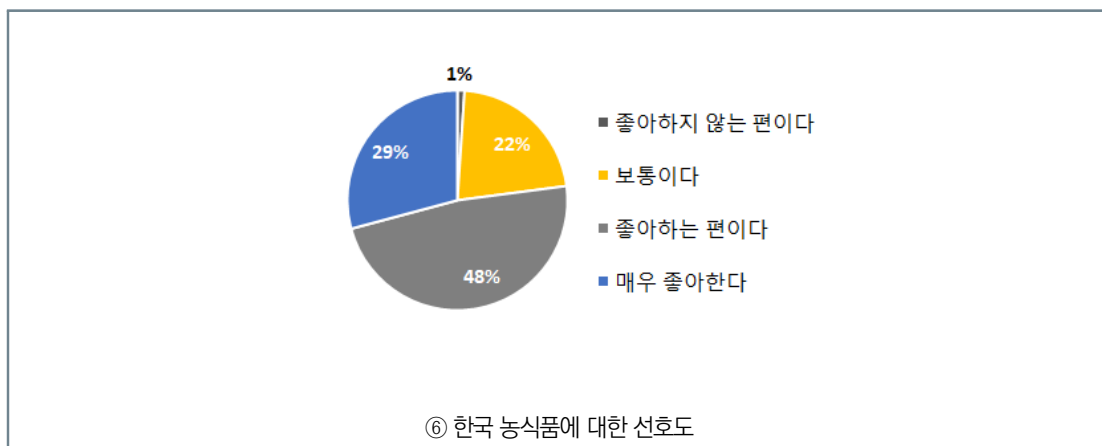
- 수입 농식품 구매 경험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회 이상이 35%, 2주에 1회 이상이 32%로 나타나며 응답자의 67%가 2주에 1회 이상 수입 농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연간 수입식품 구매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년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9%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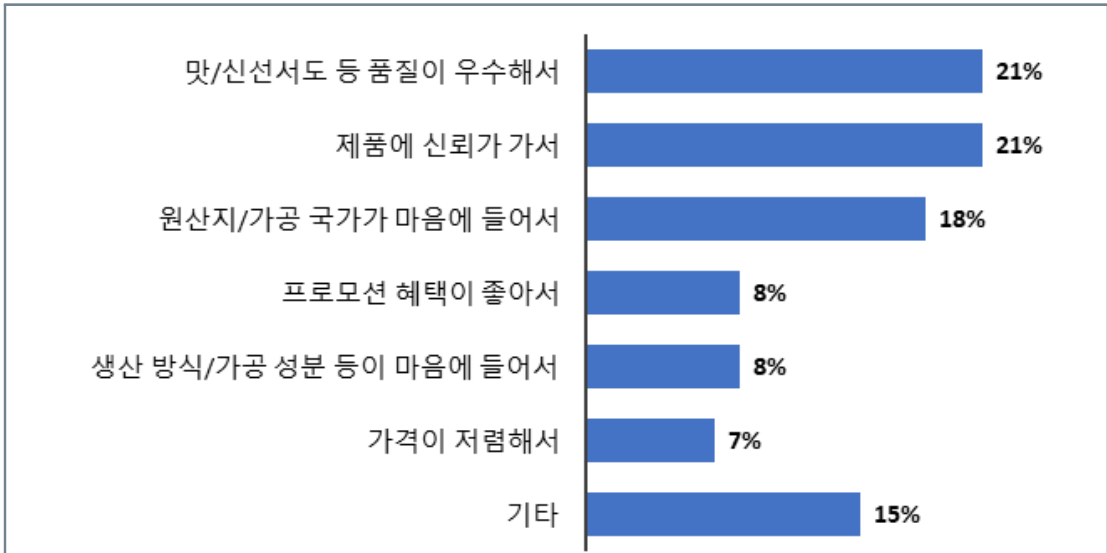
- 맛, 신선도와 관련된 품질 우수의 이유(24%)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18%)가 주요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방식이나 가공 성분에 대한 선호(11%) 및 원산지 국가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10%)가 뒤따르고 있다.
  - 소비자의 75%가 수입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구매의향을 갖고 있으며 6%의 소비자만이 수입식품 재구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구매 시 품질과 관련된 맛/신선도와 제품의 신뢰성 및 생산/가공 방식 등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 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및 연령대별 선호도를 조사한 후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세움과 동시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각종 식품 관련 인증서를 표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농식품에 소비 경험의 긍정적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전체 응답자의 77%가 한국 농식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좋아한다(29%), 좋아하는 편이다(4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22%이며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로 미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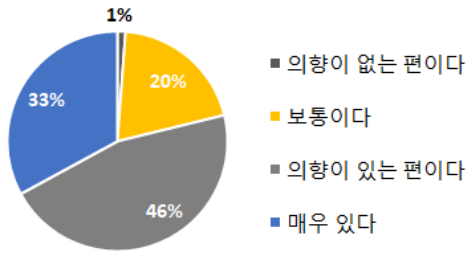


- 한국산 농식품의 구매 요인으로는 수입 농식품의 맛 신선도와 관련된 품질 우수(21%) 및 제품의 신뢰성(21%)이 높았고, 원산지/가공 국가에 대한 선호도(18%)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반면에 기타요인(15%)에서의 요리방식의 편리성(3%), 주위 사람의 추천(3%) 및 적당한 용량(1%)은 구매 요인으로써 미미하게 작용하였다.
  -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77%)로 미루어보아 카자흐스탄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수입 농식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가 79%이므로 제품 인증을 통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 수출한다면 소비자들의 꾸준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 포장 방식/형태가 좋아서(4%), 국내산 농식품이 없어서/구입하기 어려워서(4%), 주위 사람이 추천해서/평판이 좋아서(3%), 요리/섭취 방식이 편리해서(3%), 용량이 적당해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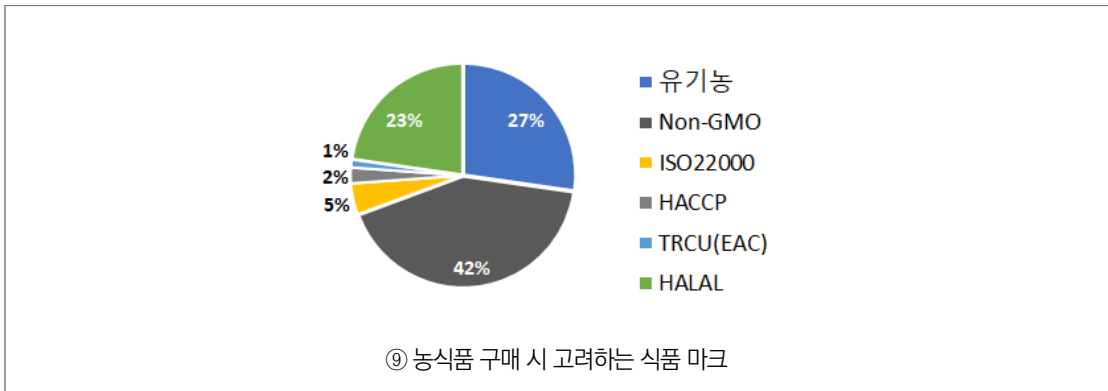
⑦ 한국농식품 구매 이유



⑧ 향후 구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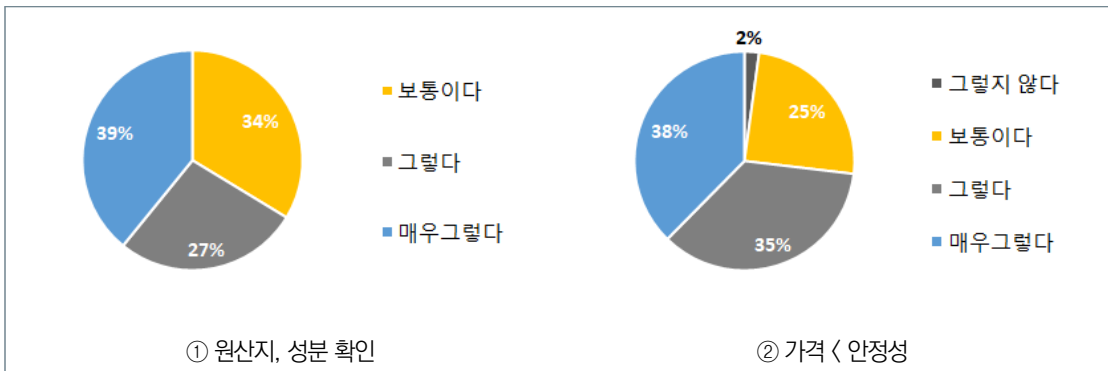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식품 인증으로는 1위 Non-GMO 인증(42%), 2위 유기농인증(27%), 3위 할랄 인증(23%)으로 전체의 총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의 인증들에 대한 중요성은 ISO22000(5%), HACCP(2%), TRCU(EAC)(1%)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 3위를 차지한 할랄 인증에 대한 중요도(23%)는 이슬람교 인구가 대부분인 카자흐스탄 종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 카자흐스탄 소비자는 Non-GMO와 유기농인증 등 자연적인 농식품 생산 방법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므로 친환경 인증과 할랄 인증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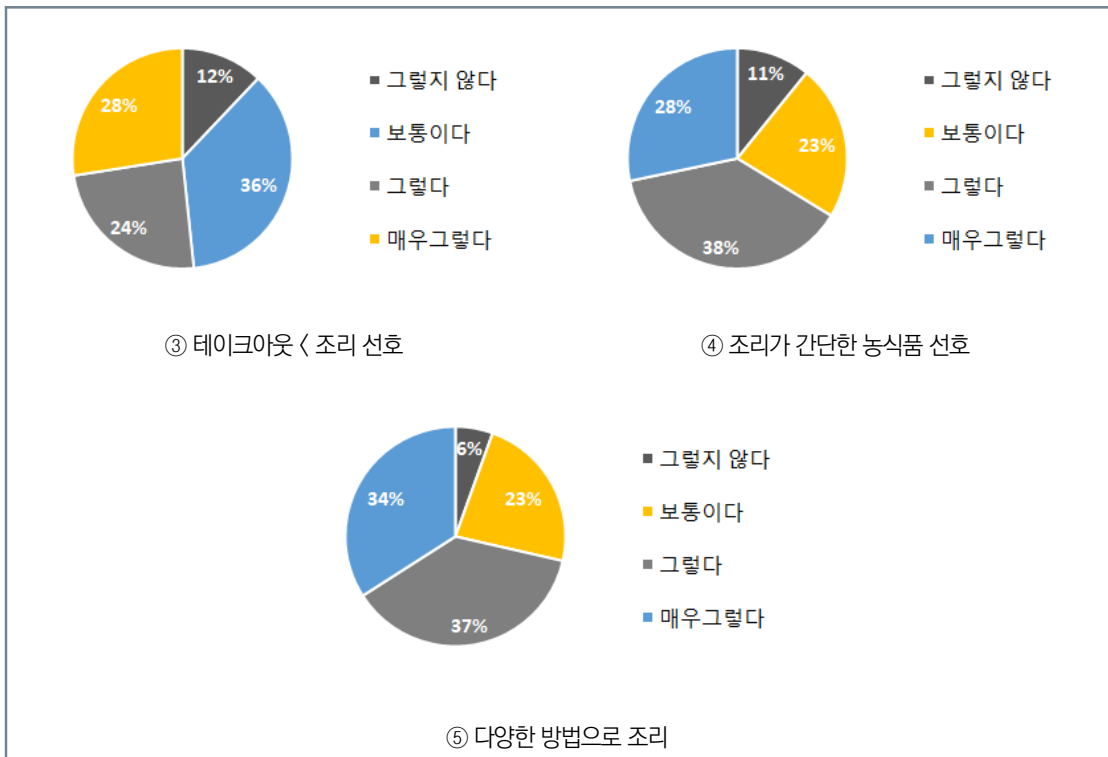
4) 농식품 관련 인식

- 카자흐스탄 농식품 소비자들은 품질과 신뢰성을 주요 구매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매 시 원산지와 성분들을 살핀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39%), 그렇다(27%)로 총66%에 달하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 마찬가지로, 가격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두어 비싸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38%) 그렇다(35%) 총 73%에 달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하였다. 소비자들은 수입산은 물론이고 기본 농식품 구매 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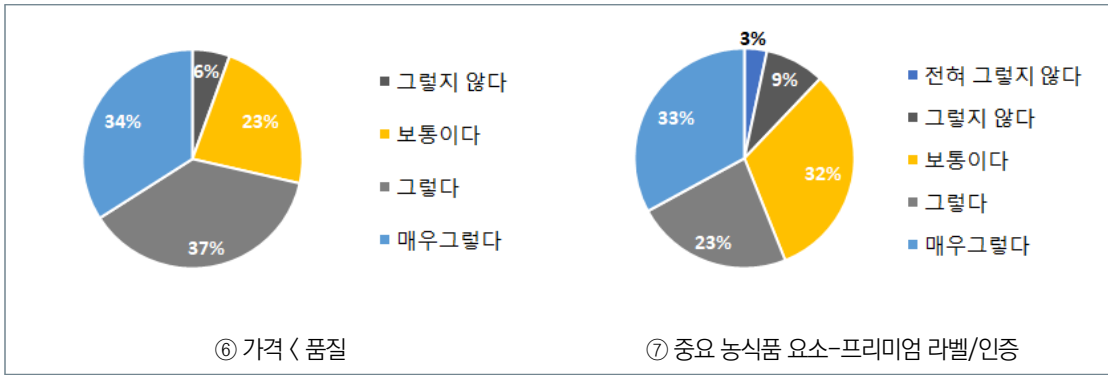


- 농식품을 레스토랑 또는 테이크아웃 하는 것 보다는 조리하여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28%), 그렇다(24%)로 총 52%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조리를 선호하였다.
  - 기본적으로 조리가 가능한 농식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66%를 보이며 조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 농식품 조리 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소비자가 71%를 차지했다.
  - 따라서 농식품 수출시,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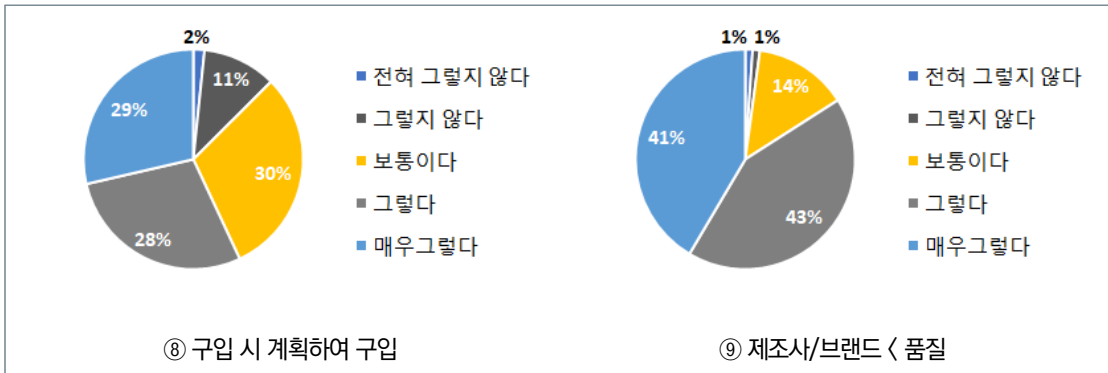
- 품질을 가격보다 중요시하고 농식품 프리미엄 라벨/인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은 농식품을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41%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3%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미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프리미엄 라벨/인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절반 이상인 56%의 응답자가 라벨/인증을 고려한다고 대답했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2%를 나타냈다. 이는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라벨/인증이 있다면 농식품 구매 시 긍정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시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 농식품 구매 시 종류와 수량을 미리 계획하고 품질을 브랜드보다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소비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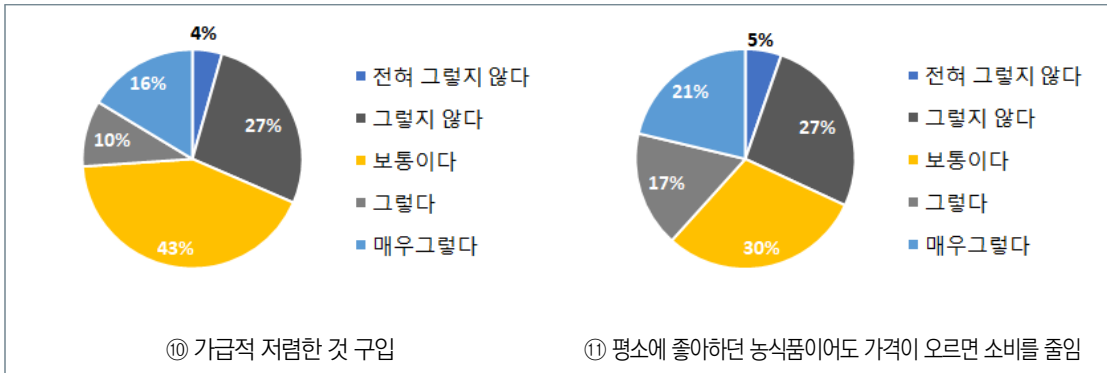
- 응답자의 57%가 농식품을 계획하여 구입한다고 답하였고, 품질을 제조사/브랜드보다 우선시한다는 응답자가 84%로 매우 높았다. 이는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리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판매하는 것이 유명 제조사/브랜드를 앞세우는 것보다 판매에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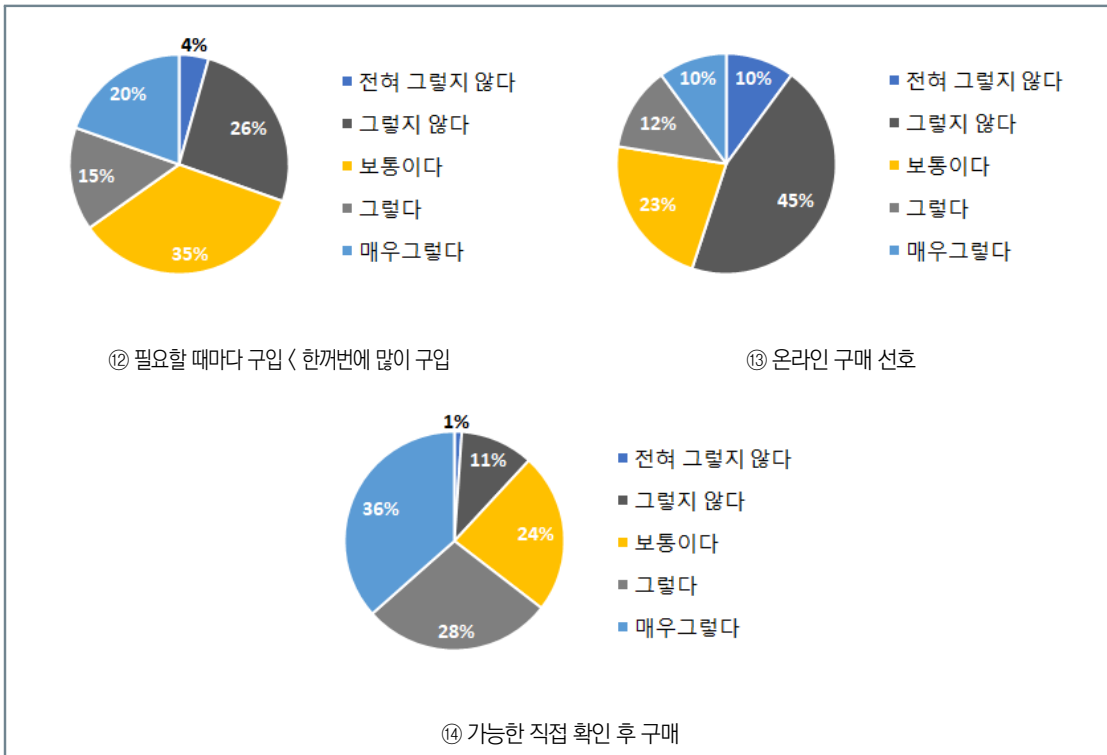
□ 농식품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구매 민감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비슷한 농식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가능한 저렴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가 총 26%로 그렇지 않겠다는 소비자 31%보다 적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보통이다(43%)고 응답함으로써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 평소에 좋아하던 농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38%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2%,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0%로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격에 크게 민감한 경향보다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상품이라면 가격보다는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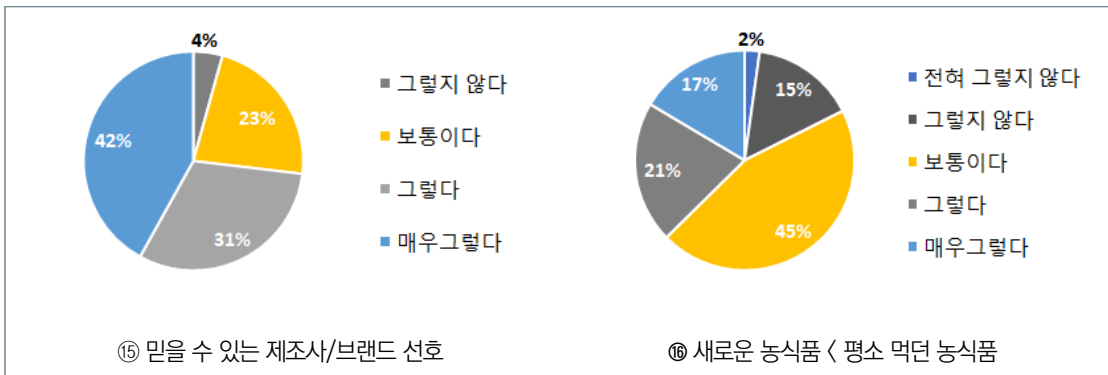


- 한꺼번에 대량구입과 필요시 구입에 대한 차이는 5%로 크지 않았으며 가능한 직접 확인 후 구매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 온라인 구매 선호도가 크지 않았다.
  - 농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향성이(35%) 보통이라는 응답(35%)과 동일한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구입한다는 응답이 30%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가능한 육안으로 보고 확인 후 구매하는 소비자가 64%로 품질을 확실하게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에 대한 선호도가 22%에 그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비선호도가 55%로 절반 이상의 수치를 나타냄에 따라, 중도 입장에 있는 23%의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구매 전략을 세우거나 또는 실물 확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구매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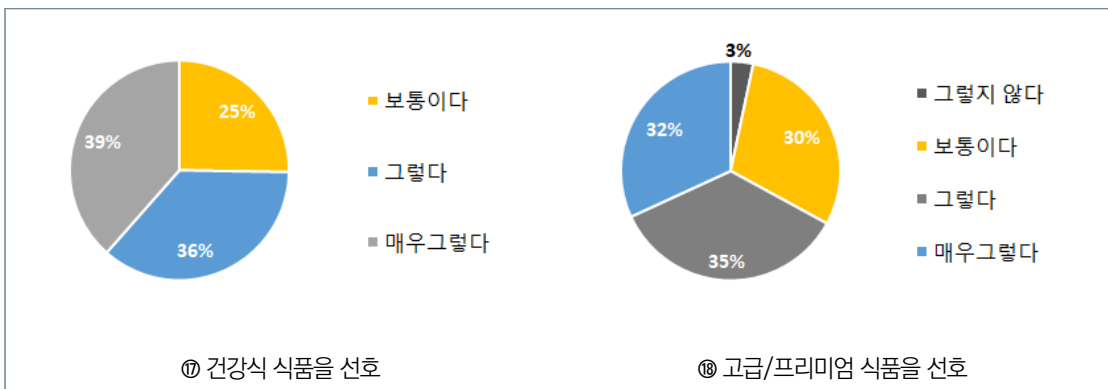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농식품 구매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제조사와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으며 평소 구매하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
  -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브랜드에서 나온 농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44%로 많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1%에 그쳤다.
  - 새로운 농식품보다는 평소 본인이 먹는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이 38% 차지했으며 새로운 농식품을 먹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17%로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적었다.
  - 새로운 농식품과 평소 먹던 농식품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비자가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케팅 수출 전략을 위한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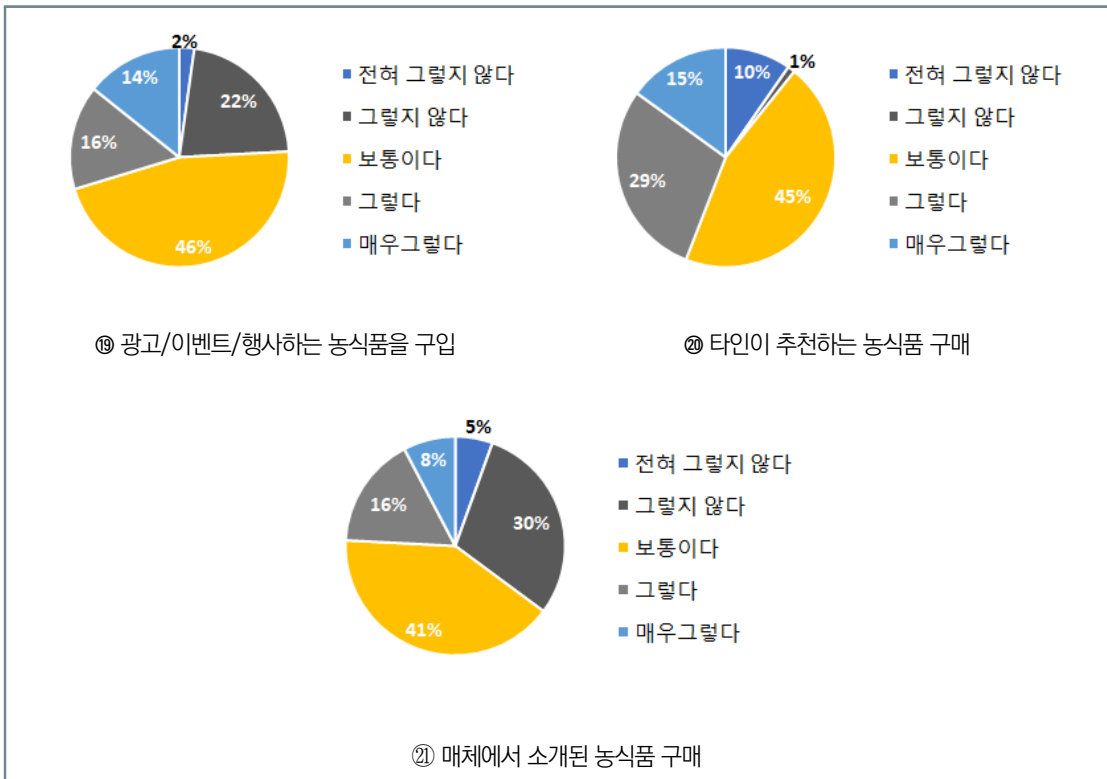


- 건강식 식품과 고급/프리미엄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건강식 및 프리미엄 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건강식을 선호한다고 75%로 보통이라는 응답자 25%의 3배나 달했으며 고급/프리미엄 식품을 선호하는 비율도 67%를 차지했다.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농식품의 품질, 신뢰성,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꾸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고품질 농식품 판매 또한 성공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 프리미엄 마케팅을 병행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광고/프로모션 민감도

- 카자흐스탄의 농식품 소비자들 중 30%가 광고/이벤트/행사를 하는 농식품을 구매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44%로 매체에 소개된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소비자 24%의 2배를 조금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 광고/이벤트/행사 또는 각종 매체에 소개된 농식품 보다는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품질과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직접 농식품을 실물로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언론매체나 광고 보다는 직접 경험해본 지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출 전략 수립 시 간접 광고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소문 전략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소비자 설문 조사지

카자흐스탄	식품관련 소비자 농식품 조사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농식품소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절대로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월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 📍 조사대상자

- 현지 거주 만 20대 이상 성인 남녀(20대 ~ 60대 이상 연령대 별로 최소 10명이상 조사)

## Screening Questions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선택]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1개선택]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A. 농식품소비 행태

A1. 귀하께서 농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1) 제품판매가격             | 2) 생산방식(유기농, 무농약 등) |
| 3) 포장방식/형태/단위 (대량/소량) | 4) 원료생산국가           |
| 5) 제품생산국가             | 6) 맛                |
| 7) 영양 성분              | 8) 요리 편리성 및 취식 편리성  |
| 9) 식품 위생/안전성/신선도      | 10) 브랜드             |
| 11) 광고/홍보/프로모션        | 12) 기타(      )      |

A2. 귀하께서는 농식품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주로 구입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현지 소매채널 특성에 맞게 조정가능

1	대형마트	5	재래시장
2	기업형 슈퍼마켓	6	온라인 쇼핑몰
3	동네 슈퍼마켓	7	식품 제조회사 홈페이지
4	백화점 내 식품코너	8	기타(            )

A3. 귀하께서 월 평균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1개선택]

- 1) \$50 미만                      2) \$50이상 \$100 미만                      3) \$100이상 \$200미만  
4) \$200이상 \$300미만        5) \$300이상 \$400미만                      6) \$400 이상

## B. 수입 농식품 소비 행태

B1. 귀하께서는 수입 농식품을 드셔보거나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개선택]

- 1) 있다                              2) 없다 → 조사중단

B2. (B1.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평소 수입 농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 하십니까? [1개선택] (    )

주 1회 이상	2주에 1회	3주회 1회	1개월에 1회	2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미만
1	2	3	4	5	6	7

B3. (B1.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과거 1년 전과 비교해서 수입 농식품을 구입하시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우 줄어 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줄어 든 편이다	비슷하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늘어난 편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우 늘었다
1	2	3	4	5

## 카자흐스탄

B4. (B1.1번 응답자) 귀하께서 수입 농식품을 구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선택] ( )

1	국내산 농식품이 없어서/구입하기 어려워서	8	생산 방식/가공 성분 등이 마음에 들어서
2	가격이 저렴해서	9	제품에 신뢰가 가서
3	프로모션 혜택이 좋아서	10	용량이 적당해서
4	맛/신서도 등 품질이 우수해서	11	원산지/가공 국가가 마음에 들어서
5	주위 사람이 추천해서/평판이 좋아서	12	구매하기 편리해서 /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6	요리/섭취 방식이 편리해서	13	기타( )
7	포장 방식/형태가 좋아서		

B5. 귀하께서는 향후 수입 농식품을 구입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1개선택]

전혀 구매할 의향이 없다	구매할 의향이 없는 편이다	보통	구매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매우 구매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B6. 귀하께서는 한국산 농식품을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B7. 귀하께서 한국산 농식품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선택] ( )

1	국내산 농식품이 없어서/구입하기 어려워서	8	생산 방식/가공 성분 등이 마음에 들어서
2	가격이 저렴해서	9	제품에 신뢰가 가서
3	프로모션 혜택이 좋아서	10	용량이 적당해서
4	맛/신서도 등 품질이 우수해서	11	원산지/가공 국가가 마음에 들어서
5	주위 사람이 추천해서/평판이 좋아서	12	구매하기 편리해서 /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6	요리/섭취 방식이 편리해서	13	기타( )
7	포장 방식/형태가 좋아서		

B8. 귀하께서는 향후 한국에서 생산/제조하는 농식품을 구입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혀 구매할 의향이 없다	구매할 의향이 없는 편이다	보통	구매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매우 구매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B9. 귀하께서 농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식품마크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선택] ( )

1	유기농	5	TR CU
2	Non-GMO	6	HALAL
3	ISO 22000	7	기타( )
4	HACCP		

### C. 농식품 관련 인식

C1. 귀하께서는 농식품과 관련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안전성	1. 구입할 때 원산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다	1	2	3	4	5
	2.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농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식사 행태	3. 농식품은 레스토랑이나 테이크아웃 해서 사먹는 것 보다는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4. 조리가 간단한 농식품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5. 농식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먹는다	1	2	3	4	5
프리 미엄 소비	6.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은 농식품을 선호한다	1	2	3	4	5
	7. 프리미엄 라벨/인증이 농식품 구매에 중요 요소이다	1	2	3	4	5
합리적 소비	8. 구입할 때 미리 계획하여(종류/수량)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농식품은 제조사/브랜드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가격 민감	10. 비슷한 농식품이 여러 개 있으면 가급적 저렴한 것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농식품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편이다	1	2	3	4	5
구매 행태	12.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기보다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먹는 편이다	1	2	3	4	5
	13. 편리해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가능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1	2	3	4	5

**카자흐스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충성도	15. 믿을 수 있는 제조사/브랜드에서 나온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16. 새로운 농식품보다 평소 내가 먹는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인식	17. 건강식 식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고급스럽고 프리미엄한 식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1	2	3	4	5
광고/ 프로 모션 민감도	19. 광고/이벤트/행사를 하는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21. 뉴스, TV 프로그램, 인터넷 영상 등에서 소개된 농식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Demographic Questions**

DQ1.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개선택]

- 1) 예                                      2) 아니오                                      3) 기타

DQ2. 현재 귀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동거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 1) 혼자 거주함                              2) 2인                                      3) 3인  
4) 4인                                      5) 5인                                      6) 6인 이상

DQ3. 다음 중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자영업                                      2) 사무직                                      3) 생산직  
4) 판매/서비스직                              5) 학생                                      6) 주부  
7) 기타(                                      )

DQ4. 실례지만,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600 미만                                      2) \$600 이상 \$2,000 미만  
3) \$2,000 이상 \$3,000 미만                              4) \$3,000 이상

### 3. 유관기관 목록

#### 가. 국내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대한민국 정부24	<a href="https://www.gov.kr">https://www.gov.kr</a>	정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a href="http://www.mafra.go.kr">http://www.mafra.go.kr</a>	농업 관련
외교부	<a href="http://www.mofa.go.kr">http://www.mofa.go.kr</a>	외교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산업, 무역 업무
통계청	<a href="http://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a>	국가 통계 업무
기획재정부	<a href="http://www.mosf.go.kr/">http://www.mosf.go.kr/</a>	국가 재정 업무
보건복지부	<a href="http://www.mohw.go.kr">http://www.mohw.go.kr</a>	검역, 위생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a href="http://www.qia.go.kr">http://www.qia.go.kr</a>	동식물, 수출 검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농산물 유통, 지원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a href="http://www.mfds.go.kr">http://www.mfds.go.kr</a>	식품, 의약품 시험, 검정
한국무역협회	<a href="http://www.kita.net">http://www.kita.net</a>	해외 무역정보, 통상 관련
관세청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관세 정보 공개 및 관세 행정
대한상공회의소	<a href="http://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a>	상공업, 무역, 수출 전략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 href="http://www.naqs.go.kr">http://www.naqs.go.kr</a>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개량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a href="http://www.ftapass.or.kr">http://www.ftapass.or.kr</a>	원산지관리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 href="http://www.hsnavi.or.kr">http://www.hsnavi.or.kr</a>	HS 품목분류 확인서비스, HS코드 내비게이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 href="http://www.custra.com">http://www.custra.com</a>	HS 품목정보, 수출입 요령, 종합세율, 통 관정보


#### 나. 현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카자흐스탄 정부	<a href="http://www.government.kz">www.government.kz</a>	정부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각종 정보 제공
관세청	<a href="http://www.keden.kz">www.keden.kz</a>	통관 및 관세 정보 제공
통계청	<a href="http://www.stat.gov.kz">www.stat.gov.kz</a>	통계 정보 제공
농업부	<a href="http://www.mgov.kz/en">www.mgov.kz/en</a>	농업 관련 정보 제공
외무부	<a href="http://www.mfa.gov.kz">www.mfa.gov.kz</a>	외교관련 정책 제공
행정부	<a href="http://www.mvd.gov.kz">www.mvd.gov.kz</a>	국가 행정관련 정보 제공
중앙은행	<a href="http://www.nationalbank.kz">www.nationalbank.kz</a>	경제 및 투자 등의 정보 제공
투자진흥공사	<a href="http://www.kazninvest.kz/en">www.kazninvest.kz/en</a>	경제 및 투자 등의 정보 제공
상공회의소	<a href="http://www.cci.kz">www.cci.kz</a>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표준인증규격위원회	<a href="http://www.memst.kz">www.memst.kz</a>	농산물 및 식품을 포함 다양한 인증 품목의 규격 개발 및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한인회	<a href="http://www.cistoday.com">www.cistoday.com</a>	카자흐스탄 한인 정보 제공 사이트

## 다. 범국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 href="http://www.fao.org">http://www.fao.org</a>	세계 식량, 농산물 정보 제공 등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a href="http://www.intracen.org">http://www.intracen.org</a>	무역 데이터 제공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 href="http://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a>	세계은행, UN산하 금융기관, 국제 무역 확대 및 수지 균형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 href="http://www.imf.org">http://www.imf.org</a>	세계 무역 안정, 경제정보 제공
UN무역통계자료 (UN Comtrade Database)	<a href="http://www.comtrade.un.org">http://www.comtrade.un.org</a>	UN 무역통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 href="http://www.oecd.org">http://www.oecd.org</a>	회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 공동 대처

#### 4. 주요 박람회 정보

박람회명	2021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식품 전시회	
개최기간	2021년 5월 26일~28일(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누르술탄	
산업분야	식품 및 음료, 기계 및 장비	
홈페이지	<a href="https://iteca.kz/en/">https://iteca.kz/en/</a>	

박람회명	2021 카자흐스탄 알마티 식품산업 전시회	
개최기간	2021년 11월 3일~5일(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알마티	
산업분야	식품&음료, 농수산&임업	
홈페이지	<a href="https://iteca.kz/en/">https://iteca.kz/en/</a>	

박람회명	2021 카자흐스탄 알마티 농업 전시회	
개최기간	2021년 11월 3일~5일(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알마티	
산업분야	농수산, 임업	
홈페이지	<a href="https://iteca.kz/en/">https://iteca.kz/en/</a>	

## 5. 참고문헌

### 가. 참고문헌

-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카자흐스탄편 /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
-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V (기타신흥국) / KATI Kati / 2018
- 2019 수출국가정보 zip 아태기타국·중동 /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9
- 2019년도 농식품 수출 이슈 보고서 글로벌 식품시장이슈편 /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9
-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 미국 농무부 / 2020
- 러시아 국경세관 통관절차와 EAEU 신관세법 / 한국교통연구원 / 2019
- 러시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번역본) / KATI / 2019
-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TR Cu 029 / 2012
-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TR Cu 022 / 2011
- 2020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 종합 가이드 /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0
-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미국 무역 대표부 / 2019
-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대응방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6
-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한국무역협회
- 중앙아시아 통관 인프라 현황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 인프라 연구소
- TCR 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 나. 참고 웹사이트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http://www.rus.or.kr>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
-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kz-almaty-ko/index.do>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z-ko/index.do>

- 유로모니터Euromonitor [www.euromonitor.com](http://www.euromonitor.com)
-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 연합뉴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서 '누르술탄'으로 개칭 확정 2019.03.24. 유철종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34500080>
- 미국중앙정보국 <https://www.cia.gov>
- 서울일보 고려인들, 정치·경제-사회·문화 '톱클래스' 2020.04.02. 소정현 대기자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10>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 KDI 경제정보센터 <http://eiec.kdi.re.kr/main.do>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유라시안 커미션 [www.eurasiancommission.org](http://www.eurasiancommission.org)
- 세린스 <http://www.cerins.net/>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
- 연합뉴스 '위기이자 기회'... 카자흐스탄 19년만에 WTO 가입  
<https://www.yna.co.kr/view/AKR20150728180300095?input=1195m>
- FTA 포털 <http://www.fta.go.kr>
- Trung tam WTO <http://trungtamwto.vn/>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 세계은행 <https://www.worldbank.org/>
- 카자흐스탄 뉴스 <https://express-k.kz/>





##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카자흐스탄]

---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발 행 일** 2020년 12월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분석부(kati@at.or.kr)

---

- 본 자료는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 KATI([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및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가이드  
**카자흐스탄**